

표지

이번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먼 길을 마다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해외 학자들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의 기본 도구이고, 역사교육은 교실에서 책을 통하여 역사와 만나는 공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깊이 남을 뿐 아니라 굳어지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범람하는 역사소설·영화 등을 이해하는 기본 지식을 역사교과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은 주변국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국제학술회의는 바로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자국사뿐 아니라 주변국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교류의 상대인 주변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국제학술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대만 등의 각국의 역사교과서 전문가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위한 학술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각국의 역사는 모두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그 기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바른 역사교과서가 말로 역사 갈등의 귀결점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상대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를 모색하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각 국가의 관계자를 비롯한 실무위원, 그리고 발표, 토론, 통역, 번역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용덕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in this session, and particularly those who have come from faraway countries.

History textbooks are very important, as they exert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historic perspectives in the minds of young people. They are also the basic tools of history education. History classes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history through books. At present, there are many books, dramas and films that incorporate historic events as their materials. The authors of history textbooks should also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facts about such events so that people may acqui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history. Furthermore, the history textbooks used in a given country inevitably contain contents that refer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This means that history books also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a country's relations with those other countries.

This workshop, which involve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from Korea, China, Japan, Mongolia, Russia, Taiwan and Vietnam, is intended as a means to examine how the history textbooks used in East Asian countries describe the history of their own and other countries, and as a forum for the exchange of opinions on this matter. This is an important step that must be taken, as it will help people to set right what has been incorrectly understood by them.

The history of a particular country is a valuable thing for its people. As such, we should respect the histories of other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contents of a nation's history books will be a measure of the respect paid to the relevant countries.

I sincerely hope that this session will serve as an occasion in which the countries of the region extend their respect to the individual histories of the other countries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history books composed of accurate information will us to help settle historic conflicts and establish the basis for lasting peace in the region.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all those who have helped to organize this workshop.

November 15, 2007

Kim Yong-deok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월 15일(목)

개회식

사회 : 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0:00~10:10 등록
10:10~10:20 개회사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1부

10:20~11:20 **중국역사교과서의 변혁과 동아시아역사 인지**
발표 : 朱汉国(중국 북경사범대학 교수)
토론 : 김지훈(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11:20~12:20 **한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특징**
발표 :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2:20~13:30 중식

제2부

사회 :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3:30~14:30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동아시아**
발표 : 深谷克己(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토론 : 신주백(국민대학교 연구교수)

14:30~15:30 **개혁과 변화-대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발표 : 林麗月(臺灣國立師範大學歷史研究所 교수)
토론 : 이화승(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15:30~15:40 휴식

제3부

사회 :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5:40~16:40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 고등 교육의 사회·정치적 오리엔테이션**
발표 : G. A. 트카초바(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원)
토론 :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6:40~17:40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內的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서술**
발표 : 응웬 반 카잉(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
토론 : 윤대영(서울대학교 강사)

11월 16일(금)

제4부

사회 :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09:00~10:00 **몽골의 역사 교육 : 역사 교과서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
발표 : J. 게렐바드라흐(몽골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토론 : 김장구(동국대학교 강사)

10:00~11:00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발표 : 신성곤(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 송요후(청담고등학교 교사)

종합토론

사회 : 안병우(한신대학교 교수)
11:00~11:40 총괄논평(1~2부) : 강희웅(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총괄논평(3~4부) : 이찬희(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11:40~12:30 토론

폐회식

12:30~12:40 사회 : 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November 15 (Thursday)

- Opening Ceremony** Moderator: No Gisik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10:00~10:10 Registration
- 10:10~10:20 Opening Remarks : Kim Yongdeok (President of the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Session I**
- 10:20~11:20 **On the changes of China's history textbooks and the cognitive of East Asian history**
Presenter : Zhu Hanguo (Beijing Normal University)
Discussant : Kim Jihun (Sungkyunkwan University)
- 11:20~12:20 **How the History Book Used in Korea Describe Neighboring Countries**
Presenter : Yeon Minsu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Discussant : Kim Euns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2:20~13:30 Lunch
- Session II** Moderator: Lim Sangseon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13:30~14:30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East Asia**
Presenter : Fukaya Katsumi (Waseda University)
Discussant : Sin Jubaek (Kookmin University)
- 14:30~15:30 **Innovation and Change - Korean History in Taiwanese Textbooks**
Presenter : Lin Liyue (History Research Center, Taiwan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Discussant : Yi Hwaseung (Seoul Digital University)
- 15:30~15:40 Intermission

Session III

- Moderator: Choe Deokgyu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15:40~16:40 **Rus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Socio-Political Orientation in Higher Education**
Presenter : G. A. Tkachova (History, Archaeology Anthropology R&D Center, Far East Branch of Russia Science Academy, Vladivostok)
Discussant : Jang Seokho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16:40~17:40 **PRESENTATION OF EASTERN ASIAN COUNTRIES IN PRESENT-DAY VIETNAMESE TEXTBOOKS**
Presenter : Nguyen Van Khan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Discussant : Yun Daey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ovember 16 (Friday)

- Session IV** Moderator: Yi Seongje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09:00~10:00 **History Education in Mongolia : On the Description on East Asia as reflected in history text books.**
Presenter : J. Gerelbadrakh (Mongol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Discussant : Kim Janggu (Dongguk University)
- 10:00~11:00 **Organization and Properties of Korean "East Asia" Textbooks**
Presenter : Sin Seonggon (Hanyang University)
Discussant : Song yoowho (Chungdam highschool)
- Discussion** Moderator : An Byeongu (Hanshin University)
- 11:00~11:40 Comment for Session I & II : Kang Huiung (University of Hawaii)
Comment for Session III & IV : Yi Chanhu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1:40~12:30 Discussion
- Closing Ceremony** 12:30~12:40 Moderator : No Gisik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發表演(韓國語)

제1주제	중국역사교과서의 변혁과 동아시아역사 認知	13
	발표 : 주 한구오(朱汉国, 중국 북경사범대학 교수) 토론 : 김지훈(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제2주제	한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특징	29
	발표 :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제3주제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동아시아	53
	발표 : 후카야 카츠미(深谷克己,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토론 : 신주백(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제4주제	개혁과 변화-대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77
	발표 : 린 리우에(林麗月, 臺灣國立師範大學歷史研究所 교수) 토론 : 이화승(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제5주제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 고등 교육의 사회·정치적 오리엔테이션	91
	발표 : G. A. 트카초바(G. A. Tkachova,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원) 토론 :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6주제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内的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서술	103
	발표 : 응웬 반 카잉(Nguyen Van Khanh,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 토론 : 윤대영(서울대학교 강사)	
제7주제	몽골의 역사교육 :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	117
	발표 : J. 게렐바드라흐(J. Gerelbadrakh, 몽골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토론 : 김장구(동국대학교 강사)	
제8주제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131
	발표 : 신성곤(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 송요후(청담고등학교 교사)	

發表演(原文)

제1주제	中国历史教科书的变革与东亚历史认知	153
	朱汉国(中國 北京師範大學校 교수)	
제2주제	한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특징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제3주제	日本の歴史教科書と東アジア	169
	深谷克己(日本 早稲田大学 교수)	
제4주제	改革與改變：臺灣高中歷史教科書中的韓國史書寫	191
	林麗月(臺灣國立師範大學歷史研究所 교수)	
제5주제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АТР: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ОРИЕНТАЦ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211
	Г.А.Ткачев (Владивосток ИАЭ ВФАН)	
제6주제	TRÌNH BÀY CÁC NƯỚC ĐÔNG BẮC Á TRONG SÁCH GIÁO KHOA VIỆT NAMHIỆNNAY	233
	Nguyễn Văn Khánh(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Hà Nội)	
제7주제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галт :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дэх Дорнын түүх (Солонгос, Япон, Хятад)-ийг өгү үлэх онцлог шинж	251
	Монголу лсынБагшийндээСургууль	
제8주제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신성곤(한양대학교 교수)	

CONTENTS

Abstract(English)

- 1Secion On the changes of China's history textbooks and the cognitive of East Asian history ————— 269
Zhu Hanguo (Beijing Normal University)
- 2Secion How the History Book Used in Korea Describe Neighboring Countries ————— 271
Yeon Minsu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3Secion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East Asia ————— 53
Fukaya Katsumi (Waseda University)
- 4Secion Innovation and Change - Korean History in Taiwanese Textbooks ————— 77
Lin Liyue (History Research Center, Taiwan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 5Secion Rus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Socio-Political Orientation in Higher Education ————— 91
G. A. Tkachova
(History, Archaeology Anthropology R&D Center, Far East Branch of Russia Science Academy, Vladivostok)
- 6Secion PRESENTATION OF EASTERN ASIAN COUNTRIES IN PRESENT-DAY VIETNAMESE TEXTBOOKS 103
Nguyen Van Khan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 7Secion History Education in Mongolia:
On the Description of East Asia as Reflected in History Textbooks. ————— 117
J. Gerelbadrakh (Mongol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 8Secion Organization and Properties of Korean Textbooks on East Asia ————— 117
Sin Seonggon (Hanyang University)

제 1 부

제1주제

중국역사교과서의 변혁과 동아시아역사 認知

>>발표_ 朱汉国(중국 북경사범대학교 교수)

>>토론_ 김지훈(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중국역사교과서의 변혁과 동아시아역사 認知

朱汉国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교수)

- I. 중국 역사교과서의 변혁
- II.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의식과 “동아시아사” 인지

<내용개요>

2001년부터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한 가지 교재가 “천하통일” 하는 국면을 바꾸어 “하나의 강요에 여러 권의 교재(一綱多本)”의 방식을 형성하였다. 7-9학년의 역사교과서는 인민교육판, 북경사범대학판, 화동사범대학판, 악록서사판, 사천교육판, 중화서국판, 중국지도판, 하북인민판 등 8종의 판본이 있다. 10-12학년의 역사교과서는 인민판, 인민교육판, 악록서사판, 대상판 등 4종의 판본이 있다.

각종 신판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중국 교육부가 반포한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해 내용에서는 기초성, 시대성의 요구에 근거해 어느 정도의 변혁을 하였다. 7-9학년의 역사교과서는 역사과정을 중국고대사, 중국 근대사, 중국현대사, 세계고대사, 세계근대사, 세계현대사 6개 학습부분으로 나눈다. 각 학습부분 안에는 역사발전의 특징에 근거해 약간의 학습주제를 확정하였다. 10-12학년의 역사교과서는 역사과정을 필수과정과 선택과정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필수과목은 3개 학습부분이 있는데 각각 인류사회정치, 경제, 사상문화, 과학 기술 등 영역의 중요한 역사내용을 반영하였는데 전체학생이 반드시 배워야하는 기본내용이다. 선택과목은 6개 학습부분이 있다. 각각 “역사상의 중대개혁회고”,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중외역사인물평론”, “역사의 비밀탐색”, “세계문화유산모음”이다.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동아시아역사 특히 중일관계에 일정한 서술이 있다. 동아시아역사관련 논술 중에서 중국 역사교과서는 아래 열거

한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다. 첫째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존중한다. 둘째는 중국과 동아시아각국의 우호왕래 역사를 집필한다. 셋째는 동아시아국제간의 충돌과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동아시아역사 관련 논술 중에 금후에는 한국, 조선, 몽골 등 국가의 논술을 강화해야한다.

2000년 이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는《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실험고)》¹⁾,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실험)》²⁾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뒤이어 상술한 문건지도 하에서 중학역사교과서는 과거의 한 가지 교재가 “천하통일” 하는 국면을 바꾸어 “하나의 강요에 여러 권의 교재(一綱多本)”의 방식을 형성하였다. 지금까지 교육부중소학교재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10여 종이 있다. 그중 초중(7-9학년)관련 역사교과서는 인민교육판, 북경사범대학판, 화동사범대학판, 악록서사판, 사천교육판, 중화서국판, 중국지도판, 하북인민판 등 8종의 판본이 있다. 고중(10-12학년)관련 역사교과서는 인민판, 인민교육판, 악록서사판, 대상판 등 4종의 판본이 있다. 이밖에 북경, 상해 등 지방판 역사교과서가 있다.

본문에서 논술할 것은 상술한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내용변혁상황과 역사인지문제이다.

<본문>

I. 중국 역사교과서의 변혁

각종 신판의 중학역사교과서는 교육부가 반포한《역사과정표준》등 문건정신에 따라 초중단계의 교과서이건 고중단계의 교과서에 관계없이 교과과정 구성, 교과과정 내용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변혁을 하였다.

(1) 교과과정 구성에서 과거 지나치게 학과중심을 강조한 현상을 바꾸고, 기초중시, 다양화, 체계있는 교과과정 구성을 만들었다(세웠다).

초급중학 역사교과서는 학습부분+학습주제의 교과과정구성을 세웠다.

초급중학의 역사교과서는 역사교과과정을 중국고대사, 중국근대사, 중국현대사, 세계고대사, 세계근대사, 세계현대사 6개 학습부분으로 나누었다. 각 학습부분에서 다시 역사발전의 특징에 따라 약간의 학습주제를 확정하였다.

1) 《전일제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실험고), 북경사범대학출판사, 2001년출판.
2)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실험), 인민교육출판사2003년출판.

예를 들어 중국고대사에 9개 학습주제가 있다. 각각 1.중화문명의 기원, 상고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2. 국가의 출현과 사회변혁, 하상주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3. 통일국가의 건립, 진한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4. 정권분립과 민족융합, 위진남북조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5. 번영과 개방된 사회, 수당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6. 경제중심의 남이(南移)와 민족관계의 발전, 송원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7.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공고와 사회의 위기, 명청시기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중국근대사는 7개 학습주제가 있다. 각각 1.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반항 2. 근대화의 착수 3. 신민주주의 혁명의 흥기 4. 중화민족의 항일투쟁 5. 인민해방전쟁의 승리 6. 경제와 사회생활 7. 과학기술과 사상문화이다.

중국현대사는 7개 학습주제가 있다. 각각 1. 중국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공고화 2. 사회주의노선의 탐색 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4. 민족단결과 조국통일 5. 국방건설과 외교성과 6. 과학기술교육과 문화이다.

세계고대사는 5개 학습주제가 있다. 각각 1. 선사시대의 인류 2. 상고인류문명 3. 봉건시대 아시아유럽문명 4. 문명의 충돌과 융합 5. 과학기술과 사상문화이다.

세계근대사는 8개 학습주제가 있다. 각각 1. 구미 주요국가의 사회대변동 2. 제1차산업혁명 3. 식민확장과 식민지인민의 항쟁 4. 자산계급통치의 공고화와 확대 5. 국제노동자운동과 마르크스주의 탄생 6. 제2차산업혁명 7. 제1차세계대전 8. 과학과 사상문화이다.

세계현대사는 8개 학습주제가 있다. 각각 1. 소련사회주의노선의 탐색 2. 베르사이유-위싱턴체제 하의 서방세계 3. 제2차세계대전 4.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변화 5.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변천 6.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독립과 진흥 7. 전후세계구조의 변천 8. 과학기술과 문화이다.

초급중학 역사의 새로운 교과과정 구성에는 두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다.

첫째, 역사 발전의 줄거리가 분명하다. 6대 학습부분은 중국역사, 세계역사발전의 기본 맥락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학습 중점이 돋보인다. 새로운 교과과정구성은 학습내용의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고, 각 역사발전단계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주제를 구성하였다.

고급중학단계의 역사교과서는 초급중학 역사교과서의 기초 위에서 학습부분+학습테마의 교과과정구성을 세웠다.

고급중학 역사교과서는 역사과정을 필수과정과 선택과정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필수과목은 3개 학습부분이 있는데 각각 인류사회정치, 경제, 사상문화, 과학기술 등 영역의 중요한 역사내용을 반영하였는데 전체학생이 반드시 배워야하는 기본내용이다. 선택과목은 6개 학습부분이 있는데 각각 “역사상의 중대개혁회고”,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중외역사인물평론”, “역사의 비밀탐색”, “세계문화유산모음”이다.

고급중학 역사교과서에 필수과목이건 선택과목이건 그 내용구성은 모두 특정제목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필수과정의 제1책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은 인류사회정치영역발전과정 중의 내용으로 모두 9개의

특정제목이 있다. 필수과정의 제2책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은 인류사회경제와 사회생활영역발전과정중의 내용으로 모두 8개 특정제목이 있다. 필수과정의 제3책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은 인류사회사상문화와 과학기술영역 발전과정 중의 내용으로 모두 8개 특정제목이 있다.

학습부분+학습특정제목의 교육체계는 고급중학 학생의 역사학습요구에 부합한다. 본인은 이것 역시 아래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초급중학 역사과정과의 간단한 중복을 피한다.

오랫동안 어떻게 중등학교 역사교육체계를 세우는가는 이제까지 내내 교과과정개혁의 중점과 난점이었다. 중국 50여년의 역사교과과정개혁상황으로 보면 중등학교 역사내용의 조합서열은 순환에서 직선을 거쳐 다시 부분순환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거쳤다. 20세기50년대 역사교과과정은 전순환제를 따랐다. 즉 초급중학에서는 중국사, 세계사를 배우고, 고급중학에서 중국사와 세계사를 다시 배웠다. 순환식의 교육체계를 바꾸기 위해 20세기60년대이후 초급중학에서 중국사를 배우고 고급중학에서 세계사를 배우는 것으로 바꾸어 역사학습내용이 직선배열을 나타나게 하였다. 직선배열은 의심할 것 없이 학생의 역사교육에 불리하였다. 우리나라가 현대에서 시행하는 것은 9년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한 일부 학생은 고급중학단계학습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중국사, 세계사를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에 나누어 설치한다면 그 결과는 일부 학생에게 완전한 역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결함을 고치기 위해 20세기90년대부터 중등학교 역사교육 체계는 초급중학에서 중국사, 세계사를 배우고, 고급중학에서 중국근현대사와 세계근현대사(현행의 고급중학역사교과과정에서 중국근현대사를 필수로, 중국고대사와 세계근현대사를 선택으로 바꾸었다.)를 배우고 역사학습내용은 부분순환의 배열을 나타냈다. 이런 교육내용의 조합서열은 여전히 초급중학, 고급중학 역사교과과정구성의 중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신판의 고급중학 역사교과서는 특정제목형 구성을 받아들여 초급중학 역사교과과정과의 구성에서의 중복을 완전히 피하였다.

둘째, 학생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의 향상에 유리하다.

새 고급중학역사교과과정체계에서 각 “부분”에는 약간의 학습(테마)특정제목이 구성되었다. 특정제목의 확정된 것은 두 개의 기본이념을 침투시켰다.

1. 동일학습부분 내의 특정제목은 목적면에서 비슷한 교육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수과정 제1책의 9개 특정제목은 모두 역사상의 중요한 정치제도, 정치사건이다. 이런 특정제목의 확정된것은 학생이 다른 정치제도의 출현, 발전과 그 영향을 역사적으로 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가 진행하는 과학에 대해 평가와 해석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역사상의 단계,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체정치에서 민주로, 인치에서 법치로 가는 것이 인류사회의 길고도 어려운 역사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정치문명건설을 위해 분투하는 인생이상을 수립할 수 있다.

필수과정 제2책의 8개 특정제목은 경제와 사회생활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런 특정제목을 확정된 것은

학생이 인류역사 상 경제발전과 사회변천의 기본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이 역사상의 다른 국가와 지역의 사회경제발전모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의 기본국정과 세계경제발전추세를 인식하고 학생이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해 분투하는 사회책임감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수과정 제4책의 8개 특정제목은 사상문화와 과학기술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런 특정제목을 확정한 것은 학생이 사상문화와 과학기술이 인류역사발전 중의 작용을 탐구하고 인류사상문화발전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 지역, 각 국가, 각 민족의 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조국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선택과정에서 각 부분 속의 특정제목 역시 그 비슷한 교육목표가 있다.

2. 동일한 부분 내의 특정제목은 내용면에서 내재된 논리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는 역사학과의 기본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고급중학 역사교과서로 보면 각 부분에 확정된 특정제목은 일반적으로 역사학과의 아래 특징을 모두 나타내어다.

첫째는 역사적인 순환성이다. 각 특정제목에는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부분의 특정제목은 역사발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우리는 이런 특정제목을 통해 인류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사상 등 영역에서의 발전과정과 규율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둘째는 역사의 총체성이다. 학습시수의 원인으로 고급중학 역사신교과과정의 각 부분에서 확정한 특정제목은 모두 10개 이하가 있다. 어떻게 이 제한된 몇 개의 특정제목을 통해 인류사회발전을 전모를 비교적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것은 특정제목을 확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총체성을 반영하는 전체적인 관념이 있어야 한다. 신과정에서 확정된 특정제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역사총체성이란 이 특징을 드러내었다. 필수과정인 선택과정인든 각 부분의 특정제목에서 반영하는 내용은 중국내용이 있고 세계의 내용도 있다. 고대의 내용이 있고 또 근현대의 내용도 있다. 이런 특정제목을 통해 인류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사상 등 영역에서의 발전전모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셋째는 역사의 다양성이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인류사회는 발전과정중에 정치영역이든 경제 혹은 문화사상영역이든 그 활동은 모두가 다채롭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특정제목을 통해 인류사회 각 영역 중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것 역시 우리가 특정제목을 확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역사의 다양성 이 특징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 신과정에서 확정한 특정제목을 보면 이 특징을 기본적으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 정치영역에서의 특정제목은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 있고 정제제도에 관한 것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층면에서 민주제도가 있고 전제정치제도도 있다. 자본주의제도가 있고 사회주의제도도 있다. 우리는 이런 특정제목을 통해 인류사회발전과정중의 풍부하기 다채로운 내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학생은 이러한 내재적인 논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제목의 학습을 통해 틀림없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있을 것이다.

(2) 교과과정내용에서 시대성과 기초성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교과과정내용을 혁신하였다. 학생의 평생학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내용을 정선하여 교과과정내용과 사회진보, 학습발전과 학생경험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개혁후의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시대성, 기초성의 원칙에 의거해 제때에 교과과정의 내용을 조정하고 갱신하였다.

시대성이란 아래 네 가지에 나타난다. 첫째는 교과과정내용은 시대를 나타내야 하는 정신을 가리킨다. 그 사이에 교과과정내용이 반영하는 사상을 포함하고 동시에 교과과정내용의 서술하는 방식과 언어를 포함한다. 사람이 한번 보면 바로 알게 하는 신세기의 역사교과서여야지 10년 전, 20년 전의 교과서가 아니다. 둘째는 교과과정내용은 시대의 진보를 반영해야함을 가리킨다. 사회는 부단하게 발전하고 있고 시대는 부단하게 진보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는 이런 발전과 진보를 적시에 반영해야한다. 셋째는 교과과정내용은 역사학과의 발전추세를 반영해야함을 가리키는데 역사연구의 새로운 성과를 제때에 흡수해야한다. 넷째는 교과과정내용은 학생의 경험, 학생생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함을 가리킨다.

기초성이란 실제로 중등학교 역사교육의 성질을 강조하였다.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결과적으로 국민자질교육의 기초교육을 더욱 제고해야한다. 그러므로 역사교육과정내용의 선택은 이러한 성질을 근거로 자질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전지식을 정선하여 중등학교 학생의 학습기초로 삼아야한다.

사실한 이념과 원칙에 의거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내용면에서 대담한 조정과 갱신을 하였다. 그 변화는 주요하게 아래 몇 가지 면이 있다.

1. 사회진보와 연계하는 교과과정내용을 증강하였다.

예를 들어 고급중학 역사교과서에서 “국유기업개혁”, “상해포동의 개발개방”의 내용과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 등 국가를 예로 들어 당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한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 내용을 늘렸다.

2. 시대요구에 알맞은 교과과정내용을 늘렸다.

이것은 세계사학습내용의 증가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있다. 중국개혁개방과정의 추진에 따라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관계가 나날이 밀접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세계를 많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시대의 이러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과정 특히 고급중학 역사교과서는 현행 고급중학 역사과정에 세계고대사에 없는 결함을 보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내용이 고급중학역사과정에서의 비중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필수과정 제1책에서 “고대그리스로마의 정치제도” 내용을 늘렸다. 필수과정 제2책에서 “신항로의 개척”(디아스, 콜롬보스의 신항로 개척)과 “브레튼우즈체제” 내용을 증가시켰다. 필수과정 제3책에서 “서

방인문정신의 기원과 그 발전(고대그리스 지자학과와 소크라테스 등의 사람과 사람 간의 가치의 명백한 논술) 내용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선택과정의 “역사상의 중대개혁회고”에서는 “솔론개혁”, “유럽의 종교개혁”, “모하메드·알리개혁” 내용을 증가시켰다. 선택과정의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에서는 “군권신성전제이론”을 증가시켰다. 선택과정의 “역사의 신비탐색”에서는 “마야문명의 소실”, “미로스궁전유적과 커리터문명”과 “대짐바브웨유적과 아프리카문명의 비밀탐색” 등 내용을 증가시켰다. 선택과정의 “세계문화유산모음”에서는 “고대이집트문명의 역사유산”과 “고대그리스로마의 역사유적” 내용을 증가시켰다. 이런 내용은 모두 과거 고급중학 역사과정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고급중학 역사과정내용의 총중량으로 보면 세계사의 내용이 약 40%를 차지한다.

세계사학습내용의 증가는 학생이 세계를 더욱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문명발전의 각도에서 중국전통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어 학생이 정확한 세계관과 역사에 대한 거시적, 전체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3. 사회생활과 학생경험과의 연계를 증강하였다.

만약 역사교과서에 “중국근현대생활의 변천” 등 내용을 늘린다면 학생에게 신변의 역사의 변화를 통해 사회진보를 느끼어 깨닫게 하고 역사발전을 느끼어 깨닫게 한다.

상술한 7·9학년의 역사교과서 내용과 10·12학년의 역사교과서 내용은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상술한 변혁에 대해 본인은 아래 몇 가지 요소에 근거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개혁개방후 중국정치사회문화발전의 필요에 근거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30년 가까이 실행하였다.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졌다. 어떻게 중국의 중등학교 학생이 더욱 잘 세계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까는 중등학교교육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세계사의 내용을 대량으로 증가시키고 세계사의 분량을 비교적 큰 비율로 늘린 것은 시대적인 외침과 요구가 되었다.

둘째는 국가가 인재배양에 대한 요구에 근거한다.

오랫동안 중국의 교과서는 대학입시의 압력을 받았고, “번잡하고, 어렵고, 편향되고, 낡은”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 학생의 학습압력이 편중되게 졌다. 낡은 교육양식은 학생의 학습흥미를 억제시키고 학생의 창조 의식과 창조능력도 억제시켰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을 특별히 공포하였다. 교육내용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번잡하고, 어렵고, 낡은 내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여 학생의 창조능력을 효과있게 배양함으로써 국민자질을 강화한다.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련내용에 대한 침삭과 조정은 바로 국가가 인재배양을 창조하는 요구에 알맞는 것이다.

II. 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의식과 “동아시아사” 인지

위에서 논술한 것은 중국 역사교과서 변혁의 외재적인 대체적인 상황이다. 사실, 이번 역사교과서 변혁은 내재적인 사상과 의식에서 구현되었다. 역사교과서의 변혁은 집필자의 기본적인 역사의식과 학생이 어떤 사상, 어떤 의식을 배양하였나를 반영하였다.

교육부가 공포한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과《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은 모두 두체적인 “교재집필건의”와 “교과과정목표”를 제의하였다.

《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에서는 교과서의 집필은 “엄격하게《표준》의 요구를 따르고 역사과정은 지식과 능력, 과정과 방법 및 정감, 태도와 가치관 등의 총체적인 목표를 노력해 실현해야한다.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이론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객관적인 평가해야한다. 역사의 정확한 해석은 진실되고 확실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은 “현대성과 적응성을 나타내야하는데 학생자질의 전반적인 발전에 유리하고 학생의 미래 발전과 평생학습의 요구에 만족해야한다. 학생의 학습방식은 피동적인 접수형에서 주동적인 참여형으로 전화하는데 유리하다. 학생역사사유능력의 배양에 유리하다. 학생에게 사회발전규율교육, 애국주의교육, 사회주의교육, 국정교육, 혁명전통교육과 민족단결교육을 하는데 유리하다. 학생이 정확한 국제의식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학생이 인류의 전통미덕을 계승하고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³⁾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은 “과정목표”의 한 절에서 “역사학습을 통해 중국국정을 더욱 이해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사랑하고 계승하며 민족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함양하며 조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가, 민족에 대한 역사사명감과 사회책임감을 점차 형성하며 애국주의정감을 배양하고 조국현대화건설, 인류평화와 진보사업에 공헌을 하는 인생이상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역사학습을 통해 학생에게 “인류사회발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고 세계 각 지역, 각 국가, 각 민족의 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류가 창조한 우수한 문명성과를 흡수하여 개방된 세계의식을 형성하게”해야 한다.⁴⁾

여기에서 역사교과서를 학습하고 집필하는 기본방향과 기본의식을 제기하였고, 특히 아래 두 가지 의식을 강조하였다.

첫째, 본국역사의 학습을 통해 학생에게 중국국정을 이해하게 하고 학생이 본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국가에 대한 역사사명감과 사회책임감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둘째, 세계역사의 학습을 통해 학생이 세계 각국, 각 지역, 각 민족의 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3) 《전일제의무교육역사과정표준》(실험고), 북경사범대학출판사 2001년 출판, pp.33-34.

4) 《보통고중역사과정표준》(실험), 인민교육출판사 2003년 출판, p.5.

배우게 하고 인류가 창조한 우수한 문명성과를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세계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상술한 두 가지 의식에서 세계의식은 특히 중요하다.

세계의식에 관해 중국의 각종 판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기술을 하고 있다. 어떤 판본에서는 “세계의식”으로, 어떤 판본에서는 “국제의식”으로, 어떤 판본에서는 “세계의식”이라 칭한다. 서술은 다르지만 그 내재된 개념은 같다.

세계의식은 바로 세계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역을 나누지 않아야 하고, 인류창조의 우수한 문명성과를 충분히 흡수해야한다.

사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세계의식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였다. 중국역사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 안목”으로 학습구성을 세우고 학습내용을 선택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가 선택한 학습내용은 지역이나 국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역사사건, 역사인물, 역사현상이 세계역사발전과정에서의 지위와 작용을 착안하였다.

세계의식 속에서 각종 지역의식은 약화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내는 것은 세계의식이다.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의식은 없고, 하나의 독립된 “동아시아” 인지는 더욱 없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동아시아 각 이웃나라의 역사를 논술하는데, 지면이 비교적 많은 것은 일본에 관한 역사이다. 중국 역사교과서가 일본을 선택한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구성원이라서가 아니고 세계역사발전에서의 일본의 영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역사와 중일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시종 일본역사와 중일관계를 세계의식 속에 놓았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아래 열거한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다.

첫째,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존중한다.

일본은 현재 세계경제대국이 되었다. 역사에서도 세계역사발전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사건이 있다. 예를 들면 646년의 “대화개신”과 근대역사사의 “명치유신”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건은 일본역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역사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고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북경사범대학출판사에서 출판사 초급중학 역사교과서《역사·8학년하책》에서는 일본의 “대화개신”에 상세한 논술을 하고 “대화개신”은 일본이 당시 매우 선진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일본사회환경을 안정시켜 사회경제가 발전되고 이후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하였다.”⁵⁾

인민출판사의 고급중학 역사교과서는《역사선택·역사상의 중대개혁회고》에서는 11페이지나 되는 지면

을 이용하여 일본 명치유신의 역사적 배경, 내용 및 일본과 세계에 대한 영향을 소개하였다. “명치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서 일련의 개혁을 하여 봉건적이고 낙후한 일본을 자본주의가 발전한 길로 가게 하였고, 점점 발전하여 아시아자본주의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명치유신운동은 봉건잔여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지 못했다. 경제군사실력의 증강에 따라 일본은 군구주의를 힘써 시행하고 아시아 이웃나라에 침략확장을 시작하여 신흥한 제국주의국가가 되었다.”⁶⁾

둘째는 중국과 일본과의 우호왕래 역사에 힘썼다.

중일 양국은 이웃나라로 역사적으로 충돌과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긴 과정에서 보면 우호왕래는 장기적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견당사, 중국의 감진의 동도(東渡)와 현대의 민간문화교류 등은 교과서에 여러 번 논술하였다.

사천교육출판사가 출판한 초급중학 역사교과서《중국역사·7학년하책》제5과는 목차의 두 부분에서 일본 견당사와 감진동도의 역사를 논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당나라 때, 중일양국교류가 빈번하였다. 양국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당나라의 선진적인 경제문화를 배우고 일본정부는 십여 차례 견당사절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방문하였다. 견당사가 중국에 왔을 때 견당사를 따라서 스님과 유학생이 같이 왔다. 가장 많을 때는 500 명이 넘었다.……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중일문화교류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⁷⁾

이 책은 동시에 “당나라 때, 많은 중국인은 중일양국인민의 교류를 위해 공헌을 하였다. 그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고승 감진(鑑真)이었다. 그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쪽으로 일본에 건너가 불학이념을 강의하고 넓고도 깊은 중국문화를 전파하였고 일본불학, 의학, 건축과 조소(雕塑)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였다. 양국민인과 불학계의 존경을 받았다.”⁸⁾는 내용도 썼다.

셋째는 중일 간의 충돌과 전쟁을 꺼려 회피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근대이후 중일양국 간에서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 일본은 14년에 달하는 침화전쟁을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개시하였다. 중국인민에게 극심한 상해를 입혔다.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이 역사를 쓸지는 중일 간에 다른 인식이 있다. 중국의 교과서는 실사구시의 원칙에 기초를 두며 중일 간의 전쟁에 비교적 객관적인 논술을 하였다.

중국의 각 판의 역사교과서는 초급중학단계이건 아니면 고급중학단계이건 간에 일본 침화전쟁과 일본군의 침화기간의 폭행을 모두 소개하였다.

화동사범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중국역사·초중2학년(상)》은 전체 25과로 그 사이에 1시간의 수업을 이용하여 1894년 중일갑오전쟁을 서술하였다. 4시간의 수업을 이용해 1893-1945년의 일본침화전쟁을 서술하

6) 《역사선택·역사상중대개혁회고》, 인민출판사 2006년 출판, p.107.

7) 《중국역사·7학년하책》, 사천교육출판사 2003년 출판, p.25.

8) 《중국역사·7학년하책》, 사천교육출판사 2003년 출판, p.26.1

5) 《역사·8학년하책》, 북경사범대학출판사 2002년 출판, p.101.

었다. 이 책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역사사실을 폭로하였고 일본군이 중국에서 시행한 폭행을 규탄하였다.⁹⁾

이 책에서 “1931년 9월 18일 저녁, 중국 동북에 주둔한 일본관동군이 치밀하게 계락을 꾸며 국내외를 깜짝 놀라게 한 9·18사변을 일으켰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가 중국에 대한 무장침략을 추진한 것으로 중국을 그 독점식민지로 되게 조치한 심각한 절차임을 기도하였다.”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이 북평(지금의 북경)서남쪽의 노구교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한명의 사병이 실종되었다고 사칭하며 완평현성(宛平县城)에 들어와 조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강행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은 완평성과 노구교를 포격하자 중국 수비군 제29군 장병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일어나 저항한 것을 7·7사변이라 부른다.”¹⁰⁾하였다. 이 책은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에 저지른 대학살폭행을 날카롭고 엄숙하게 비난하였다. “1937년 일본군은 상해를 침략점거 한 후, 군대를 세 길로 나누어 서진하여 남경을 포위 공격하여 12월 13일 남경은 함락되었다. 일본군이 남경성에 진입한 후,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을 하고, 생매장, 집단학살, 도살, 방화, 익사 등 잔인무도한 수단으로 평민과 무기를 놓은 사병을 대량 학살한 것이 30만명에 달한다. 일본군이 닿은 곳에서는 강간과 약탈을 하며 갖은 못된 짓을 다하고, 전체도시 3분의 1의 가옥이 불타 폐허가 되었다. 남경성은 전대미문의 참상인 인간지옥이 되었다. 일본군의 흉악하고 잔인한 파쇼폭행은 중국과 세계인민의 극대한 분개를 불러일으켰다.”¹¹⁾

인정해야 할 것은 중국 역사교과서에 동아시아 각국역사관련 논술에서 한국, 조선, 몽골 등을 논술하는데 일본과 비교해서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현행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한반도의 역사서술에는 주로 아래 의 몇 가지가 있다.

1. 일본군국주의의 대외확장침략을 서술할 때,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설명하였다.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역사선택·역사상의 중대개혁회고》의 제8 특정제목중의 “군국주의노선을 밟은 일본”의 한 절이 있다. 책에서는 명치유신 후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웃나라를 향해 침략확장하고 식민제국이 되려고 경쟁하였다. 명치정부의 대외침략확장은 제일먼저 가까운 이웃인 조선을 겨누었다.……1910년 일본은 조선국왕에게 《일한합병조약》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정식으로 조선을 병탄하였다.”¹²⁾는 내용이 있다.

2. 중일갑오전쟁을 서술할 때 조선을 언급하였다.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초급중학 역사교과서에서는 “1894년, 조선내부에 민변이 발생하자 청정부는 조선국왕의 부탁으로 군사를 파병하여 조선에 들어가 내란을 대신 평정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옛 본지 오래되었는데 대사관과 교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기회를 틈타 조선에 출병하였다.……”¹³⁾라고 하였다.

3. 항미원조를 서술할 때,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을 설명하였다. 중국의 각 판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모두 “항미원조”사건을 한 과씩 서술하였다. 인민출판사가 출판한 《역사선택·20세기의 전쟁과 평화》제5 특정 제목에서는 “조선전쟁”이란 한 절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1950년의 조선전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4. 전후아시아아프리카국가의 독립과 진흥을 서술할 때,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였다.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초급중학 역사교과서는 한 절에 “싱가포르와 한국의 굴기”내용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곳이 있다.

이 책에서는 “제2차세계대전후, 한국의 경제는 낙후한 농업위주였고,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에 종사하는 항구도시였다. 그러나 60년대 한국과 싱가포르는 서방선진국이 산업구조조정을 실행하여 개발도상국가에게 노동밀집형산업을 이전하는 기회를 잡아 적시에 경제발전전략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신흥한 공업화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독립 후 정국이 불안하였지만 정부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로 놓아 두 차례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서방선진국에서 100여년 걸린 공업화과정을 30년의 시간에 완성하였다. 국민생산총액은 1960년에서 1991년까지 132배가 증가하였다.”¹⁴⁾ 이것은 한국역사에 관한 가장 상세한 한 단락이다.

5. 아시아태평양협력체를 서술할 때 한국 서울회의와《서울선언》을 설명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몽골국 역사의 서술은 더욱 적게 보인다.

상술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동아시아”의식의 결여와 관계있다. “세계의식”에서 동아시아 각 이웃나라 역사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증가시키느냐는 중국학자들이 성실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금후에 동아시아 각국 역사와 문화를 논급할 때, 반드시 한국, 조선, 몽골 등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논술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를 거울삼아야만 동아시아 각국 간의 우호적인 왕래와 평화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9) 《중국역사·초중2학년(상)》, 화동사범대학출판사 2002년 출판, p.79,1
10) 《중국역사·초중2학년(상)》, 화동사범대학출판사 2002년 출판, p.86.
11) 《중국역사·초중2학년(상)》, 화동사범대학출판사 2002년 출판, p.89.
12) 《역사선택·역사상의 중대개혁회고》, 인민출판사 2006년 출판, p.112.
13) 《중국역사·초중2학년(상)》, 화동사범대학출판사 2002년 출판, p.14.

14) 《중국역사·초중3학년(하)》, 화동사범대학출판사, 2004년 출판, pp.104-105.

「중국역사교과서의 변혁과 동아시아역사 인지」에 대한 토론문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주한국선생님은 북경사범대학교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인민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편찬 하였고, 사천인민출판사의 『중화민국사』 편찬에도 참여하신 중국의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분이십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중국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변화와 동아시아사 인식에 대해서 많은 사실 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중국의 새 역사교과서는 『역사교학대강』 교과서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체제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새역사교육과정에 대해 중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과거의 단일 교과서 체제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출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의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독점적으로 출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국의 일부 언론매체에서 중국 상해 지역의 역사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중국 국내의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역사학계에서는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고 문명사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아날학과 등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역사교재 편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해지역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과거와 같은 인민교육출판사 단일교과서 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전국의 대학에서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¹⁾ 중국의 교과서 편찬에서 개방성·

자유성·다원성과 중국의 국가 정책 사이의 조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국의 새역사교육과정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중복을 피하고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의식 속에서 역사서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서구중심적인 역사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실험교과서의 경우 중국사와 세계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과서 속의 세계사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위주의 역사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중국사와 서구의 역사를 비교·대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관한 서술은 적은 부분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지나치게 서구 위주의 서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최근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동아시아사』과목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아시아에 관한 인식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활발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역사교학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체제가 변화하면서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래 2000년 『구년의무교육전일제초급중학역사교학대강(시용수정판)』의 세계역사 부분 30쪽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5. 아시아봉건국가

1. 조선
2. 일본
3. 이슬람교의 흥기와 이람제국
4. 오스만제국²⁾

이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전일제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고)』의 세계고대사 부분 22쪽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解放論壇：爲近現代史成爲大學必修課叫好」, 『解放日報』, 2007.1.20.

2)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試用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0, 30쪽.

(3) 中古 아시아 유럽문명

내용표준

(1) 타이카개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마호메트의 주요 활동을 서술하라³⁾

2000년 출판된 『중학교 역사교과학대강』에는 『세계역사』 ‘아시아봉건국가’ 에서 조선, 일본, 이슬람교의 발흥과 아랍제국, 오스만제국의 역사에 대해 서술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1년 출판된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서는 ‘中古 아시아·유럽문명’ 에서 일본의 타이카개신과 마호메트의 활동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과정표준』에서 조선 항목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인민교육출판사,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악록서사, 사천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중국지도출판사, 하북인민출판사, 중화서국 등의 중학교 실험 역사교과서 9학년 上册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⁴⁾ 1951년 覃必陶·胡嘉의 『高級中學 外國歷史』⁵⁾에 한국고대사가 서술된 이후 내용의 증감이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역사교과서에서 항상 수록되었던 한국사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중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2주제

한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특징

>>발표_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_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3)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22쪽.

4) 인민교육출판사의 중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2001년 6월에 『중국역사』 7학년 상권이 출판되어 2001년 가을학기(1학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매 학기마다 1권씩 발행되었고 2003년 8월에 9학년용 『세계역사』 상권이 출판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2005년 번역되어 가을학기부터 연변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5) 覃必陶·胡嘉, 『高級中學 外國歷史』 上册,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951.1, 110~113쪽.

한국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특징

-고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서언
2. 주변국 관련 서술과 특징
3. 서술의 객관성 문제
4. 주변국에 대한 인식
5.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을 위한 몇가지 제언

〈내용개요〉

현행 국사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교과서이다. 분석 대상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종래의 시대순에 의한 서술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류사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시대적 범위도 근현대사가 독립과목으로 편제됨에 따라 전근대사를 대상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서술은 교과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역사상의 중요한 문제나 현상을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과서 재편의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주변국 관련 서술이라 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은 없고 한국사의 대외관계사로부터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외관련 기사는 중국과 일본관련 14개 항목에 걸쳐 개별적,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교과서 서두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 '국사가 곧 우리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고 민족 정체성의 근원' 이라고 전제되어 있듯이 '주체적', '정체성' 서술을 표방하였다. 특히 '국사' 라는 용어에서 나타

나듯이 강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조차 '국사' 라는 용어가 살아있지 반세기 가 넘었지만 우리는 의연 '국사' 를 고집하고 있다. 세계사의 조류에도 어울리지 않은 용어이다.

〈단군과 고조선〉 항목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 2333)' 라고 하고 단군신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다를 성질이 아니다. 신화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게다가 BC 2333년이란 건국년대를 명기하고 '단군 영정' 조차 실고 있어 역사적 사건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민족의 주체성이나 정체성과는 관계없는 왜곡된 역사를 가리치고 있는 셈이다.

중국과의 관련해서 전쟁사의 서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은 고구려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고 거대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문화사적인 교류의 문제도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민족의 자랑이었던 '대고구려' 는 왜 멸망했는지, 이를 고구려 내부적 요인으로만 돌릴 것인지, 신라를 탓할 것인지,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점은 없는지 21세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백제의 요서진출과 같은 서술을 불안정한 사료를 인용하여 사실로 확정짓는 것도 문제이다. 일본교과서에 광개토왕비문의 신묘년조 기사를 비판없이 그대로 번역하여 실거나 『송서』 왜국전의 왜왕이 한반도제국이 관청된 작호를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용을 기재한다면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한국사에 유리하다고 해서 비판없이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과의 관련해서는 우리문화의 우월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문화의 전파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의지이고 왕권이 주체가 되고 있다. 격동하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의 이동과 문물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국제관계에서 은혜를 베푸는 식의 일방적인 문물의 전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전수의 이면의 다양한 양상들이 도외시되어서는 제대로 된 한일관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대외관계의 서술이 빈약하다. 고대 동아시아세계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전쟁과 외교,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삼국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은 대외관계 속에서 성립하였다. 특히 역사쟁점이 많은 북방민족 등 다양한 교류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두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과 문물을 교류', '개방적 민족주의' 를 편찬 목표로 삼았던 본래의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대외관계사의 기술일 경우 관련 전문가가 필진으로 참여해야 한다. 앞으로 개편될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필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의 조류에 걸맞는 인간상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서술은 '주체성', '정체성' 뿐 아니라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문〉

1. 서언

현행 국사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교과서이다. 분석 대상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종래의 시대순에 의한 서술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류사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시대적 범위도 근현대사가 독립과목으로 편제됨에 따라 전근대사를 대상으로 있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서술은 교과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역사상의 중요한 문제나 현상을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과서 재편의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국사'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 라든가 '국사가 곧 우리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고 민족 정체성의 근원' 이라고 하여 교육의 목표와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부 단원의 서두에는 세계사와 상호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사의 흐름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또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라는 단원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내재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라고 하듯이 대외적 교류의 중요성과 아울러 편협한 민족주의의 배격을 교육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세계는 고립된 역사로서 존재한 적은 거의 없었다. 본 발표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는 왕권 상호간, 종족 및 다양한 집단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교류의 내용도 정치적 교섭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외교와 전쟁, 문물의 교류, 인간의 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사에 있어서 고대는 고조선의 출현으로부터 원삼국시대의 한반도와 만주일원에 존재했던 수많은 소국들, 삼국과 가야제국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통일적 기반을 갖는 다원적 왕권이 존재하였고 제각기 왕권 및 집단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 대외적 접촉을 추진하였다. 한국고대사에서 대외관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고대의 통일왕권 성립의 기반이기도 하다.

본 발표에서는 고교 국사교과서에 주변제국에 대한 서술의 특징과 내용상의 객관성 문제, 자국사의 서술에 있어서 보편성·세계성과의 조화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고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¹⁾

1) 본 발표에서는 중학교 국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관련 내용 대부분이 고교 교과서가 포괄하고 있고 중복을 피하기로 하였다. 국사교과서의 주변국 관련 분석은 일본관계가 대부분이다. 崔德壽, 「중등학교 國史教科書에 있어서 日本關係 敘述」(『歷史教育』37, 1985), 延敏洙, 「국사교과서의 고대한일관계사 서술과 문제점」(『東國歷史教育』7, 1999), 李宇泰, 「한국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고대한일관계사 서술」(『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0), 金恩淑,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한일관계 서술내용 검토」(『歷史教育』74, 2000), 정연, 「한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서술」(『靑藍史學』9, 2003), 李永植, 「최근 한일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東北亞歷史論叢』17, 2007) 등이 있다.

2. 주변국 관련 서술과 특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고조선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략)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점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중략)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하였다.(36쪽)

b 부여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38쪽)

c 삼한(한)

고조선 남쪽 지역에는 일찍부터 진이 성장하고 있었다. 진은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41쪽)

d 3~6세기 삼국과 중국·왜

d-1 백제는 한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의 군현을 막아 내면서 성장하였다.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50쪽)

d-2 내물왕 때에는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물기도 하였다. 그 후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한편,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갔다.(50쪽)

d-3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한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51쪽)

d-4 정복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

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 (52쪽)

d-5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53쪽)

d-6 (고구려의 왜 격퇴)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고 하였다.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 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53쪽)

d-7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승려를 등용하여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또한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54쪽)

e 백제의 해외 진출(53쪽)

e-1 백제국은 본래 고려(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1,000여 리에 있었다. 그 후 고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를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군(진평현)이라 한다. <송서>

e-2 그 나라(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晉)대에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진평의 두 군의 땅을 차지하여 스스로 백제군 두었다. <양서>

f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58쪽)

f-1 6세기 말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연결하고, 남으로 백제·왜와 연결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f-2 돌궐이 수에 의하여 멸망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고구려는 먼저 중국의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의 문제와 양제는 잇따라 백만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략해 왔다. 고구려는 병력 규모는 작았으나 요하를 굳게 지켜 문제의 침략을 막아 냈고, 양제의 침입 때에는 을지문덕이 적을 유인한 뒤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612). 이를 살수 대첩이라 한다.

f-3 수의 뒤를 이은 당은 건국 초에는 유화 정책을 취했으나 곧이어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뻗어 왔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천리 장성을 쌓고,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f-4 이에 당의 태종은 직접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하였다. 당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 개모성, 비사성 등을 빼앗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시성을 공격하였다(645). 안시성에서 군민이 합심하여 60여 일간이나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는 대대적인 반격을 펼쳐 마침내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당의 동북아시아 지배 야욕을 좌절시켰다.(중략) 고구려가 수·당과 싸워 이겨 그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58쪽)

g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g-1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들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중략) 결국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던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59쪽)

g-2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낸 사실에서 삼국 통일의 자주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60쪽)

h 발해와 중국·일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돌궐·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62쪽)

i 삼국의 대외교역

i-1 삼국의 무역은 대개 왕실과 귀족의 필요에 의하여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무역을 통하여 문물이 교류되었다. (138쪽)

i-2 삼국의 국제 무역은 4세기 이후 크게 발달하였다.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게 되었다. (138쪽)

j 통일 신라의 대외교역

통일 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 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졌다.(중략)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중략) 무역 확대로 산동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졌다.(142쪽)

k 발해의 대외교역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이 때 사신과 더불어 상인들이 동행하여 무역하였다. (중략)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동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들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중략) 발해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중시하여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무역규모도 커서 한 번에 수백 명이 오가기도 하였다.(144쪽)

l 민족 문화의 발달

l-1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 시대의 지배층은 한자를 널리 쓰게 되면서 한문으로 쓰여진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서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러 교육 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유학이 보급되어 갔다.

l-2 백제에서도 금속 기술이 발달하였다. 4세기 후반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든 우수한 제품이며, 거기에는 금으로 상감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249쪽)

m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260쪽)

m-1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 중에서 일본과 가까웠던 백제가 삼국 문화의 일본 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6세기에는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렇게 전래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 사 미륵 반가 사유상과 호류 사 백제 관음상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 박사, 채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도 건너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 가람 양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m-2 고구려도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세기 초에 담징은 종지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 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승려 혜지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혜관은 불교 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나라 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m-3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는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 일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7세기경 나라 지방에서 발전한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m-4 일본에 건너간 통일 신라 문화(261쪽)

삼국 문화에 뒤이어 통일 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통일 신라 문화의 전파는 일본에서 파견해 온 사신을 통해서 이뤄졌다.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하쿠호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심상에 의하여 전해진 화엄 사상은 일본 화엄종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중략) 그러나 8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이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긴 뒤로부터는 외국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m-5 하쿠호 문화(261쪽)

7세기 후반에 발달한 일본의 고대 문화로 당과 통일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불상, 가람 배치, 탑, 율령과 정치 제도에서 신라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컸다.

이상 한국고대사의 주변국 관련 서술을 정리해 보았다. 주변국 관련 서술이라 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은 없고 한국사의 대외관계사로부터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외관련 기사는 중국과 일본관련 14개 항목에 걸쳐 개별적,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우선 중국관련 서술을 보면, 고조선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漢과의 전쟁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고조선의 강력한 저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부여와 삼한의 기술에서는 간단히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삼국의 대외관계 서술에서 백제는 한 군현 세력의 저지, 중국의 선진문물의 수용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의 요서지방, 일본의 큐슈지방에까지 진출하였다고 한다. 특히 '백제의 해외진출'이라는 박스기사와 지도를 설정하여 백제의 대외정복활동을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성왕대의 중국 남조와의 교류, 왜국에 불교전파 등을 서술하고 있다. 가야는 철자원과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큐슈지방을 잇는 중계무역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고구려는 광개토왕대의 동아시아제지역에 대한 정복활동을 다루고 있다. 특히 광개토왕비문을 인용하여 영락9년(399)에 신라에 침입한 왜를 이듬해 보기5만의 병력으로 괴멸시켜 한반도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

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신라의 경우는 왜의 침입, 고구려의 구원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피동적 대외관계로 묘사되어 있다.

‘고구려와 수당전쟁’의 항목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고구려의 요서지방 공격으로 촉발된 양국전쟁에서 고구려의 승리를 부각시키고 있고, 당과의 전쟁에서도 당의 동북아지배 야욕을 좌절시켰다고 하여 민족사의 ‘파수꾼’으로서 위치시키고 있다. 반면 고구려의 멸망에 대한 서술은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 하던 고구려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발해의 대외관계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일본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정치외교사적 기술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대중관계를 비롯하여, 백제의 대외진출의 활약상,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과 왜 격퇴 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고대의 경제> 항목에서 대외교역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의 중국 남북조 및 북방민족과의 무역, 백제의 남중국 및 왜, 신라의 대중무역이 소개되고 있다. 통일신라의 대외교역은 당과의 공적인 것보다는 장보고라는 개인의 활동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대일교역에 대해서는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졌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발해에 대해서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고 소개하고 수출품, 수입품의 품목까지 열거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발달>이라는 장에서는 별도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문화>란 항목을 설정하여 삼국문화의 일본전파를 집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신라 통일 이전 시기에는 주로 『日本書紀』의 내용을 추출하여 나열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제에서 아직기와 왕인의 한자, 논어 전수, 오경박사, 의박사, 채약사, 공예 등 지식인, 기술자의 파견, 불교문화의 전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구려의 담징, 혜자, 벽화고분 등 인적 파견을 통한 선진문화의 전파가 소개되어 있다. 통일신라의 경우는 원효, 강수, 설총, 심상 등의 이름이 나오며 불교와 관련하여 고대일본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80여쪽에 달하는 고대사 서술 중에서 대외관계의 비중은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고대 한반도제국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친 중국 및 북방민족과의 전쟁기사를 제외하면 순수한 대외관계 기사는 더욱 줄어든다. 문화사라 하더라도 대중국 기사를 극히 적고 대일관계에서 ‘민족사의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전수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3. 서술의 객관성 문제

역사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객관성 문제이다. 특히 자국사 서술에서 대외관계는 자칫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자국사 서술에 있어 나타나기 쉬운 이 문제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d-2에서 ‘내물왕때에는 신라해안에 출몰하는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영토내에 머물기도 하였다’와 d-5의 ‘(고구려는)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은 동일한 사건으로 각각 신라와 고구려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고, 전자는 삼국사기를, 후자는 광개토왕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신라국가형성기에는 신라의 해안에 빈번히 출몰하는 해적적 성격의 왜의 침입이 있지만, 광개토왕비문의 왜는 백제와 가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던 정치권력체이다. 양자간에 혼란이 존재한다. 또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경쟁’이라는 표현도 신라와 경쟁하는 세력이 ‘왜를 주축으로 하는 가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광개토왕비문에 나타난 국제관계의 구도는 백제를 중심으로 한 가야·왜이다. 왜 주도의 세력경쟁이란 한반도남부를 두고 고구려와 왜가 대결했다는 일본학계의 전통적 논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둘째, d-4의 백제의 대외 정복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백제의 중국 요서, 산둥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에 진출했다는 기술과 e-1, 2에서는 중국의 요서와 진평에 백제군을 설치했다는 『宋書』와 『梁書』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이 내용은 <백제의 발전>이라는 지도로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일본 규슈지방에의 진출이라는 기술은 백제 근초고왕대의 일로서 설명하고 있고, 이전에 출판된 모든 국사교과서에도 실려있다. 이 내용의 근거는 아마도 『日本書紀』神功紀에 나오는 백제와 왜의 교류기사와 현존하는 일본 石上神宮에 보관되어 있는 七支刀 명문에 근거하는 것 같다. 신공기 해석과 칠지도명문의 해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혹 이러한 추정이나 혹 북한학계에서 내세우는 삼한·삼국의 이주민이 일본열도에 진출하여 한반도계 분국을 세웠다는 이른바 分國論의 영향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논증되지 않은 가설이 국정교과서에 통설처럼 수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출’이라는 용어는 백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그 지역에 백제국의 세력권을 형성하였다던가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다. 진출과 교류·교섭은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본문의 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지도상에서조차 ‘규슈’를 별도의 색으로 표시하는 등 유독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문제점이 많은 『일본서기』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일본의 백제 진출이지 백제의 일본진출이 될 수 없다. 이 자료를 역으로 읽을 경우에만 백제의 일본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료 이용시 극단과 자의적 해석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백제의 요서지방 진출과 백제군 설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통설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쥬대에 일어난 사건이 『宋書』와 『梁書』에 나오면서 정작 『晉書』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백제의 요서진출은 근초고왕대 사건으로 나오지만 당시 북으로는 고구려와의 끊임없는 전쟁상태였고, 더구나 남방으로 영역확대를 꾀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근초고왕이 수군의 주력을 빼내어 서해를 건너 요서지방을 공략했다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요서지방이 무주지나 공한지가 아닌 이

상 국내 전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시도했다는 점은 백제사의 전개과정에 적지않은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사료에 있다고 그대로 믿는다면 『宋書』 왜국전에 나오는 한반도제국명이 관칭된 왜왕의 작호 문제, 수서 왜국전에 백제와 신라가 왜국을 대국으로 섬긴다는 내용도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한반도 내부의 발전과정, 상황론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a와 d3에 나오는 고조선과 가야의 '중계무역'의 내용이 부자연스럽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일정한 중계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요컨대 원산지의 물품을 직접 들여와 제3국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야에 대한 서술에서 '풍부한 철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발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야의 철생산은 『삼국지』 변진조에 보이는 한·예·왜가 철을 구입하러 오고 낙랑·대방 2군에도 공급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철자원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척도이자 왕권의 존립의 중요한 기반이고, 왕권 상호간의 외교와 교역을 통해 자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철생산의 중심이자 수출국인 가야가 철을 매개로 중계무역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일본열도의 왜 역시 낙랑과 대방에 활발한 교역을 했다는 점에서 가야의 교역을 중계무역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정확한 서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섯째, m-1에서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기술이다. 아직기와 왕인 기사는 국사교과서에 일본에 문화전수의 시조이자 상징적인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고사기』에는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대의 일로, 『일본서기』에는 아신왕대인 404년으로 되어 있다. 교과서에는 『고사기』를 근거로 4세기의 일로 하고 있지만, 5세기 초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다.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에 따른 백제와 왜의 군사동맹 등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교환되고 있던 시기의 사건으로 생각된다.²⁾ 나라시대의 최고의 고승으로 일본불교계를 총괄하는 大僧正의 지위에 있던 行基의 墓誌에는 「本出於百濟王子王爾之後」라고 하여 행기를 王爾(王仁)의 후예라고 기록하고 있다.³⁾ 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天平21년(749) 3월23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8세기중엽까지는 왕인의 후예씨족들은 그들의 선조의 본관을 백제로 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의 지위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가 백제의 왕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公私에 걸쳐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⁴⁾

2) 아직기, 왕인 전승기록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 1983, p.332 ; 金恩淑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한일관계사 서술내용 검토」, 『歷史教育』74, 2000). 일본고대 도래계 씨족인 西文氏의 시조로 나오고 있는 왕인은 그의 후예씨족들이 선조의 도래전승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일본서기의 응신기와 웅락기의 도래전승의 중복을 들어 웅락기의 내용이 실재를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平野邦雄, 山尾幸久, 『雄略大王期の史的位置』, 앞의 책 ; 平野邦雄,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1993, pp.19~23). 수긍할만한 해석이나 5세기대의 백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보면 백제의 대외외교 차원에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다.
3) 齊藤忠 編著, 『古代朝鮮 - 日本金石文資料集成』(吉川弘文館, 1983)
4) 請田正幸, 「フヒト集團の一考察」(『古代史論叢』(上), 塙書房, 1988, p.183)

여섯째, d6에서 백제 성왕대에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천황제 울렁 국가의 용어로서 7세기말 이후의 용어이다. '일본' 국호 성립 이전의 용어인 '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행 일본사 교과서에서도 우익교과서를 제외하고는 7세기 이전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예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만 하다. m의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에서도 '삼국문화의 일본에 전파', '일본의 태자', '일본에 건너간 왕인'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 삼국시대는 왜, 신라 통일기는 일본으로 사용하고 항목의 제목을 정한다면 왜(일본) 표기법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곱째, m-1의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미륵반가사유상과 호류사의 백제관음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에서 고류사(廣隆寺)의 미륵반가사유 목조불상은 한반도에서 완제품으로 전해진 것이다. 제작지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라제일 가능성이 크다. 고류사는 신라계 하타(秦)씨와 관계가 깊고 『日本書紀』推古紀31년조에 신라의 사자가 가져온 불상을 秦寺(廣隆寺)에 안치했다는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어 백제보다는 신라와 관련지어 서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덟째, m-2에 '담징은...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호류사(法隆寺)는 607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고구려 승려인 담징이 왜국에 온 것은 610년으로 채색법을 알고 있던 그가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호류사의 금당은 670년에 화재로 인해 전소되었고, 현재의 금당은 1939년의 발굴조사에 의해 7세기말에서 8세기초에 재건립되었음이 판명되었다. 607년 호류사가 건립될 당시 금당벽화가 있었는지는 불명이고, 존재했다면 담징이 그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존 금당벽화는 담징의 그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⁵⁾ 구태여 기술한다면 '담징이 전한 채색기법의 영향에 의해'라는 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생각한다. 7세기전반에는 고구려계 화공들이 왜조정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던 시기이다.⁶⁾ 고구려 벽화고분에도 보이듯이 채색문화와 회화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던 고구려의 화공이 왜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분명하다.

4. 주변국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에서 문헌상의 국가형성의 출발점은 고조선이다. '단군과 고조선', '위만의 집권', '고조선 사회'라는 3항목에 걸쳐 고조선의 건국에서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고조선의 출발과정은 중국대륙의 국가들과의 접촉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대륙의 燕과 漢은 고조선 출발과 발전, 패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

5) 담징이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는 전승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는 김은숙,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룬다.
6) 『日本書紀』推古紀12年(604) 秋9月(是月)條에는 여러 사찰의 불상을 그리기 위해 黃文畫師를 설치했다고 한다. 黃文氏는 고구려계 화공집단으로 이미 왜조정에서 고구려계 화공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 있다. 기사 a에서 '고조선은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라고 하여 한국사의 최초의 침략자로서 漢이 위치되어 있다.

이후 고구려의 역사과정도 隋·唐과의 전쟁사 속에서 전개되어 갔다. f1의 '수는 고구려를 침공', f2의 '수의 문제와 양제는 잇달아 백만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략', f3의 '당의 침략에 대비', f4의 '고구려의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 등 북방의 한국고대사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침략자로 그려져 있다. 민족국난극복사라는 관점에서의 대외서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국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공격은 '침략'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불가결한 일이지만, 전쟁사가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모든 것이 대립의 역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외교사와 문화사적이 측면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양국관계의 전체상이 들어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중국과의 전쟁기사에 '침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반해, 고구려나 백제의 대외 영토전쟁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d4에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하였고', d5에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에 만주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사업을 단행하였고' 라고 하듯이, 대외 군사적 활동에 대해 '진출' 혹은 '정복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경선의 불안정, 지배영역에 유동성이 많은 고대에 있어 영토전쟁은 왕권과 국가의 존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일이지만, 언어와 습관이 다른 이민족에 대한 군사적 행위는 역시 침략이다. 전쟁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사a의 말미에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니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하였다' 라는 서술을 보자. 한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했으나 토착민의 반발에 부딪혀 세력이 약화되고 결국 고구려에 의해 멸망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한군현을 설치' 했다는 기술은 어디에도 없다. 한군현은 前·後漢 합쳐 400여년이란 장년의 역사가 있고, 고조선의 고토에 설치된 漢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던 곳이다. 고조선 유민들의 저항도 적지 않았지만, 樂浪·帶方郡이 고구려에 의해 소멸되기 까지 동아시아제국에 준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남부의 마한·진한·변한 등 삼한사회, 일본열도의 왜인 사회와의 교류는 이들 지역에 정치적 자립과 성장에 자극을 주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군현의 설치를 치부의 역사로 처리하여 교과서 서술에서 도의시하는 것은 역으로 고구려의 발전사가 훼손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한국사의 자체적인 문제로 모호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커다란 틀 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c의 삼한에 대한 서술에서는 '고조선의 남쪽지역에는 일찍부터 辰이 성장하고 있었다. 진은 기원전 2세기 경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 라고 하였다. 삼한에 대한 서술의 첫머리에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은 부자연스럽다. 고조선의 방해 때문에 삼한의 대중교

류가 저지되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음 서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서두의 문장은 진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문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사족과 같은 삽입구절이다. 한편으로는 辰國, 辰王은 『三國志』, 『魏略』 등에 삼한사회 성립 전단계의 국가로 그려져 있지만, 진국과 삼한제국과의 관계도 불확실하고 사료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서술상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고구려의 수·당의 전쟁〉이란 항목의 f4에서 '고구려가 수·당과 싸워 이겨 그 침략을 막아 낸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라고 한다. 이것은 고구려의 대수, 대당전쟁을 고구려 남방의 백제와 신라를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논리이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라는 두터운 벽이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삼국간의 전쟁은 북방에서의 전쟁보다 더욱 치열하였다. 백제는 고구려 때문에 두차례나 한성이 함락당하고 웅진과 사비로 천도하는 등 그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신라 역시 국가형성기에 고구려의 예속하에 들어가는 등 고구려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백제의 멸망은 육상이 아닌 해로로 당 수군에 의해 당하지 않았던가. 한반도의 허리가 당군의 비수에 찢렸는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저지' 했다는 논리는 지극히 고구려 중심적이다. 고구려를 한반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과연 올바른 역사인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항목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세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는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외세란 唐이고 신라의 대당연합전선을 가리킨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를 논할 때 논의되고 있는 시각이다. 고대의 한반도 삼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영토·민족개념이지만 적절한 표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의 삼국은 통합에서 분열이 아니라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지역적 기반을 갖는 제종족,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 통합해 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것을 한민족이라 부르고 한민족사에 편입하고 있다. 잘못된 인식은 아니다. 다만 삼국은 자국사에서 보면 당과 마찬가지로의 외세일 뿐이다. 현재 분단시대의 남북한의 통일론에 '외세'란 표현으로 '한계성'을 말한다면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대를 현재의 관점에서 본 과잉 역사해석은 아닌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발해에 대한 서술인 h의 내용을 보면,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돌궐·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하였다. 즉 발해의 대외정책은 돌궐·일본과 손을 잡고 당·신라를 견제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발해의 역사 699년에서 926년에 이르는 230여년 동안 주변제국과 수많은 교류가 있었다. 사료적으로 보면 신라와의 국사교과서에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고, 대당관계 역시 우호적이질 않았다. 이에 반해 일본과는 52회에 걸친 사절의 왕래가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적대하

는 양대세력으로 구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서술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보면 발해와의 교류만큼이나 신라와 당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일본의 통일기 신라와의 교류는 76회에 이르러 발해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대규모의 견당사를 통해 당과의 공적 교류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유동적인 국제정세 하에서 200년이 넘는 기간을 고착된 국제관계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를 통해 ‘세력균형 유지’ 운운하는 것도 안이한 발상이다.

〈민족 문화의 발달〉이라는 항목인 1-1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한자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우리 민족은 철기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 시대의 지배층은 한자를 널리 쓰게 되면서 한문으로 쓰여진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서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러 교육 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유학이 보급되어 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문자는 미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원시에서 고대로 전환되는 지표이다. 고대동아시아의 유일한 문자인 한자는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주변제국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제국은 한자를 매개로 다양한 제도, 사상, 문물의 전파와 수용이 이루어졌다. 위 인용기사에서도 보이듯이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서적을 이해할 수 있었고, 중국과의 교류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유학이 보급되었다고 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중국의 선진문화의 수용을 거론하고 있다. 주변제국이 이미 경험하고 성공한 선진문화의 수용은 중요하며 인류의 발달과 문화교류사의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중국의 한자문화의 수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한자문화권을 형성 하였다고 하여 한국사에서 한자의 사용을 중국과 동렬로 위치시켜 중국으로부터 수용했는지 어떤지 모호하게 되어있다.

한편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의 항목에서는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고구려도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의 문화는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 문화에 뒤이어 통일 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불상, 가람 배치, 탑, 율령과 정치 제도에서 신라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컸다’는 등 고대 한반도문화의 일본 영향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이다.

일본관련 서술에서 문화전파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에 대한 상대적 우위성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관련 서술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고대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이 부각되어 있는 이면에는 마치 미개민족을 개화시키는 듯한 시혜적 시각이 작용된 것 같다. 문화의 전파와 수용은 일방적으로 이루어는 것이 아니다. 전하는 측의 의지 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측의 입장이 있고, 문화수용의 내적기반도 필요하다.

고대 한반도문화가 일본열도에 끼친 영향은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 야요이문화의 형성은 도작문화가 원류가 되고 있고, 이에 동반하여 각종 기술문화가 전파된다. 삼국이 정립하는 4~7세기에는 동아시아의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외교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삼국의 문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여기에 인간의 이동은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가속화 시켰다. 왕권 차원에서 혹은 한반도에서의 변란을 피하게 위해,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서 수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다. 이들은 일본사에서 귀화인 혹은 도래인이라고 하고 한반도에서 보면 이주민이다. 백제, 고구려의 멸망은 인구이동의 절정에 이른다. 한반도에서 위로는 왕족을 비롯하여 지식관료군, 승려 등 종교인 밑으로는 건축, 토목, 공예, 음악, 미술, 각종 공예에 관련한 기술자, 예술인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인간군이 건너간다. 일본고대의 성씨록인 『新撰姓氏錄』에畿内지방의 거주자 3분의 1이 도래인이었다는 기록으로부터도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의 수는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 속에서 나타난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서술은 균형성이 떨어진다.

5.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을 위한 몇가지 제언

지금까지 국내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주변국 관련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술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과서 서두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 ‘국사가 곧 우리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고 민족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전제되어 있듯이 ‘주체적’, ‘정체성’ 서술을 표방하였다. 특히 ‘국사’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강한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일본에서조차 ‘국사’라는 용어가 살아진지 반세기 넘었지만 우리는 의연 ‘국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계사의 조류에도 어울리지 않은 용어로서 ‘한국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군과 고조선〉 항목에서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 2333)’라고 하고 단군신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본문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신화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게다가 BC 2333년이란 건국년대를 명기하고 ‘단군 영정’조차 실고 있어 역사적 사건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민족의 주체성이나 정체성과는 관계없는 왜곡된 역사를 가리치고 있는 셈이다.⁷⁾

중국과의 관련해서 전쟁사의 서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고구려의 수·당과의 전쟁은 고구려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고 거대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문화사적인 교류

7) 견당사를 태운 배. 견당사는 당나라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한국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서술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은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고대의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관련 서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 역사를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민수 선생님께서는 이 교과서가 목표로 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비교적 충실하게 현행 교과서 서술의 부정확성, 용어의 애매함, 과도한 민족주의적 서술을 지적하시고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제언도 하셨습니다.

저도 이 토론을 위해 『고등학교 국사』(2007, 3, 1 인쇄)의 고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읽어 보았지만 자신의 독해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읽어 보았더니 교과서 보다 약간 알기 쉽게 서술되었더군요. 학생들이 매우 불친절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민수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대부분 저도 동감하며 특별히 지적 사항에 대해 제가 반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 발표문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나 확인할 부분이 있어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연민수 선생님의 견해도 듣고자 합니다.

1. 우선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매우 애매합니다. 즉 이 교과서에서는 “신석기 시대 말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령(랴오닝), 러시아의 아무르 강와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새김무늬 토기 문화가 앞선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약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다. 이 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된다”(A)(27쪽)고 하였습니다. 즉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본격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본격화되는 시기가 기원전 2000년경인지, 기원전 1500년경인

의 문제도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민족의 자랑이었던 ‘대고구려’는 왜 멸망했는지, 이를 고구려 내부적 요인으로만 돌릴 것인지, 신라를 타할 것인지,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점은 없는지 21세기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백제의 요서진출과 같은 서술을 불안정한 사료를 인용하여 사실로 확정짓는 것도 문제이다. 일본교과서에 광개토태왕비문의 신묘년조 기사를 비판없이 그대로 번역하여 실거나 『송서』 왜국전의 왜왕이 한반도제국이 관청된 작호를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용을 기재한다면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한국사에 유리하다고 해서 비판없이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과의 관련해서는 우리문화의 우월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문화의 전파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의 의지이고 왕권이 주체가 되고 있다. 격동하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의 이동과 문물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국제관계에서 은혜를 베푸는 식의 일방적인 문물의 전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전수의 이면의 다양한 양상들이 도외시되어서는 제대로 된 한일관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대외관계의 서술이 빈약하다. 고대 동아시아세계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전쟁과 외교,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삼국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은 대외관계 속에서 성립하였다. 특히 역사쟁점이 많은 북방민족 등 다양한 교류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두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과 문물을 교류’, ‘개방적 민족주의’를 편찬 목표로 삼았던 본래의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끝으로 대외관계사의 기술일 경우 관련 전문가가 필진으로 참여해야 한다. 앞으로 개편될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필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사의 조류에 걸맞은 인간상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서술은 ‘주체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 또는 그 사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였더니 A부분까지 서술한 후 “고인돌도 이 무렵 나타나 한반도의 토착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설명이 더 들어가 있었을 뿐 역시 근거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과서의 초판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에, 만주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는 기원전 15-13세기경에 청동기시대가 전개되었다(29쪽)”고 서술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관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한국사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1997)를 살펴 보았으나, 이 책에서 최몽룡 교수는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10세기(상한은 앞으로 기원전 15세기까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에서 기원전 300년까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의 청동기 시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이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에게 여쭙 보았더니, 근년에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 여겨지는 돌대문토기가 정선과 가평에서 나왔는데, 이를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의 것으로 보는 극히 일부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여 교과서 내용을 고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의 견해가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대를 올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이 교과서의 ‘단군과 고조선’에서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기원전 2333)’는 서술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연민수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연민수 선생님께서는 ‘단군과 고조선’에서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 2333)’라고 하고 단군신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화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게다가 BC 2333년이란 건국 연대를 명기하고 ‘단군 영정’ 조차 실고 있어 역사적 사건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민족의 주체성이나 정체성과는 관계없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BC 660년에 건국했다는 일본의 건국신화를 실은 우익 교과서(‘새 역사교과서’ 후소사관)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역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따끔한 비판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단군신화는 어느 정도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이 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흙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들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비롯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 당시의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B)(27

쪽)고 적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를 설명하고 뒤에서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 만주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까지를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과서의 서술만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교과서에 보이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지도도 한반도 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 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유물(특히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토기)과 유적의 분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연민수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한사군의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고자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하였다”는 서술은 한이 군현을 설치하는 데 실패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의 정치적 발전’에서는 “미천왕 때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낙랑군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차라리 고조선 멸망 후에 낙랑군을 비롯한 4군을 설치하였다고 서술하는 편이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 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한4군 설치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연민수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5.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민수 선생님께서는 중국이 한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침략자로 그려져 있는 이유를 민족국난극복사라는 관점에서 대외관계를 서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사가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모든 것이 대립의 역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외교사와 문화사적인 측면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양국관계의 전체상이 들어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정치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교과서에서 외교사는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교사를 제대로 취급하려면 책봉, 조공과 같은 문제도 다루어야 하는데 이를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교사를 제외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연민수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6. 중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사가 제외된 결과 다음과 같은 애매하고 부정확한 고구려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삼국간의 항쟁」에서 고구려가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대에 영역을 넓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계속된 대외팽창으로 고구려는 동북 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제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루게 되었다”(50-51쪽)고 하였습니다.

과연 고구려가 동북 아시아의 패자가 군림하였다는 말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우선 동북 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에서 ‘패자(覇者)’의 뜻을 보면 제후의 우두머리, 무력, 권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경기의 우승자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패권자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즉 “동북 아시아의 패권자로 군림하던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668)”(55쪽)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패권자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이 교과서의 저자는 패권을 가진 사람, 즉 패자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듯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무력으로 동북 아시아를 다스렸다면, 과연 그 동북 아시아는 어느 곳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위 교과서에서는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수, 당과 전쟁한 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고구려왕은 수,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관작을 받은 것은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의 정치적 변천에 대해 “고구려가 중국 및 북방 민족과 대결하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 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이해한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역시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정치사는 중국 및 북방 민족과 대결하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 역사로 서술하라는 서술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민수선생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이것은 고구려의 대수, 대당전쟁을 고구려 남방의 백제와 신라를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논리이다” “고구려를 한반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과연 올바른 역사인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규정입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해 주변 나라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노력하던 고구려가 과연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교과서 필자는 이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서술하게 되니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은 최소한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요구한 것이므로,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역시 교과서 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교과서를 읽어보니 교과서를 쓴 필자들이 중국관련 서술에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연민수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이 교과서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역사 의식은 안으로 민족 주체성을 견지하되, 밖으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내 것만이 최고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내 것

을 버리고 무조건 외래의 문화만 추종하는 것도 모두 세계화 시대에는 버려야 할 단힌 사고이다”(13쪽)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한정해서 검토한 것이지만 우리 교과서가 과연 얼마나 개방적 민족주의에 의해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민수 선생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과서가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역사 의식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3주제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동아시아

>>발표_ 深谷克己(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토론_ 신주백(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동아시아

深谷克己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머리말

1. 일본의 역사교과서
2. 교과서에 대한 국가·사회의 규제
3. 扶桑社版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특징
4. 아시아의 국제관계연구와 교과서 기술
5. 法文明圈으로서의 동아시아

<내용개요>

17세기에서 19세기 60년대까지의 2세기 반 남짓 일본근세사, 江戸時代를 전공하고, 오랜 기간 대학에서 그 시대의 역사교육을 담당하면서 중학교·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의 집필에도 참가해 온 입장에서, 일본의 교과서학습방법, 동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構想할까에 대해 발언하고 싶다.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일본에서는 많은 출판사가 교과서를 간행하고 전문분야별로 집필자를 의뢰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 소속의 연구자가 교과서 집필에 참가하고 있다. 중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필수교과로서의 「일본사」는 없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는 「사회」라는 교과가 있어 「역사」「지리」「公民」세 과목으로 나뉘어 있다. 「역사」의 내용은 「세계사」이지만 中軸은 일본사이다. 근년 중학교의 수업시간수가 대폭 적어졌다. 그 때문에 교과서 記述量

도 축소되어, 세계사가 압축되었기 때문에 일본사교과서화가 진행되었지만, 일본사도 本文量이 줄었다. 또 도판을 많이 사용하는 비주얼화가 진행되어 보이는 효과를 위해 대형화가 진행되었다. 본문의 히라가나표기가 늘고 한자에 토(루비)를 다는 것이 많아졌다. 고교에는 「지리·역사」라는 교과가 있어 「지리」「세계사」「일본사」세 과목으로 나뉜다. 필수는 「세계사」고 「일본사」는 선택이다. 일본사교과서에는 상세한 受験對應의 B판, 50회 정도로 배우는 근현대중심의 A판이 있다.

2. 교과서에 대한 국가·사회의 규제

檢定制度는 자유출판도 아니고 國定制度도 아닌 민간의 상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과서는 검정 외에 수험 등의 압력도 받고 학계의 新說이 자유롭게 교과서 기술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검정합격이 교재화의 절대조건이 되는 한 출판사는 검정에서 채택으로의 순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문부과학성은 「학교교육법」에 의거한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지만, 검정도 교과서작성도 「지도요령」에 기본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같은 「지도요령」이라는 기반에도 사실선택이나 표현에서 교과서에 특색이 생기고, 판매 수에 차이가 난다. 검정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근현대의 전쟁기술, 영토기술, 황실기술 등이다. 검정은 국가의 견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배후에 의식적인 시민운동의 형태를 취한 압력이 있다. 채택은 일반시민의 의향이라는 형식이지만 현장교사에서 시민대표에게 채택권이 옮겨져 보수적 선택으로 결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自治体의 廣域採擇으로 학교별로 교사가 선택하는 고교보다도 영향이 크다.

3. 扶桑社版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특징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사회의 요망이 있어도 역사에서는 경쟁적으로 복수의 인식이 성립하여 다수의 史實에 연결되는 논리도 여러 평도 가능하다는 사정에서, 교과서는 많은 종류가 되었다. 다른 방법으로 訂正을 거듭하는 가운데 서로 흡수하는 사이 내용이 비슷해졌다. 그 중에 다른 교과서를 일본의 공지를 버린 「自虐史觀」이라 비판하면서 등장한 중학교용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있다. 전후사회의 인식변용을 배경으로 하지만, 다수의견과는 괴리가 있는 우파적 편향이 밝혀져, 소수의 공립·사립학교만이 선택하여 출판사의 撤退도 관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도 검정에서 다수의 수정의견이 더해져 사회경제사의 기술은 다른 교과서와 비슷하게 되었지만, 역사의 견해에는 獨自色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주의적 영웅주의적인 자세, 민중사 경시, 자국사에 대한 자성의 결여 등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歐美에 지지 않는 역사였던 것을 강조하는 자세와 一體가 된 아시아 輕視이다.

4. 아시아의 국제관계연구와 교과서 기술

역사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경계는 중요하지만, 시민적 정치적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역사학의 차원에서 과제를 제기해야만 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아시아 輕視는 민주적인 자세의 역사학에 있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관계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어 성과가 검정과 대립하지 않고 역사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 이 분야는 戰前은 「南進論」을 배경으로 朱印船貿易의 연구 성과가 많고, 戰時下·戰後는 전쟁을 우려하는 역사가가 鎖國의 弊害를 강조하는 歷史像을 묘사했다. 「戰後歷史學」은 幕藩體制論에서 鎖國을 중시하고 네덜란드 상인으로 한정된 것은 일본 측만이 아니라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세력을 驅逐한 결과라는 것을 증명했다. 70년대에는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받아들여 바꾸는 분위기가 강해 「4개의 □」라는 표현으로 근세의 국제관계를 특징짓는 것이 확산되었다. 鎖國은 동아시아의 국가관리무역정책인 「海禁」인 것, 불평등한 日本型 華夷秩序인 것도 지적되었다.

5. 法文明圈으로서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제사회의 교류연구는 중요하지만 제사회가 공통분모 위에 개성적 사회를 성장시켰던 것을 構造論으로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반전과 민주화를 지향했던 「戰後歷史學」에서도 자본주의 발달사를 축으로 전근대를 領主制의 제단계로서 미래를 전망하고자 했던 것과 관련해 유럽중심사관과 一體化한 「脫아시아적」인 역사상을 형성해 왔다. 근대주의적 제 흐름은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동아시아 제사회의 공통분모를 인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치문화」론의 시각은 유효할 것이다. 古典 古代的 中國文明에 연원하여 外延적으로 浸潤하고, 내부에 지역문화권도 만들어 내면서 팽창한 공간을 「동아시아 法文明圈」으로 부르자. 특징은 ① 한자와 지역의 문자를 混交併用한 의사전달 ② 불교 유교 도교라는 보편적 토속적 초월 관념 ③ 仁政德治의 儒教核政道論 ④ 국가와 마주하는 「백성」이라는 「公民」 신분 ⑤ 「均」을 목표로 하는 평등주의적 백성 「安民」론 ⑥ 土農工商의 「良民」과 「賤民」신분의 兩存 ⑦ 태평무사의 평화론 ⑧ 華夷事大·敵禮 의 신분제적 국제관계론 등이다. 일본에는 科擧制가 없지만 중세사연구에서도 武士論의 재고가 진행되고, 근세사연구에서도 관료제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료선발시험의 有無가 아니라 爲政者를 供出하는 사회기반에서 鄉紳官僚制, 兩班官僚制, 武士官僚制로 이해하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다.

〈본문〉

머리말

나는 일본 東京에 있는 사립대학인 早稻田大學에서 1970년대부터 30년 이상 일본사 담당의 敎員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학부학생, 대학원학생에게 강의·연습·논문작성 등의 지도를 계속해 왔다. 담당분야는 일본근세사이지만 江戸時代라고도 한다. 시기범위는 17세기부터 19세기 60년대까지의 2세기 반 남짓이다.

일본사에서는 근세라고 하는 경우에는 16세기 70년 전후부터의 시기, 즉 織田信長이나 豊臣秀吉이 전국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시작해 「조선침략」에까지 이르렀던 시기를 포함하지만, 江戸時代라고 하는 경우에는 1603년에 徳川家康이 將軍(정확하게는 征夷大將軍)에 임명되어, 江戸城이 國政의 거점이 되면서부터 그 이후를 가리킨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유동적이지만, 현 단계의 대학원에서 본다면 고대사·중세사·근세사·근현대사의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시대별로 연구·교육을 분담하고 있다. 대학의 역사교육에는 규정된 교과서는 없지만, 옛날 학생들과 같이 교수의 강의를 들을 뿐이지만 노트에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트를 정해 참고문헌을 들어 학생에게 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사연구에는 테마별로 전문이 나누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 연구대상 시기에서 전문분야를 구별하는 경향이 강해 일상의 연구자 교류도 시대별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 학회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人數가 많은 학회에서는 시대별로 연구발표 회장을 나누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나도 학생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근세사 혹은 江戸時代史를 전공하는 연구자·교육자라는 좁은 시야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다. 미리 단언해두니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

1. 일본의 역사교과서

나는 근세사·江戸時代史연구자의 입장에서 교과서 작성에도 참여해 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도 출판사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오랜 기간 집필자의 한 사람으로 작성에 참여해 왔다. 이 경우에도 근세부분을 오로지 담당하여,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집필자가 분담하고 있다. 교과서 작성에 참가해온 덕분에 우연이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마침 恩師인 근세사연구자가 은퇴하여, 뒤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고, 고교의 교과서는 조금 年長の 知人인 연구자로부터 함께 하지는 계획을 권유받아서이다. 교과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넣는다면, 대학에 소속한 연구자 중에 상당

히 많은 사람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보통의 연구 활동에서는 定職이 있든 없든 공동으로 행해지지만, 교과서에 한해서는 출판사가 소속이 확실한 연구자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專任者가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교육인 소학교, 고등교육인 대학 사이에 낀 중등교육단계의 교육기관이지만, 의무교육인 중학교와 통학자유인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의 작성절차, 채택절차가 상당히 다르다. 그렇다고 해도 이전에는 중학교를 나와 취직을 하는 학생도 많았지만, 지금은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하면 100% 입학 「高校全入」이라고 불리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와 고교에는 교과서 제공의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현장의 역사교육자와 출판편집자의 준비가 累層되어 대략의 原案이 결정된 데에 집필하는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고 작성해가는 것이 보통이다. 연구자가 쓴 교과서의 本文에 대해서도 자세한 점검이 행해진다. 결국 연구자보다도 편집자나 교육자가 리드해가게 된다.

이에 비해 고교생용의 교과서는 현장의 교사는 그다지 관계없이 연구자와 편집자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작성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적으로, 고교의 역사교과서가 중학교의 교과서보다는 연구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일본사 전문가로서 교과서의 일본근세부분 집필에 참가하고 있지만, 실은 역사교과서로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는 「일본사」라는 교과는 없다. 따라서 일본사라는 교과서도 없다. 중학교에는 「사회」라는 교과가 있고, 그 안에 「역사」「지리」「公民」의 세과목으로 나뉘어 있다.

나는 이 세과목 중에서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의 집필에 참가하고 있다. 「역사」라는 과목은 내용으로서는 「세계사」이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지구상의 역사 전부를 거의 時系列的으로 개관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역사」교과서는 확실히 「일본사」교과서는 아니지만, 그 중심은 일본사이고, 일본사의 전개와 세계각지의 역사전개를 並列, 혹은 연관 지어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필자는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일본사 각 시대의 전문가로 아시아사, 유럽사 등의 연구자를 더해 써가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사를 쓰는 것은 모든 외국사 전문가를 두루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사나 중국사의 어느 전문가가 전부를 책임지고, 유럽사라고 해도 영국사나 독일사의 전문가가 기타 전부를 책임지고 집필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 점에서 보아도 역시 일본사가 각각 시대의 전문가를 갖추어 쓰게 되어 역시 정중한 집필진이 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먼저 수업시간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140시간(授業時限數)에 해당하던 것이 지금은 105시간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주입식교육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지식편중교육방법에 대한 수정으로, 「유도리(여유)교육」이라는 말로 추진된 교육개혁의 결과였

지만, 현재에는 그것이 학력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반성을 낳아 재수정되어야한다고 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시간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記述量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 때문에, 예를 들어 종래에는 세계의 4대 고대문명으로서 중국문명·인더스문명·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순서대로 4회에 나누어 가르쳤지만, 현재의 교과서에는 중국의 고대문명만을 다루게 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역사를 중시한다고 하는 메시지도 되지만 실제로는 수업시간의 삭감 때문에 일어난 학습지식의 축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현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사와 세계사를 時系列的으로 넓게 묘사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본사를 축으로 해서 아시아와 기타세계를 샌드위치같이 끼워 기술하는 경향으로 나아가 일본사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일본사 교과서에는 없지만 日本史教科書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일본사교과서화라고 했지만, 일본사 기술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반대이다. 외국사 기술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일본사 각 시대에 대해서도 항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내가 집필을 분담하는 江戸時代에 대해서도 항목에 몇 개인가가 없어지고, 본문의 字數가 줄어 학습시간수도 줄고 있다. 이해가 어려운 혹은 지루한 농촌구조라던가 신분관계가 이전보다는 줄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민중사 기술의 어떤 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에 기술하겠지만 대외관계라던가 종래에 輕視되어왔던 이슬람 사회에 대한 기술이 늘었다고 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유도리교육」이라는 교육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정으로부터도 기술량이 적어지고 있다. 그것은 비쥬얼화의 요망에 의해서이다. 이전에는 본문만으로 겨우 참고도판이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던 것이 교과서였다. 거기에서 역사는 어디까지나 본문에 의해 역사의 체계성, 흐름을 인식시킨다고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기본 자세였다. 결국 토픽적인 화제를 다루는 것은 피하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인쇄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도판이나 그림을 들어 지면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짠 가격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백 인쇄였지만 지금은 여러 칼라의 사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기 좋은 교과서가 되었다.

인쇄는 색 또는 도판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大型化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도판을 활용한다고 한 이후부터도 본문의 기술량이 줄었다. 그 대신에 학교 주변의 역사를 스스로 조사하는 自主學習의 참고기사가 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도 중앙정치, 전국적인 역사만이 아닌 지역생활에 착안한 흐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말한다면 전반적으로 한자를 읽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역사용어에 토(후리가나)를 붙이는 것이 점차 늘고 있다. 근년에는 용어라고도 할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보통의 일본어에도 토를 붙이는 것이 늘고 있다. 더욱이 종래라면 한자로 표기하는 어구를 히라가나로 하는 것이 많게 되었다. 이 경향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고교에는 「사회」라는 교과는 없다. 「지리역사」약칭해서 「地歷」이라는 교과가 있고 그 안에 역사과목이 있

다. 「地歴」은 「지리」 「세계사」 「일본사」의 세 과목이고, 이 안에서 필수는 「세계사」뿐이다. 다만 학생은 다시 한 번 「지리」나 「일본사」 어느 하나를 선택해 학습해야만 한다. 결국 「일본사」는 선택과목으로 필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일본사 코스에 진학해 온 학생조차도 고교에서 일본사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하고 묻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런 사정으로, 일본에는 중학교에도 고교에도 필수과목으로서의 「일본사」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목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교의 지리역사과에서는 일본사 필수 방향으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앞서 말한 것처럼 중학교 「사회」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사 중심의 성격이 있지만, 대학입학시험센터가 행하는 전국공통시험에서는 「地歴」세 과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고교에서 선택과목인 「일본사」로 「세계사」수험자를 2,3만인 웃돈다.

그런데 고교의 일본사교과서에는 「A」와 「B」두 종류가 있다. B판은 상세한 교과서로 백 수 십 시간의 학습이 되지만, 대학수험대응의 타입으로 일본사를 受験하려고 하는 고교생은 거의 B판을 배우고 있다. A판은 근현대사중심으로 전근대에 대해서는 대충 1회 개관하는 정도이다. 50회 정도의 수업에서 근현대사를 배운다. 당초에 A판은 B판의 要設이라는 성격이 강했지만, 근년에 근현대사중심이라는 성격이 확실해져, 개중에는 B판보다도 자세하게 기술한 A판교과서가 보이기도 한다.

대학입시 센터에서는 수험대응의 B판만이 아니라 대학수험을 想定하지 않는 A판 학습자를 위해서도 A판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시험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험인수는 수천인으로, B판 15만인정도와 비교해보면 극히 적다.

2. 교과서에 대한 국가·사회의 규제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국제적으로 争點이 된 것은 특히 근현대사의 전쟁사기술을 둘러싼 것임은 周知하는 바이다. 식민지 지배, 침략·가해 등의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연구자·출판사가 교과서기술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國家檢定이 삭제 혹은 표현의 완화 등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매스컴보도가 국제적인 반발을 부르는 것이 가끔 보인다.

최근에는 沖繩에서 전쟁말기의 「집단지결」을 둘러싼 檢定意見으로 인해 沖繩縣民의 항의 등 他國만이 아니라 국내문제로서도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많은 고교교과서는 이 검정의견에 대해 스스로 수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고 했지만, 沖繩縣民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운동의 힘으로 귀결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쟁사기술이 내외를 막론하고 교과서의 쟁점이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검정제도가 있다는 것은 自由出版도 아니지만 國定制度도 아닌 것으로 일본에서는 교과서는 민간 출판회

사의 상품이다. 교과서제작을 거의 전문으로 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지만, 많은 출판물 중의 하나로 교과서작성에 참가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다. 교과서출판사는 사회적 공헌도 절반은 생각하지만, 또 절반은 판매에 의한 이익, 최저한으로도 採算이 맞을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도 견실하게 출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신용을 얻을 수 있다.

검정제도는 물론 교과서 기술을 규제하지만,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검정만은 아니다. 출판사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제 혹은 요구를 다룬다면, 그 가장 큰 것은 대학수험대응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新舊의 연구 성과를 살리는 학설대응이다. 교과서는 역사교육 유일의 교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교재인 것은 확실하다.

역사교육은 교육적 배려라는 조건이 더해지는데 밀려 역사연구 성과에 근거해야한다고 하는 생각이 사회에 널리 뿌리내리고 있다. 역사견해가 어떠하던지 역사학적으로 근거 없는 기술은 그 타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대학수험의 공평성이라는 사회적 요청도 큰 것이어서, 학계에서 새로운 論証이 등장하여 설득력을 가져간다고 해도 즉각 그것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학상의 견해는 예를 들어 실증성이 있다고 해도 異論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고, 하나의 견해가 성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 성립을 배제하여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기술은 그 나름대로 전후 사항이나 설명과 맞추어져 있어 중요사항은 고덕체로 강조되어 학생은 수험을 목적으로 그것들을 열심히 암기한다. 이러한 교과서기술을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폭넓은 전문가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의 歴史書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시장성원리와 학계 일부의 입장에 휘둘러 매스컴이 다루는 새로운 견해를 앞 다투어 게재해 간다고 하는 위험성이 없을 리 없다. 그다지 오래전이나 일본에서는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잇따라 발굴되어 많은 교과서가 도판이나 사진 등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발굴자의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해 지금은 교과서에서 기사도 도판도 一掃되어, 물증을 중시하는 고고학세계에서 또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그러한 誤認이 가능했을까 엄격한 재검증 논의가 일어났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본열도에 있어서 구석기시대 전부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쓰여 있던 후기구석기시대에 대해서는 일본사에서는 틀림없는 것으로 본문에 기술되어 있다.

대학수험에서 오는 사회적 규제는 본문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장의 교사로부터의 문의, 수험예비교로부터의 지적등도 포함된다. 그것들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 여러 압력을 만든다. 교과서출판사는 그들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서는 「縣」 「市」라는 自治体의 단위가 있지만, 교과서 속 史實의 사례나 참고도판 등에 그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학교가 속하는 縣이나 市가 사례로 적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채택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출판사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縣이

나 市가 교과서에 나오도록 고안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에는 국가에 의한 검정이라는 과정이 있어 거기에 합격하는 것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절대조건이 된다. 출판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교과서의 신규작성이나 부분개정 등을 검정에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다시 민간에 되돌려져 學校市場에 의한 채택순서를 거쳐 그 다음해 신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기획부터 학교에서 사용까지는 4년은 걸린다. 출판사는 이 정도의 시간을 想定하여 교과서작성기획을 세우는 것이다.

국가규제라는 각도로부터 본다면 먼저 文部科學省(文科省)이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인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다. 그 후 필요에 의해 일부 개정을 계속해가고, 큰 변화가 요구되면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된다. 현재는 바로 그 전야의 시기이다. 검정도 역사교과서도 「학습지도요령」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 출판사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살려나가면서 교과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표현인 「학습지도요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 넣는다. 교과서회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 다음 교과서를 어떻게 기획할까를 고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요령」에 얽매이면서도 사실 선택이나 표현의 방법에 의해 개개의 특색이 생겨 이번에는 사회, 결국 교육 측의 선택에 의해 판매수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검정제도 때문에 어느 교과서는 동아시아제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하고 미국의회까지도 충고를 하기도 하는 근현대의 戰爭記述, 領土記述, 皇室記述 등은 큰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쟁기술에 대해서는 아시아제국과의 침략·연행·강제의 책임만이 아니라 이미 서술했듯이 沖繩戰의 기술이 현재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국내문제로서도 일어난다.

검정에서는 단순한 誤記·誤認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의견이 따르지만 이전에 다수의 수정할 부분이 지적 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감소했다. 그리고 덧붙여진 의견은 출판사를 통해 口頭가 아닌 文書를 통한 自主訂正 申請이라는 형태로 집필자집단과의 교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검정에 대해 국가 측과 사회 측의 대립만을 보는 論調가 매스컴에는 잘 보인다. 확실히 검정의 실시단계에는 국가권력의 강압 혹은 출판사·집필자집단 사이에 불협화음이 눈에 띈다. 다만 검정강화에 보이는 배경에는 그 나름대로 사회 측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것은 「時勢」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전반에 스며든 시대 분위기라는 애매한 변화도 있고, 게다가 반드시 민간의 시민운동이라는 형태를 띠는 압력이 있다. 후자는 단순한 時勢라던가 사회적 세력은 아니고, 人名을 확실히 한 조직을 가지고 집요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검정의견도 그러한 사회의 압력회로를 통해 교과서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전반의 규제로서는 채택의 과정, 즉 교과서를 선택하는 순서 속에서의 시민적 의향을 들 수 있다. 채택에 시민이 참가하는 흐름은 민주화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긍정할만한 방향이지만 교과서채택에 한해 말하면 현장교육의 프로인 교사들이 선택해 온 이제까지의 방법에 대한 보수적 반발이라는 측면이 있다. 근년 보

도된 교과서채택문제에는 이러한 시민참가의 채택이라는 사정이 관계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시민」이란 대개 지역의 유직자·유력자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몇 개의 공립중학교가 포함되는 市나 區의 넓이를 단위로 그 自治體에서 한 종류가 선택된다. 채택의 결론이 나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중학교는 어디에서도 같은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것을 廣域採擇이라 부른다. 다만 그 지역 내에 있어서도 사립중학교는 학교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공립도 사립도 학교마다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으로 교육경비의 대부분을 自治體에서 떠맡는다고 하는 것이 교과서채택에 대해 학교외의 선택권을 강하게 했던 근거이다.

그런데 교과서의 採擇을 좌우하는 평가로서 교과서 本体의 평가와 함께, 거기에 관계하는 교재, 예를 들어 자료집이나 문제집 등이 얼마만큼 사용하기 좋게 편성되고 준비되어 있는가도 크게 거스를 수 없는 영향을 준다. 수험을 중시하는 학교 일수록 교과서만이 아니라 얼마나 수험준비에 유효한 副教材群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채택조건이 된다. 또 학생교재 외에 어떤 출판사도 교재보다도 훨씬 두꺼운 교사용의 지도서를 작성하여 현장의 역사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년에는 컴퓨터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도판이나 사료, 본문 등도 마련되어 그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채택의 동기를 강하게 한다.

3. 扶桑社版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특징

국가가 결정한 학습지도요령, 검정제도가 있어 사회 측에서의 수험 기타에서 오는 규제·요망도 크다고 한다면 왜 각종 교과서발행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역사연구 성과는 늘 있는 하나의 결론이 옳고 다른 잘못에는 빠지지 않을 정설이라고 해도 소수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힘은 없어 경쟁적으로 복수의 설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많은 史實들을 연결하는 논리도 시각이나 방법론에 의해 여러 평도 있다는 사정에 의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요망에 의해 적어도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출판사의 노력에 의해, 해마다 訂正을 거듭할 정도로 어느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의 기술이나 사례를 다루는 일도 생겨, 곧 내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개성은 그 나름대로 만들어져 판매부수에 큰 차이가 나지만 門外漢이 보면 어디가 다른지 잘 모를 정도의 작은 차이이다. 그런 것도 포함해 과잉일 정도로 여러 방면에 주의한 通史인 교과서는 개인이 썼던 대담한 偏보다도 많이, 역사서와 비교해서 유감스럽게도 문장이 분명하지 않고 어는 책이나 비슷하다고 하는 불평을 여기저기에서 듣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근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역사학자나 역사교사들이 만든 조직이 주도하고, 출판사가 책임지고 유명한 만화가 등도 집필자로서 참가해 작성된, 新世紀 처음

으로 검정에 합격해 교육시장에 제공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라는 역사서술이 있다. 이 교과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해 편집된 것은 분명하지만 교과서에는 그 모임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것은 쓰여 있지 않다. 그 밖의 교과서도 집필 멤버를 보면 당연히 그룹으로서의 칼라가 떠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룹명을 칭하지는 않고, 監修·編集· 집필의 개인명과 개개의 소속기관이나 전공명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이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만드는 모임」편집이라고 해도 지장은 없지만, 보통은 출판사명을 내서 扶桑社版 「새로운 역사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이 교과서는 제2차 대전 후의 학교교육에서 사용해 왔던 역사교과서의 일본사기술을 자국의 명예를 중요하게 하지 않는 「自虐史觀」에 선 것으로, 전후 일본의 의식변용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사회비판적 측면이라면 편향된 우파적 시각에서 기술된 것이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광역채택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택되지 않고 부모의 지지도 없이 극히 적은 지역, 사립학교나 특별학교에서밖에 선택되지 않아 출판사로서는 완전히 採算에 맞지 않는 간행물로 끝났다.

2001년에 처음으로 검정을 합격했지만 채택경쟁에서 실패하고, 2005년에 다시 같은 출판사에서 검정을 합격했다. 약간의 채택은 있었지만 부족한 採擇數에 머물러 扶桑社는 당연히 채산이 맞지 않아 틀림없이 정보에 의하면 이 교과서발행을 중지하게 된 것 같다. 다만 어쩌면 다른 출판사나 신문사가 떠맡게 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교과서부수로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사회분위거나 우파적 시민운동으로서의 힘은 결코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을까 생각해 보면, 文科省이 이 교과서를 특별히 후원해주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에 의한 검정에 대해서는 교과서집필자만이 아니라 역사학계에도 검정은 違憲이라는 소리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제도에서는 우파적인 교과서에 대해 유리하게 검정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교과서에 대해서도 검정에서 수정의견이 더해졌지만, 그 부분은 137개소의 수정의견이 더해졌다고 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한 것처럼 검정의견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다른 교과서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에 검정의견이 더해졌다. 그 결과 당초 이 교과서의 편집·집필자가 의도하고 있던 내용, 즉 제출원고로부터 보면 상당히 변화한 교과서가 되어버렸다.

예를 들어 제2차 대전 후의 역사학계에서는 사회경제사적인 차원의 연구, 농업·상업·임업·어업·광업·가공업 등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농촌·도시, 그들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유통·화폐관계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 교과서기술에 반영되고 있다. 그것들은 다수의 실질적인 개별 實証研究의 축적에 의해 얻어지는 역사인식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도 이러한 내용에 관한 기술은 이제까지의 역사학의 성과를 다루고 있다. 학교교육에 제공하고자 하는 교과서인 한 이러한 차원의 기술을 무시하고, 정치사나 외교사, 문화사의 頂点的인 인물, 사건만으로는 학생의 교재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에서 이 교과서의 사회구조나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은 다른 교과서와 다른 곳은 별로 없다. 그보다 이러한 분야에서 「自

虐史觀」이라 비판하는 연구자나 학계의 성과에 의거하지 않는 한 교과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대 구분 방법도 큰 부분에는 학습지도요령에 규제되어 다른 교과서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타사의 교과서에 완전히 매몰돼 있는가하면, 역사의 견해라는 점에서, 그를 위한 사실의 사용법이라는 점에서, 이 교과서에는 일본만이 아닌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 특징이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史實은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어느 관점에서 검증 가능한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史實에는 多義性이 있어 다른 면을 다른 논리에 사용해 다른 역사상을 묘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검정 담당자가 역사 전체에 통할 수는 없고, 전문적 견지에서는 實証性이 부족한 내용도 恣意的으로 전후를 이어 다른 歷史像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교과서의 큰 문제점은 이미 그 국가주의적이고 영웅주의적인, 따라서 민중사 輕視의 역사파악, 自國史에 대한 自省의 자세 결여 등 다방면에서의 비판이 있지만, 일본의 근세, 江戸時代를 전문으로 하는 내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아 輕視라는 점이다.

이 아시아 輕視는 일본의 역사가 歐美에 지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자세와 表裏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江戸時代に 일본은 세계제일의 鐵砲 생산국이 되었고, 일본의 과학·기술은 서양제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달해 있는 등 「서양」 「유럽」에 뒤지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이 본문에도 강조된다. 갈림길 등 비교적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더욱 이런 자세가 강하게 나타난다. 자국이 이룬 것을 밝히고, 학습하는 청소년에게 전하는 것은 역사교과서에서는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史實에서 벗어나 過不足없이 쓰지 않고 단면적으로 그것만을 꼬집어내 강조한다면 단순한 誤記가 아니라 역사관의 성질을 띤다.

서양·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였던 것을 말하면 할수록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문물을 흡수해 일본사회의 문명화가 개성적으로 진전해 간 것을 輕視내지는 無視무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記述 例를 江戸時代に 들어본다.

江戸時代の 일본에서는 「農書」가 많이 쓰여 졌지만 이 교과서는 宮崎安貞의 『農業全書』를 들어, 서양제국에 비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을 기술하고 있다. 농업연구에 10년의 세월을 바친 宮崎安貞의 일생은 나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다. 그러나 『農業全書』는 중국 明末의 農政官 徐光啓가 1639년에 저술한 것이 무역에 의해 長崎에 유입되고, 그 서적을 학자의 介在를 거쳐 배우고, 武士를 그만두고 농업실험이나 각지에서 청취하고 노력하여 일본풍토에 맞는 農書를 약 반세기후인 1697년에 완성시켰던 것이다. 결국, 동시대 중국의 생산문화를 흡수하고 일본의 실정에 맞추어 심화시킨 것이 『農業全書』이다. 덧붙여 문자로 농업기술을 전하는 농서는 중국에서는 기원전에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15세기에 저술되었지만, 일본에서는 17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것으로 일본을 뒤떨어졌다고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동아시아의 생산기술수준과 일본이 그 영향을 받아 이룩한 것은 무시하고, 당돌하게 서양·유럽과 비견하려고 한다면, 학습자가 거의 오

해에 가까운 역사인식을 갖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기술의 축적이 교과서의 커다란 성격을 형성해 간다.

또 하나 서양·유럽에 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예를 들어보면, 江戸時代 후기에 대단히 정도가 높은 토지측량을 행하고 이제까지 없던 연안지도를 작성한 伊能忠敬라는 인물이나, 여러 가지 「실로 조정하는 인형」을 고안한 田中久重이라는 인물이 학생의 리포트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리포트에서 서양에 지지 않는 과학기술로 식민지화를 막았단다가, 현재의 기술대국 일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江戸時代의 기술덕분이라든가 학생이 놀라는 페이지가 되어 있다. 역사에서 공지를 복돋우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역사교육으로서 고안할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江戸時代의 문화가 크게는 동아시아문화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교육적인 고안을 소홀히 한 記述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 아시아의 국제관계연구와 교과서 기술

扶桑社版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해 일본에서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회풍조, 정치경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써 그 간행을 비판하는 시민운동 혹은 시민적 항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역사학계, 역사교육계, 민주적 출판사의 협력으로 몇 책의 비판적 문헌이 간행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역사학 연구자가 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서 집필에 참가하고 있는 연구자의 책임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연구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그렇게 직접 시민적 정치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자는 더욱더 일보 전진해 역사학 연구의 차원에서 과제를 제기해 나가야만 한다. 나는 여기에서는 오히려 역사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다. 왜냐하면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눈앞의 공방은 정치적이지만 결국은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과제를 멈춘다면 언제까지나 表層的인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거꾸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교과서에는 몇 개의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일본근세사, 江戸時代史를 전공하는 나의 눈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歐美重視, 아시아輕視라는 점이다. 구미중시라는 의미에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敵視觀도 들어 있다. 요컨대 지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감정, 자세이다. 오히려 적대감을 기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인식으로서의 그것도 편성하는 형태로 『農業全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시아로부터의 문화흡수를 무시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나는 현재 일본사연구에 있어서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 거기에 학문적 과제를 찾을 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관해 이제까지 전혀 연구 성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대외교류 혹은 대외관계의 역사적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긴 기간에 걸친 발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 성과가 막힘없이 현재의 역사교

과서가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더듬어 본다. 제2차 대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해외진출·침략의 기세를 배경으로 한 對外史가 번성해 연구 성과도 커다란 것이 있었다. 근세사에서 말하면 江戸初期의 朱印船貿易으로 일본선이 寄港하여 교역을 행하고 일본인이 集住하여 몇 개인가의 「日本町」이 생겼지만, 이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그 즈음의 성과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가 개개 연구자의 흥미는 어찌든 당시의 이른바 「南進論」적 풍조 속에서 활발하게 되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朱印船時代가 끝나면 17세기 30년대부터 일본은 江戸時代 말기까지 장기간 「鎖國」이라는 상태가 계속된다. 이 「鎖國」에 대해서 제2차 대전으로 향하는 1930년대부터 戰時下, 戰後에 걸쳐 일본의 전쟁비판 혹은 우려하는 지식인이 깊은 문제의식을 表白한 시기가 있다. 그들은 「鎖國」이 일본에 가져온 마이너스적인 면을 논했다. 1939년에 쓰여 졌던 한 권의 일본통사가 있지만, 이 통사에는 고대·중세에 일본은 그 나름으로 순조롭게 전개해 왔지만 근세의 「鎖國」에 의해 크게 좌절하고 성장이 저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세계의 움직임에서 자기를 분리하기 위해, 이른바 「島國根性」이 조장되어 그것이 전쟁으로 그져 달리는 토양이 되었다.

「鎖國」은 경제가 요인이 아니라 정치에서 온, 말을 바꾸면 권력자의 橫暴에서 초래되었다고 하는 인식도 이 견해와 짝을 맞추고 있다.

敗戰後 「戰後歷史學」에 있어서 근세사연구 분야는 일본근세사를 총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幕藩體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구조적 특질을 왕성하게 논해왔다. 그 즈음에 이 체제를 특징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兵農分離制·石高制·鎖國制 세 가지가 지적되었다. 兵農分離制라는 것은 「武士」가 江戸나 城下町 등 도시에 살고 농민이 村에 사는, 결국 신분에 의해 거주지가 나뉘는 것이다. 兵農分離制는 江戸時代의 인간도 중세의 일본과 다른 특징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대의 역사학은 이것을 일본적인 특징으로 보고 그런 근거에 대해 논의해 왔다. 石高制는 武士의 知行高나 농민의 所有地 등이 전부 「石」(石斗升勺) 단위로 계량되는 것이다. 이것을 「石高」表示로 부르고 있다. 「鎖國」은 「민족적 아우타르키」즉 국제적인 교환 관계에서 따로 떨어져 일본이라는 규모의 自給的 재생산경제라고 이해되었다.

물론 「鎖國」이라고 해도 네덜란드商船이나 중국 상선이 長崎에 찾아와 거래를 행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1960년대에는 유럽 여러 세력 중에 왜 네덜란드, 정확히는 네덜란드 국가가 아닌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만이 通商상대가 되었는데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생겨났다. 크리스토포 포코를 하지 않은 네덜란드를 일본의 권력자가 지정하고 포르투갈 등 다른 세력은 추방했다는 종래의 설명에 대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선택결정이 아니라, 네덜란드 측이 다른 유럽세력을 무력으로 쫓아버리고 일본 독점권을 획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의 「唐人貿易」은 계속되지만 그 후의 연구에는 초기의 네덜란드무역에서는 네덜란드상선이 중국 상선에서 약탈한 물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도 밝혀져, 요컨대 일본 爲政者의 정치적 恣意라는 이해

를 뛰어 넘는 신선한 견해였지만 그래도 「鎖國」을 유럽을 거부하는 대외관계라는 견해에서 포착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이것은 幕末의 「鎖國」이 구미열강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에서는 아시아에의 시선이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하게 해 왔지만, 「鎖國」論에 대해서는 유럽과의 관계만을 보고 나라를 닫고 있었는지 열고 있었는지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방향이 강해졌다. 어떤 상황에서 「鎖國」의 시대에 들어갔어도 대외적으로 교류·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江戸時代 대외관계를 「4개의 口」이라고 표현하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또 「鎖國」을 「海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연구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4개의 口」란 朝鮮과의 관계에는 對馬, 琉球王府와의 관계에는 薩摩, 아이누사회와의 관계에는 和人地, 네덜란드상인·중국 상인과의 관계에는 長崎 라는 交流·交渉·交易의 창구가 열려있고, 게다가 각각 宗氏(對馬), 島津氏(薩摩), 松前氏(松前), 幕府奉行(長崎)이라는 것 같이 當地의 大名나 幕府直轄役人이 분담하여 상대측과 마주 대하는 국제관계였다.

勘合貿易과 영토적 야심의 조선침략에서 中國船과의 出會貿易을 구하는 朱印船貿易時代로, 그리고 다음의 크리스토프고급지를 이유로 하는 「鎖國」으로, 이러한 대외관계의 변화는 적어도 「鎖國」에 대해서는 이들 4개의 창구에서 異國異域과의 通商·通交의 교류가 행해지는 歴史像으로 크게 변화하고, 각각의 창구에 있어서 관계의 실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조선침략과 연관된 被虜人의 반환, 對馬藩의 조선교섭, 通信使의 왕복, 倭館의 운영, 무역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본사에서 「鎖國」이라고 불리어 온 관계는 실은 동아시아 공통의 국가관리구역인 「海禁」정책인 것이 지적되어 이 용어를 받아들인 연구자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4개의 창구라는 인식은 찬성해도 「鎖國」이라는 견해가 적절한지 트집을 잡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또 일본 江戸時代의 異國異域과의 관계가 上下의 관계성을 가진 것을 들어 日本型 華夷秩序(意識)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이 인식도 歴史書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上下가 아니라 「敵禮」의 관계, 결국 對等성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서 조선의 對馬宗氏에 대한 자세는 羈縻政策, 즉 한 수 아래의 상대에 대한 懷柔政策이라고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근년에는 동아시아세계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교섭·駐留據點을 「居留地」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전체의 관계구조를 보려고 하는 젊은 연구자의 발언도 활발해 진 것 같다.

檢定에 있어서는 이들 연구 성과가 저지된 것은 아니고, 분명한 事實誤認이나 誤記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 뿐이므로 새로운 연구흐름이 교과서기술과 역사교육에 반영되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세사에 관해서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역사교과서도 4개의 창구에 대해 기술해도 「鎖國」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는 국제관계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견해도 생긴

다. 역사교육에서 앞서 서술한 것처럼 사회 측으로부터의 규제, 그 가장 큰 것으로 수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면에서 용어가 규제를 받는 것도 작지 않다. 「鎖國」도 그것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鎖國」이라는 단어는 江戸時代의 정책용어가 아니라 네덜란드商館에 의사로 근무했던 독일인 쾨펠이 17세기 말에 長崎에서 江戸로 향했을 때에 - 네덜란드商館長의 의무인 江戸參府에 수행 - 기록한 여행기 『日本志』를 18세기 말에 일본인 통역이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5. 法文明圈으로서의 동아시아

이렇게 동아시아세계의 상호교류를 교과서에 반영한 것은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것은 시야를 넓혀 동아시아의 인식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교류관계의 융성을 밝히려는 것뿐만 아니라 扶桑社版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같은 아시아 경시의 역사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제사회가 특히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공통분모 위에 있어 각각의 개성을 분자로 성장시키고 있는 것, 요컨대 공통의 토대위에 차이인 것을 역사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근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에는 근현대사야말로 말로 곤란한 역사인식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연구자로서의 발상은 늘 明治이전의 일본사에 관한 것이다.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사 인식에 있어서 아시아 경시는 역사교육, 역사교과서의 다툼의 차원만이 아니라 역사학의 학문의 차원에까지 나아가 검토해야만 하는 극복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경시의 시점은 문제의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은 反戰과 민주화를 지향하고, 가장 양심적인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많은 성과를 내온 이른바 「戰後歴史學」의 體質속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개 연구자의 자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학의 방법의식에 내재해 온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나는 「脫아시아의近世史像」이라 부르고 최근 「脫亞의近世史像에서의 脫却」의 필요에 대해 발언을 시도해 보고 있다. 「脫亞」적이 된 것은 「戰後歴史學」이 패전 후 다다랐던 경위에 의한 것으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자본주의발달사」를 축으로 전근대의 흐름을 「領主制」결국 봉건제, 무사정권의 첫 단계로서 정리하고, 미래의 변혁을 전망하려고 해 왔던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1930년대의 전반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戰後歴史學」이라기보다 오히려 「戰時下·戰後歴史學」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에서는 자본주의사회를 축으로 한 역사발전단계론은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학의 영향이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지녔지만, 제2차 대전 후의 이른바 「근대주의」적인 제 흐름도 「근대」를 자본주의사회로 等値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단계론이라는 점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마르크스주의적 역사학도 「근대주의」 흐름의 하나였던 것으로 세계사의 기본법칙이라는 굳은 견해에 설까 어쩔까에 대한 자세의 강약의 차이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역사인식은 필연적으로 유럽중심사관이라 불리는 입장이 되어 지구상의 다른 지역은 그것과의 거리를 헤아리게 되었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先進이나 後進이나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다.

일본의 「戰後歷史學」그 일환인 「戰後近世史研究」는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脫亞的近世史像」강하게 말하면 유럽기준의 近世史像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발달사를 축에 두는 것에서 일본은 유럽을 닮고, 산업혁명에 이르는 자본주의발달사를 갖지 못한 아시아 제사회와는 다르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유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면 일본이 늦어진 것으로 그것을 「아시아적 특질」론 혹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여 그 면에서는 아시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점에서는 아시아의 「停滯」「늦음」을 학문화해 간다. 동양적 專制主義, 공동체의 強固한 지속, 결과로서의 변혁의 곤란함 등이 아시아적으로 되었던 것의 요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戰後歷史學」의 경우, 방법적 논리적으로 아시아 경시는 되었지만 연구주체에 있어서는 결코 아시아 멸시의 의식에 의해 지탱된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 앞서 대외교류연구의 추이에서 본 것처럼 「戰後近世史研究」인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1980년 이후는 오히려 「現代近世史研究」라고 해도 좋을 동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변용에는 「戰後歷史學」의 이 문제점에 대해 인식이 결여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어 새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근세사를 동아시아의 분모와 분자 관계에 두고 과부족 없이 인식한다는 것은 실은 역사학으로서 쉽지 않다. 그를 위해서는 한편에서 동아시아의 어떤 역사적 요소를 공통분모로 볼까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무언가 사회와 같은, 나로 말한다면, 일본의 근세사회의 어디를 분자적 개성 즉 차이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단순히 아시아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의적인 「아시아주의」를 휘두르는 것이고, 미혹한 공동체의 강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라면 「脫亞的近世史像에서의 脫却」을 목표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통분모를 찾는다고 해도 우선 연구사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도 일본근세사의 視座에서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생산관계·계급관계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연구사는 이 면에서 공통성의 인식을 간단히 허락하지 않는다. 촌락구조라든가 농촌경영을 다루어도 이것도 곧 이질감이라는 지적에 부딪힌다. 정치제도나 국가형태를 다루어도 이것도 중앙권력의 구조나 지방지배 방법 등 차이성이라는 면에 눈이 간다. 의식주나 행사·민속 등 민중사의 영역에서는 어떨까 눈을 돌리면 이것은 현재에 이

르러도, 그러므로 서로 관광여행에서 만나서 즐거웠다고 하는 것 같은 개성, 차이점이 있다.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문화론」의 시각 혹은 영역이 동아시아의 공통분모를 상정하는데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치문화」에는 法制·職制만이 아닌 의식·관념 등 사회적 문화적 기반에 연결되는 요소도 포함하고 싶다.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경계적인 곳은 동심원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러한 정치문화가 생기는 상태를 「法文明」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두고 싶다.

그러한 공통성이 스며들어 있는 공간의 범위를 「동아시아法文明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오랜 기간 言說을 쌓아온 실제일까 의식일까 하는 것도 확인하기 어려운 듯한 「古典 古代的 中國文明」에 淵源하여 각각의 땅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물들어 또 새로운 小地域文化圈을 만들어내면서 팽창해 간, 그러나 무한하지는 않은, 영향의 말단이 보이는 문명 권역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사적 요소로서 상식이나 연구사를 근거로 서둘러 출발점으로 해서 몇 가지 내용을 들 수 있다. 그것들은 근세, 江戸時代에 한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일본근세사연구자의 눈에 띄는 점들이다. 몇 가지 들어 본다. ① 한자와 지역의 문자를 混交併用한 의사전달. 의사전달의 방법도 정치문화를 지탱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② 불교 유교 도교라는 보편적 토속적 초월관념. 특히 「天」의 관념은 차이성을 가지면서도 공유된 초월관념이다. ③ 仁政德治의 儒教核政道論. 「君主制의 민주주의」라고도 부를만한 爲政者의 中核개념으로 동아시아 제사회에서는 이것이 治者 被治者 사이에 공유되어 어떤 종류의 「합의」를 형성해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합의」란 입장이 다른 사이에서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의미로, 항상 파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④ 국가와 마주하는 「백성」이라는 「公民」신분의 설정. 왕조국가의 형태는 달랐어도 그것과 마주하는 전 근대적인 「국민」혹은 「國家(君主)의 民」으로서의 公民을 「백성」신분으로 두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아시아 제사회의 공통분모라고 생각한다. 江戸 시대에는 職人·商人이라는 「町人」신분이 존재했지만 이것도 「土農工商」사민이라는 존재의 공통성·차이성으로서 논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⑤ 「均」을 목표로 하는 평등주의적 백성 「安民」論. 平均·均田·均産·均分 등으로도 말해 지배에도, 저항운동에도 슬로건이 되었던 것은 「安民」을 이상으로 하는 爲政者와 들어맞는 공통성 있는 정치문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등론은 군주나 지배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제가 아닌 군주제라는 기본에서의 정치문화의 요소이다. ⑥ 土農工商의 「良民」과 峻別되었던 「賤民」신분의 설정. 「均」의 평등주의와 「良賤」의 사회관계를 병존시키고 있는 것, 즉 「公民」사회의 底邊·周緣에 「非公民」사회를 구조화시키고 있는 것, 동아시아의 정치문화로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⑦ 太平無事の 平和論. 尊卑 上下 良賤의 인간존재를 天下에 있어서 國家(君主)가 태평무사를 약속하는 것,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이고 그것이 이행될 수 없다면 威信이 무너지, 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이다. ⑧ 華夷事大·敵禮를 조명한 신분제적 국제관계론. 「敵禮」적 관계도 화이관계와 조합되어 있는 한 신분제적 관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앞서 「均」의 평등주의도, 이것과 같은 의미에서 신분제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관계의 신분제적

구조와 사회내부의 평균주의를 포함한 신분제구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흥미 깊은 점이다. 이른바 웨스턴 임팩트의 「万国公法」적 국제관계와 동아시아의 신분제적 국제관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충돌했을지는 「近代移行」의 성격을 살피는데 빠질 수 없는 논점이지만 나는 이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이외에도 2, 3 살펴볼 것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들어도 일본의 江戸時代에는 과거제에 의해 지배를 담당할 관료가 등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큰 차이를 무시하고 동아시아法文明圈이라고 해 봐도 空疎는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본사학계에서는 이 점이야말로 동아시아와 일본사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영주제의 발전을 중세·근세로 보고, 그것을 유럽사에 비견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근년 중세사 연구에 있어서도 武士, 領主制, 武家政權 등의 再考論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근세사 연구에 있어서도 실은 1970년대부터 근세관료제론이 제기되어, 이렇다 할 반론도 없는 채 따르고 있다. 영주제는 위 속에 가득 찰 때까지 農奴로부터 수탈한다는 이미지가 원점이어서 組織·法制에 의한 관료제지배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근세사연구 분야에서 지금도 관료제론에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는 것은 江戸時代の 무사를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實態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거, 官僚選舉試驗이 있었는가 어떤가가 아니라 爲政者를 供出하는 사회기반을 근거로 중국의 鄉紳官僚制, 조선의 兩班官僚制, 일본의 武士官僚制라는 것으로 이해하여, 동아시아法文明圈의 적어도 일본의 江戸時代단계를 이해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論을 전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모색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脫亞의近世史像에서의 脱却」을 생각하는 시도에 몰두해 가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교과서의 適正한 기술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注記 1.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학습지도요령」은 중학교가 1998년 告示, 고등학교가 1999년 告示된 것으로 그 후 한번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만간 신규의 「신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될 움직임이지만 내용은 분명하지 않고, 교과서 출판사는 매일 긴장하고 있는 단계이다.

注記 2.

扶桑社版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문헌으로는 安丸良夫ほか編『歴史教科書徹底検証 Q&A何が問題か』(岩波書店, 2001)·歴史學研究會編『歴史研究の現在と教科書問題 - 「つくる會」教科書を問う』(青木書店, 2005)·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會編『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青木書店, 2007) 등이 간행되었다.

注記 3.

報告者は 이제까지 이하의 논고에서 동아시아法文明圈論에 관련하는 발언을 했다. 어느 것도 着想을 皮력하기도 하고 試論적으로 논한 것으로 깊은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 「近世國家における藩權力の位置」(『九州史學』141, 2005. 6)
- 「近世日本における政治習俗と信仰習俗」(『アジア地域文化エンハンシング研究センター報告集2004年度』, 2005. 3)
- 「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移行期の君主・神觀念-救済と平等への待望シンボルについて-」(『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シンポジウム報告集-近代移行期の東アジア-政治文化の變容と形成-』, 2005. 12)
- 「東アジア法文明と圈教論支配-近世日本を中心に」(早稻田大學アジア地域文化エンハンシング研究センター編『アジア地域文化學の發展』雄山閣, 2006. 11)
- 「現代」を背負う近世史像(『日本史研究』526, 2006. 6)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동아시아」의 토론문

신주백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토론자는 토론문에 없는 내용도 토론문을 읽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 형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일본근세사를 전공하면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발표문도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처지를 적절히 반영하여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제일 먼저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국가의 규제와 '상품'으로 취급하는 출판사의 규제 그리고 각종 단체의 시선이 교과서 집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후소사관 역사교과서의 친미적이고 아시아 멸시적인 역사관의 실체를 발표하였다. 네 번째는 '쇄국' 속에서 일본의 대외관계를 연구사적인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풀어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동아시아 범문명권'이란 용어를 만들어 '정치문화론'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발표자는 자신의 이와 같은 작업이 '탈아적 근세사상으로부터 탈각'하는 일환이라고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발표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론자도 특정한 논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우선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역사' 교과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보다 일본사 교과서화하고 있다고 발표자는 밝혔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보조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 출판사 편집부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지 출판사와 필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은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를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교과서 이외의 어떤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지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선행 경험을 참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작년과 올해 일본의 고교에서는 세계사 수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발각되어 큰 사회문제로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학입시와 무관한 상태에서 50시간가량 배우는 과목 자체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습니다만, 일본정부와 교사단체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발표문에 따르면 고교 역사과에서 일본사 수업을 필수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 중고교 역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아시아사 교육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논의가 있었다면 그 결론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동아시아사 과목 설정과 교육에 대해 혹시 일본에서 논의된 적이 있거나, 주변 연구자들의 반응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분량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대외관계사와 이슬람에 관한 서술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발표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이슬람사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역사에 관한 서술을 확대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교과서 편찬에서 극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의 학계에서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만남을 어느 때로 설정하고 있는 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논의 동향을 아시는 대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동아시아의 교류관계에 관한 일본내 연구의 변화과정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거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체 교류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전에도 거류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본형 화이질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문제의식은 이해하겠으나 '동아시아 범문명권'이란 용어와 접근이 당시 역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막연히 드는 생각이지만, 정치문화론의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공통분모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물질 토대가 빈약한 문화론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오히려 동아시아 역내의 활발한 교류와 공통분모 찾기가 유럽중심사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토론자도 적극 동의하지만,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를 보아야 유럽중심사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본-지역-세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주제

개혁과 변화
- 대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발표_ 林麗月(臺灣國立師範大歷史研究所 교수)

>>토론_ 이화승(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개혁과 변화-대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林麗月 (臺灣國立師範大學歷史研究所 교수)

1. 서론
2. 민족정신함양에서 기본능력 배양
- 대만 중등교과서 교육목표의 변천
3. 國編本 중등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
4. 審定本 중등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
5. 國編本에서 審定本으로 : 한국사 서술의 몇가지 관점
6. 결론

〈내용개요〉

1945년,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각급학교 교육역시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 교육은《일본역사》에서《국사》로 바뀌었지만, 주당 수업시간은 오히려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후 1950년 6월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1952년 12월 《각급학교 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당시 “反共抗俄(공산당을 반대하고 러시아에 대항하자)”라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표준중학과정》을 반포하고 역사는 국어, 지리, 윤리등과 같이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에따라 國立編譯館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를 출판하였으며 이 교과서가 이후 반세기동안 사용되었다.

1980년 이후 자유화, 민주화 추세에 더불어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우선 교재에 대한 불만이 등

장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1989년부터 중학교재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오랜 논의를 거쳐 1999년부터 각급학교가 스스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國立編譯館은 더 이상 교과서 출판을 하지 않고 단지 심사만 하였다. 이후 대만의 역사과는 지리, 윤리 등과 합병하여《사회영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에 관한 서술은 주로 일본에 집중되고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역사는 대단히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직 중국과 관련된 소수의 부분만 대략 소개되어 있을 뿐 자세하고 다양한 서술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한국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서 대만의 동북아 각국 역사서술에 대한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1. 서론

1945년,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각급 학교 교육도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 교육은《일본역사》에서《국사》로 과목명이 바뀌었지만, 주당 수업시간은 오히려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후 1950년 6월 교육부는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戡亂建國教育實施要綱》을 반포하였고, 1952년 12월에는《대만성 각급학교 민족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당시 “反共抗俄(공산당을 반대하고 러시아에 대항하자)”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표준중학과정》이 제정되었으며 역사는 국어, 지리, 윤리등과 같이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중등교과서는 국립편역관(國立編譯館)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이 교과서가 이후 반세기동안 사용되었다.

1980년 이후 사회가 개방되고 자유화, 민주화 추세에 더불어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드높자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통일 교재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교육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1989년부터 중등 교과서를 심정보(검인정)으로 개편하였고, 오랜 논의를 거쳐 1999년부터 각 학교가 스스로 역사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편역관은 더 이상 교과서 출판을 하지 않고 단지 심사만 담당하였다.

대만의 교육 개혁중 교과서 편찬제도를 전국 국편본에서 심정보로 바꾼 것 이외에 중학의 역사과는 2000년부터 실시된《9개년 사회학습영역과정 임시 요강》에 따라 지리, 윤리등과 합병하여《사회학습영역》으

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만의 역사 교육목표와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등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관련 부분의 고찰을 통해 대만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주변국가의 역사 서술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의미로부터 동북아 역사교육변화의 일면을 살펴보고 저 한다.

2. 민족정신 함양에서 기본능력배양: 대만 중등교과서 교육목표의 변천

중화민국초기부터 역사교육은 중국민족의 정신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대만으로 옮긴이후 이 전통은 그대로 계승되어 역사교육의 목표는《나라 사랑, 민족정신 고취》였다. 1962년 교육부가 반포한《역사과 표준과정 실시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역사교육의 목표를 명시하였다.

중화민족의 충정대의, 찬란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중외관계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국 애족의 정신을 함양한다.¹⁾

이 교육목표는 그 정신이나 문자에 배어나는 표현에서 1948년 대륙에서 반포한 교과과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²⁾ 이후 1971,1983,1995,2006년에 교과과정 변화가 있었는데 1971년부터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사라지고 역사지식과 사실과의 인과관계, 그 영향등이 강조되었다.

중등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대의 변화, 문화 발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가지게 하여 주요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외에 사실의 원인과 여러 가지 요인의 상관관계를 알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³⁾

1983년 개정은 역사교육이 학생들에게「연대, 인명, 지명등의 단순한 암기과목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의 전후, 경중, 크고 작음과 인과관계, 영향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성격이 유사한 중외사실을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시대 변화, 문화 발전 및 중외 역사발전의 유사성과 다름을 인식시켜 과거로부터 미래를 알고 주변을 돌아다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⁴⁾ 교재편찬에서도 4조 7항에서 이를 분명히 하였다:

국사 편찬은 현대사와 사회경제사 비중을 늘리고 상고사, 정치사의 비중을 줄인다. 근대 세계사부분은 유럽과 아시아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서술한다.⁵⁾

전체적으로 볼 때 1980년대는 중등역사 교육의 목표가 역사적 사실관계의 전후 인식을 중시하고 또 특히 중.외관계에서의 비교와 관통능력을 강조하여 이전의 애국애족 정신교육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계엄이 해제되고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1995년 수정된《중학표준과정》은 총론에서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민주정치에서의 준법소양과 대화, 표현능력등의 증진」등이 추가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 (1)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역사경험을 흡수하여 인문적 소양을 증진시킨다.
- (2) 학생들이 역사지식을 이해하도록 하여 역사변화가 시대에 미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분석능력을 강화한다.
- (3) 나와 단체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여 사회, 민족, 국가에 대한 동질성과 책임을 느끼게 한다.
- (4) 넓은 마음과 세계관을 함양하도록 하여 개방된 시각으로 세계 역사속에서의 중국 역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⁶⁾

이번 교과과정 수정은 1983년과 비교하여 인식, 정서, 기능면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역사교육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사유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에 중시하던 민족문화, 문화수양등 부분은 삭제되었다.⁷⁾

이러한 추세는 1996년 수정에서도 계속되어 「현대사와 사회경제사의 비중을 늘리고 상고사, 정치사 비중은 줄었으며, 「학생들의 판단능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비교분석을 가능하게」하였다. 또 교사들이 수업에서 「역사적 사실의 연관성을 통해 현대 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같은 상황에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⁸⁾ 이는 교과서편찬의 취사선택에 있어 정치적 서술은 줄이고 사회사, 경제사의 비중을 늘린다는 구체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이다.⁹⁾

1) 教育部中等教育司,《修訂中學公民、國文、歷史、地理課程標準》,臺北,正中書局化,1962.

2) 教育部《修訂中學課程標準》,南京,民生印書館,1948; 教育部中等教育司,《修訂中學公民、國文、歷史、地理課程標準》,臺北,教育與文化社,1952.

3) 教育部中等教育司,《高級中學課程標準》,臺北,正中書局化,1971.

4) 教育部中等教育司,《高級中學課程標準》,臺北,正中書局化,1983.

5) 教育部中等教育司,《高級中學課程標準》,臺北,正中書局化,1983.

6) 教育部中等教育司,《高級中學課程標準》,臺北,教育部,1996.

7) 陳盈穎「臺灣地區五十年來高中中國史歷史課程的演變與中國史教科書的編輯」,臺北,臺灣國立師範大學校碩士論文,2005.

8) 教育部高級中學課程標準編輯審查小組,《高級中學課程標準》,臺北,教育部,1996.

9) 教育部高級中學課程標準編輯審查小組,《高級中學課程標準》,臺北,教育部,1996.

교육부는 2001년 「普通高級中學課程發展委員會」를 조직하여 중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초등-중등의 9년 동안 일관된 과정을 유지하여 바로 대학의 교양과목과 연결시키도록 하고, 또 수업시간이 과중하게 많다는 등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교과과정을 수정하였다. 2005년 1월 「임시요강」에서는 2006년 9월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 (1) 역사학 연구방법을 배양하여 역사문제의 학습을 통해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 (2) 학생들에게 자기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도록 하여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 (3) 학생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한다
- (4)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생활을 충실히 한다.

이「임시요강」은 역사교육을 통해 사유능력과 연구방법을 향상시키므로써 역사학이 가진 “핵심능력”의 배양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 핵심능력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1) 시간관념

- ① 각종 시간을 묘사하는 서술을 통해 주요한 역사 구분단계를 인식
- ②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통해 시대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현재와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2) 역사이해

- ① 역사 내용과 의의를 통해 사실을 파악
- ② 역사사건에 실제로 자신을 대입해본다
- ③ 역사 맥락에서 중요성과 의의를 따져본다

(3) 역사해석

- ① 서로 다른 역사해석을 비교하고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 ② 역사학의 인과관계로부터 원인과 영향을 해석한다

(4) 사료

- ① 사고를 통해 사료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한다
- ②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사료수집을 해본다
- ③ 사료를 운용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거나 자신만의 역사서술을 시도해본다.

10) 자세한 내용은 www.lcvs.kh.edu.tw/html/科部網頁/高中部/history/歷史網站을 참조할 것.

이와같이 40여년에 걸친 수차례의《중학표준과정》의 수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1940년대-1970년대까지로 역사교육이 애국애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1990년대까지로 역사지식과 그 인과관계, 영향력등 개념의 정확한 인식, 중외관계 사실의 비교와 관통을 중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이후로 역사학 지식과 인문적 소양의 함양을 중시하여 역사학의 핵심능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라는 점이다.

3. 국편본 중등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

1952년부터 1999년까지 대만 중등 역사교과서는 국립편역관에서 통일 제작하여 전국에 일괄 공급하였는데 이를《國編本》(혹은 統編本)이라 하였다.

한국사 내용은 주로《중한관계》로 표현되었다. 주대 초기 은의 종실인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였고 한무제때 사군을 설치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征韓”과 근대의 “藩屬關係” 등 정치외교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68년에 편찬된 역사교과서중 한국사부분은 1권 11장《魏晉南北朝分裂-三國鼎立》에 처음 등장하였다.

조조가 흉노를 정벌하고 그 무리를 오부(五部)로 나누어 병주(并州)에 머물게 하고 추장을 우두머리에 봉하였다. 다시 조환(烏桓)을 정벌하여 그 우두머리를 참하자 무리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요동의 공손도(公孫度)가 고구려를 정벌하여 위세를 해외에 떨쳤다. 사마의는 그 손자인 공손연(公孫淵)을 토벌하여(238) 한의 땅을 회복하였다. 그 후 유주자사 모구검(毋丘儉)이 두 차례 고구려를 정벌하여 도성을 공격하였다. 위나라 병사들이 바로 동해까지 세력이 미쳐 서한시대의 영토를 초월하였다.

같은 책 14장《隋唐的對外發展》중 3절은〈朝鮮的平服與日本的通使〉으로 수양제의 세 차례 고려정복을 서술하고 있다.

남북조때 조선반도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으로 나뉘었으며 모두 남조와 왕래하였다. 그중 고구려가 가장 강하여 수시로 침범하여 요동을 차지하였다.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려는 중국 반란자들을 유혹하여 변경을 소란케하고 돌궐과 사통하여 요동의 서쪽을 괴롭히자 문제가 나섰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양제 대업 8년(612) 친히 군사를 일으켜 요동성을 오랫동안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바닷길로 평양을 공격한 수군은 초반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패퇴하였다. 육군은 압록강을 건넜지만 살수에서 대패하였다. 다음해, 양제는 두 번째 원정에 나서 요동성 공략

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후방을 담당하는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켜 돌아오고 말았다. 대업 10년 세 번째 원정에 나서자 고려는 국력이 쇠약해져 항복을 청해왔다.

이 절의 다른 소제목인〈朝鮮의平服〉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당초 고려는 입공하여 작위를 수여받았다. 태종때 권신 연개소문이 군주를 살해하고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정관18년(644) 태종이 육군과 수군을 거느리고 원정에 나섰지만 요동의 안시성을 공략하지 못한 채 양식이 다하여 돌아오고 말았다. 고종은 전략을 바꾸어 현경 5년(660) 소정방(蘇定方), 유인궤(劉仁軌)를 산동반도의 성산에서 수군으로 백제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용삭 3년(663) 일본이 수군을 파견하여 백제를 구원하자 유인궤는 백강(금강) 입구에서 왜선 400척을 불사르며 대파하였다. 이는 대일전쟁에서 거둔 큰 승리였고 이후 백제는 복속하였다.

2권 18장《蒙古의蹶起與元代的興亡》중 1절〈蒙古의蹶起及其南侵西征〉중 “조선항복” 부분에서는:

동쪽의 조선반도는 당대 중엽 신라가 통일하였다가, 오대 초기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였다. 그 후 요, 금에게 복속하였고 송에게도 입공하였다. 몽고가 동북을 점령하고 와활태(窩闊台)부터 몽가(蒙哥)까지 정벌을 시도하자 고려는 완전히 항복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사항은 교과서에서 고대 조선의 전쟁에 대한 서술은 누차 “토벌”, “평복”, “항복” 등 용어를 사용하므로 서 이 시기의 의식이 전통적인 중국 중심 천하관과 민족주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1998년 개편된 교과서 1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7장《秦漢疆域의開拓》중 3절〈西南東北與南海의開發〉중 “朝鮮의平定與倭奴入貢” 부분에서

주초 은 종실 기자를 조선에 봉하므로 서 일찍부터 관계를 맺어왔다. 전국시기 조선은 연(燕)에 복속하였다. 진말(秦末), 중원이 혼란스럽자 연, 제(齊), 조(趙)나라 사람 수 만명이 난을 피해 피난을 갔다. 한대 초기,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천 여명을 거느리고 패수(淸川江)를 건너 조선왕 기준(箕準)을 공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여전히 한에 복속하였다. 그 손자 위우거(衛右渠)에 이르러 주변 소국들이 한에 입공하는 것을 막고 요동을 수시로 침공하였다. 원봉 2년, 무제는 조선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여 다음해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 사군을 설치하고 조선반도 북부를 지배하였다. 반도 남부에는 마한, 병한, 진한등 삼한이 있었으나 역시 중국에 복속하였다.

2권 13장《隋唐의對外發展》중 1절〈隋唐의對外經略〉중 “동방경략”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수대에 반도에는 고려, 신라, 백제 삼국이 있었는데 고려가 가장 강대하였다. 고려는 요동을 점령하고 요서에까지 수시로 침공해왔다. 문제가 토벌에 나섰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양제가 세차례 군사를 일으키자 고려는 항복하였지만 끝내 입공하지는 않았다.

당초, 고려는 입공하여 작위를 수여받았다. 태종때 고려가 신라를 침략하자 태종이 군사를 일으켰으나 추운 날씨와 식량부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고종은 전술을 바꾸어 소정방으로 하여금 바다로 고려와 백제를 공략하도록 하였다.....

한국사에 관한 내용은 상술한 고대사부분이외에 중국문화가 조선,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도 있다. 2절〈隋唐의中外交流〉중:

당대 중국문화는 주변국가로 전파되었는데 조선반도와 일본에 가장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민족은 원래 화하(華夏)민족과 관계가 있어 한화(漢化)가 더욱 깊었다. 수.당때 수차례 군사를 일으켜 부주(府州)를 설치하여 영향은 더욱 깊었다. 고려, 백제와 신라는 모두 유학생을 장안에 보내 공부를 시켰다. 그중 신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당의 의복, 년력을 사용하고 한자를 모방하자 “군자국(君子國)”이라 칭하였다.

교과서에서는 “한화”라는 표현으로 고대 중국이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가와 소수민족과의 정치외교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역시 중국 중심의 주체의식과 역사해석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4. 심정본 중등교과서에 서술된 한국관련 내용

1999년부터 대만의 중등교과서는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일반 출판사에서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었다. 즉 각 출판사는 전문 학자와 교사들을 초빙하여 교육부에서 정해진 표준과정에 따라 교재를 만들고 국립편역관의 심의를 거쳐 출판하였는데 이를 《審定本》이라 하였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어 역사교과서는 점차 다원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분량으로 보자면 심정본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은 상당히 감소하여 과거 국편본에서 언급한 중한정치관계사 내용은 많은 심정본중 단 2종류에서만 제기되었고 내용도 수당이전 및 갑오전쟁 전의 중한관계 배경서술에 그쳤다. 남일 서국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 상권 7장 2절중〈國史上與朝鮮的關係〉에서는:

삼국양진남북조(三國兩晉南北朝)때 조선반도에는 신라, 백제, 고려가 출현하였고 북쪽에 위치한 고려가 가장 강대하였다.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려는 말갈부족을 이끌고 요서에 침입하였다. 문제가 노하여 토벌을 명하자 고려왕은 사절을 보내 사죄하였다. 수양제는 한대 요동의 옛 땅을 수복하려고 세 차례나 군사를 일으켰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¹¹⁾

또 다른 판본에서는《隋唐文化對東亞的影向》중 중국문화가 조선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선반도는 은상말기 기자가 개척하였다고 전해져 중국과는 오랜문화교류가 있었다. 한무제때 북부지역에 낙랑, 임둔, 현도, 진번 사군을 설치하여 중국 범주에 편입시켰다. 수. 당시기, 조선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분할되었고 당대에 고려를 평정한 후 그곳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자 조선 북부는 다시 중국 범주에 편입되었다. 훗날 신라가 강대해져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신라는 국가체제에서 대부분 당을 모방하여 이름과 연호등에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과거와 국학을 운영하였으며 수시로 젊은이들과 대신을 중국에 보내 중국 의복과 문물을 익히도록 하였다. 정치제도에서도 신라는 재상부를 “집사부(執事府)”라 하고 밑에 육부를 두어 중국과 흡사하였다; 사회풍속에서도 조선반도의 혼례와 상례(婚喪), 농경등이 모두 중국과 같아 고려에는 “부모상 3년”이라는 관습이 있었다. 종교에서는 중국의 대승불교가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의 유명한 승려인 원광화상이 수 대때 장안에 와서 40여년을 머물다 돌아가 조선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¹²⁾

결국 심정본에서는 중한관계에 대한 내용은 많이 줄었지만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표현에서도 “경략”, “항복” 등의 단어가 사라졌으며 조선을 “정벌”했다는 내용도 거의 삭제하고 당대이전 부분만 남겨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교재가 “중국사”의 입장에서 점차 “세계사” 적으로 시각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삼민출판사는 《세계역사문화편》7장 2절〈동아문화권〉의 형성과정에서 서술하기를:

11) 《高中歷史》上册, 臺南, 南一書局, 2005년 8월.
12) 《高中歷史》上册, 臺中, 康熙圖書公司, 2004년 8월.

한국, 즉 고대 조선은 전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한자를 도입하는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문화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372년 고구려는 중국을 모방하여 태학을 설립하였다. 율령에서도 당률과 명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19세기 후반 한국이 서양과 일본을 배우기 시작하며 도전을 받게 되었다.¹³⁾

이 교재는 3년 후 이 부분 뒤에 중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중화문화의 영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남한의 국기는 중화문화의 태극과 팔괘를 운용하여 음양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징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불교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안식처를 제공해주었다.¹⁴⁾

이외에도 남일, 삼민, 용등출판사에서 출판한《세계문화역사편》에는 “한국전쟁”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근대세계질서를 새롭게 정리하다〉라는 부분에 배치하거나,〈근대사회와 문화의 변천〉, 혹은〈현대화 이론과 실제〉라는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분량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한국 역사를 보는데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추세로 전환하는 진일보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편본에서 심정본으로: 한국사 서술의 몇가지 관점

국역본에서 심정본까지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정치외교사적인 내용의 감소

국편본에서는 한국사의 주된 내용은 중한관계사였는데 심정본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당대이전과 갑오전쟁 전으로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동아문화권형성과 중일 갑오전쟁이라는 배경하에서 서술되고 분량 또한 대폭 축소되었다.

13) 《世界文化歷史篇》下册, 臺北, 三民書局, 83쪽, 2003년 2월.
14) 《世界文化歷史篇》下册, 臺北, 三民書局, 89쪽, 2006년 2월.

(2) 항일부분의 삭제

국편본에서는 한국사의 내용이 비록 중한관계사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고 4권《세계사》에서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정책에 대한 저항, 삼일운동등을 소개하였었다. 그러나 심정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거의 생략되었다.

(3) 문화교류내용의 증가

전체적으로 심정본에서는 한국에 관한 내용은 축소되고 사회경제사부분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최근 10여년간 역사교과서에서 정치사가 줄어들고 중국사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사나 세계사를 막론하고 문화교류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세계사에서 불교의 조선과 일본 전파에 관한 부분은 과거 수십 년동안 대만 교과서에서 없었던 중요한 변화였다.

(4) 중국 중심 역사관의 희석

국편본에서 고대조선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누차 사용되던 “토벌”, “평복”, “경략” 등 단어와 중국문화가 조선과 일본등에 미친 영향을 설명시 주로 이용하던 “한화” 등은 중국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 천하관과 민족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심정본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미 이러한 단어들을 찾아 볼 수 없고 중국이 “조선을 정복” 했다는 내용도 대부분 삭제되고 당 이전부분만 남아 있다. 게다가 “문화권”, “조선과의 관계”, “조선에 미친 영향” 등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들로 양국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대만학계가 문화의 다원화를 중시한다는 표현인 동시에 대만의 주체의식이 역사서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6. 결 론

최근 10여년동안 대만의 중등 역사교육은 표준과정을 수차례 수정하면서 교육목표가 1950년이래 민족정신함양이라는 전통 목표에서 역사학의 핵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역사교과서도 국편본에서 심정본으로 바뀌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역사교육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데 과거 중국 중심관이라는 우월적 자세를 탈피하여 주변국가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려는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교육개혁이 보여주는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용의 소개에 있어 부족하다는 점을 지울 수 없다. 그 원인은 대만의 대학 역사교육이 오랫동안 “아시아 역사”에 대해 소홀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전문적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현재 대만 각 대학 역사학과에서는 간혹 “동남아시아”가 눈에 띄지만 아직도 “아시아 역사”에 대한 과목이

매우 부족하다. 설사 있다 해도 주로 “일본사”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대학과 문화대학 한국어학과에 “한국사”가 있고 사범대학 역사연구소에 “중일한관계사연구”라는 강의가 개설되었을 뿐 다른 대학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나날이 증시되는 국제화의 거센 파도속에서 오직 역사학계에서만 이에 대한 맹점을 노출하고 있다.

“변화”가 꼭 “개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각국의 역사 주체 의식의 각성은 증시되고 역사교육이 현대 시민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더 증시될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 역사에 대한 역사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만 각 대학 역사과는 서둘러 강의를 개설하고 인재를 육성해야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10년동안 수행해온 개혁 정신에 맞는 진정한 실천일 것이다.

「개혁과 변화-대만 역사교과서속의 한국사」에 대한 토론문

이화승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林麗月교수의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느껴 가르침을 받고져 합니다.

첫째, 대만의 중등 역사교과서의 외국사 서술은 우선 양적으로 볼때 세계적으로는 유럽사 위주이고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도 일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등 한반도와의 관계가 훨씬 깊고 넓은데 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줄어들지는 것인지, 혹 어떤 정책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학술적 편향도와 관계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대만에서는 대만사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할텐데 갈수록 주변국가와의 관계사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둘째,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일본의 오랜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역사적인 과제”를 느끼고 있는것과는 달리 대만은 의식이나 정서면에서 대단히 친일본적인 면이 많은데 이것이 역사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째, 지금 대만에도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이미 대만에 상당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현 교과서를 통한 젊은이들이 이러한 한일문화에 대해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제5주제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 고등 교육의 사회 · 정치적 오리엔테이션

>>발표_ G. A. 트카초바(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원)
>>토론_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 교육의 사회·정치적 오리엔테이션

G.A. 트카초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역사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원)

〈내용개요〉

역사적 발전 속에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아태지역의 국가와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고등 전문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주제는 다양한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데 본 발표물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연구 대상이 된다.

고등 교육 기관들은 인문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따라서 4개의 기초 인문학적 과목을 선택한다. 수업 시간의 총 시간 수는 제한되어 있다. 전체 60-150시간 중에서 39-90 시간은 사학 강의인데, 18-36시간은 문화학과 세계문화사 시간이고 40-60시간은 특강과 자습 시간으로 되어 있다.

모든 과목은 합치면 여러 수준에 맞게 전세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러시아 역사와 문화, 러시아 역사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사를 소개한다. 대부분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를 다룰 때 러시아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민족들의 주된 신화와 여러 종교를 소개한다. 러시아 극동의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 문화의 특징과 동양 예술의 특징(서예, 시와 미술의 종합), 동양 극장, 일상 생활, 그리고 동양 나라에서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전문적 자료는 해양 지리학,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의 사회·정치적 조건, 그리고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의 자연 지리학적 특징, 경제지리학적 묘사, 외교 정책과 내부 정책의 상호 의존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비 상황을 살펴본

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론적 및 교육론적 기준에 따라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리·정치적인 특징은 거의 감안하지 않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10월에 3개의기술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 결과로써 학생의 41%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중국을 관광객으로 방문한 것이 67%나 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방문한 적 있는 학생은 11.2%이며, 북한은 딱1명이지만 4번 방문했다는 사실도 살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제일 많이 가지 않는 국가라고 파악되었으며, 그 이유는 충분한 정보 부족, 비자 문제, 한국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라고 대답했다.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TV를 지적한 사람의 수는 24%, 잡지 13%, 신문 12%, 라디오 9% 순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학생들의 18% 정도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대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얻게 되고, 친구로부터 14%, 부모를 통해서 10% 정도 등의 순으로 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러·중, 러·일 및 한·러 교육원에 대해서 10명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교육원이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웃 나라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70-80%, 《다소 부족하다》10-15%, 《만족스럽다》5%, 《충분하다》- 한두 명 밖에 없었다. 제일 많이 아는 분야는 일본 문화와 풍습, 중국 경제 및 동아시아 정치상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 그리고 영화 배우나 유명한 가수를 어느 정도 말할 수는 있지만 미술이나 예술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셈이다.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은 일본의 경제 발달(53%), 중국 군사력(45%) 및 일본 군사력 (33%), 일본의 문화와 풍속(44%) 및 중국 문화와 풍속(29%)이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이 두 나라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충분하게 개방되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너무 좋다》(63%), 정치적인 관계는 《만족》(51%)이라고 대답 하였고, 일본은 경제적인 면(48%) 및 정치적인 면 (54%)은 《만족》이라고 대답했다. 대한민국이나 북한과 현재 들어서 있는 관계는 《불만족》이라는 입장(한국 68-71%, 북한 61-62%)을 많이 보여주었다.

23%는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에 25%는 일본인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학생수는 55%였다. 중국 사람과 절대 안 하겠다는 응답자의 수는 64%고 북한 사람과도 58%가 같은 대답을 하였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의 수는 22-24%이다.

젊은이들은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차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상대방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 전문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

오늘날 러시아 사회는 깊은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각 사회와 전체적인 문명 사회의 변화는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와 세계 공동체와의 통합 그리고 2003년에 러시아의 블로냐 선언 조인 이후 유효한 교육 과정의 발달은 더욱 더 중요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까지의 러시아 교육의 혁신에 대한 개념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 중의 하나이다. 《교육에 관하여》라는 러시아 연방 법은 각각의 교육 단계가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육에 관한 요망까지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 법률이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있어서 교육의 문제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의 질은 국가의 교육 제도, 교육 기관과 전문가의 경쟁력을 정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발전 가운데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이 극히 세부적으로 전문화 되어 있다. 이것은 고등전문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해주에만 세 개의 큰 국립교육대학교에서 항법을 가르친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의 정보 기술 팽창은 러시아 극동 지역 사람의 이중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러시아 사회가 장기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사회, 경제, 교육 등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고등 교육의 사회 정치적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연구 문헌 가운데는 러시아도 없고 외국도 없다. 그러나 사회의 계층화와 그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 문제들이 우려할 만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수정이 크게 필요하다. 본 주제는 다양한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데, 이 발표문에서는 Far Eastern Fishery Technical Institute, National Naval University named by Nevelsky G. I.와 태평양 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연구 대상이 된다.

인문학은 가장 복잡하고 모순적인 교육 분야이다. 여기서 역사학, 문화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과목은 학생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키고 역사를 배우면서 분석하기 등의 자유를 주며,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과 생활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실행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인문학적 지식은 개인이 하나의 국가나 지역의 대표인 것을 인식하는 일뿐만 아니라 관대성, 상상력의 발달과 시민의식을 형성시키고, 편견을 버리게 하며 다른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진 민족들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바탕이 된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 국립, 시립, 사립 교육기관이 모두 동일한 교육 표준을 따라야 한다. 구 소련 시절에는 교육에 있어서 형식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선형 방법(linear system)이 있었다. 이론 방법은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역사주의를 따르면서 반복하지 않게 해

준다. 이는 교재를 선택하고 교육 과정에 변화를 주면서 개념을 설명하고, 인과 관계를 보여 주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뚜렷하고 생생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은 맑스주의가 주된 이데올로기였던 상황에서는 큰 단점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중심적인 방법을 따르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 교육기관에 있어서 사학과 사회 과학 과목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라는 교육부의 결의서 N. 24/1은 1994년 12월 28일에 공표되었다. 이는 교육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똑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러시아 역사와 세계의 역사라는 두 가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선형(linear) 코스를 포함한다. 5학년부부터 9학년까지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그리고 현대사를(합쳐서 400시간) 가르치고 있고, 10학년부부터 11학년까지 세계사와 러시아사를(150-250 시간) 가르친다. 이 코스는 전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민족들의 과학적, 문화적 진보에 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특히 주목을 끄는 문제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의 변화, 진보의 근원과 움직이는 힘, 당국과 인민의 상호 관계, 오늘날 전 세계의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다.

러시아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고, 역사학 수업을 위해 마련된 수업 시간의 60%-70% 된다. 러시아 교육부는 역사학 수업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14명의 저자들이 쓴 15권의 교과서들을 추천한다. 이 교재를 분석해 보면 일반 학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거의 다루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국 문명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보통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과 사회적 혼란(적미의 난, 황건적의 난 등), 태평천국 운동, 의화당 운동, 몽골 침략, 아편전쟁, 혁명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같은 가장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러일 전쟁(1904-1905), 소련 극동 지역의 불안정화와 1939~1945년의 제2차 세계 대전(특히 대전의 후기), 대전후 화해와 6.25 전쟁(1950-1953)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종합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역사적 과정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키워주며 또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 개념을 바탕으로 지식을 어떻게 스스로 얻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고등 교육 기관들은 《일반적인 인문학과 사회 경제학 과목》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적 기준과 고등 교육 기관 졸업자의 교육 수준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따라서 4 개의 기초 인문학적 과목을 선택한다. 과목의 선택과 교구 즉 보조 교재는 대학의 전문 분야에 달려 있으며, 지역과 세계의 역사,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소개하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린다.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에 소재하는 네 개의 전문대학이 시행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세계 역사 속에서 러시아 역사와 문화를 코스 속에 포함한다. 이는 세계 역사 속에서 러시아의 위치 연구, 문화학, 러시아 극동사, 아시아태평양지역사, 해군사, 해양 지리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과정은 물론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변형

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의 총 시간 수는 제한되어 있다. 전체 60-150 시간 중에서 39-90 시간은 역사학에 대한 강의인데, 18-36 시간은 문화학과 세계문화사 시간이고, 40-60 시간은 특강과 자습 시간으로 되어 있다. 모든 과목은 합치면 여러 수준에 맞게 전세계 역사와 문화, 러시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러시아 지역 별 역사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소개한다.

전문대학은 20 세기 말까지 출판된 교과서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이런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를 다룰 때 러시아 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 주목 받는 주제로는 타타르 몽골의 침략과 이 침략이 러시아 발전에 미친 영향, 러시아 극동의 개발과 19-20 세기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국경과 현 단계에서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등이다.

각 지역별로 인문학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전국적인 가치를 위주로 여러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소민족의 가치를 고려했다. 따라서 셰포트코(Shepotko L. V.)가 스테파니스체바(Stepanischeva A. T.), 세멘니코바(Semennikova L. I.)와 우트크나(Utkina A. I.)의 자료를 이용해서 지은 교과서와 리조구브(Lizogub)의 교과서는 다른 문명(동양적 문명까지 포함해서)과 비교하면서 전 세계 역사 과정 속에서의 러시아의 위치를 살펴본다.(셰포트코의 교과서는 러시아극동지역교육부로부터 대학에서 이용할 만한 교재로 인정받았다. 두 교과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연구 자료 분석도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관점을 비교하는데 좋은 근거가 된다.

플로히흐(Plokhikh S. V.)와 코발료바(Kovalyova Z. A.)가 공동으로 집필한 교과서 <러시아 극동의 역사>는 러시아와 동양의 여러 나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세계 역사 과정의 기준 원칙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교과서의 저자들은 극동 고대 국가(발해, 금(金)나라)의 역사, 러시아인들의 동북아시아라는 지리학적 발견과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러시아 연구자들의 탐험 여행, 그리고 17-19 세기의 극동에 대한 러시아 식민지화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주제는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에 관한 논쟁 그리고 러시아 혁명(1905-1922)과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 중 국가들 간 상호 관계 등이다. 이런 방법은 반복을 하지 않게 해 주고,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대 인문학적 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학에 관한 저술들은 다양한데 이들 중의 전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블라디보스톡 대학교수들이 지은 교재들이 있다. 이 교과서들은 가장 중요한 개념과 범주(문화와 문명, 문화의 형태와 움직임, 힘, 원리와 가치, 문화의 상징과 코드, 전통과 사회기관)를 설명하고 현대 문화의 추이에 대한 주된 동향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민족들의 주된 신화와 여러 종교(신도, 불교, 도교, 유교)를 소개한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 문화의 특징과 동양 예술의 특징(서예, 시와 미술의 종합), 동양 극장, 일상 생활, 그리고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태평양 연구원의 전문적 자료는 해양 지리학,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의 사회·정치적 조건, 그리고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의 자연 지리학적 특징, 경제 지리학적 서술, 외교 정책과 내부 정책의 상호 의존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균비 상황을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및 교육론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나는 정보전달과 분석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일 개념의 방법, 즉 민주주의나 애국주의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구성 체계는 정보 인지, 표현, 선택, 문제 해결, 검색 교육 방식을 이용해서 시간 별, 테마 별 그리고 문제 별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것을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고, 배운 것을 쉽게 표현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하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

모국의 역사와 세계사 및 문화학에 대한 자료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옛날에 주도했던 추세보다는 역사에 있어서의 사건이나 인물의 역할이 다른 관점에서, 즉 더욱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 중앙 정부가 지시했던 관점을 차차 포기하게 되고, 정치 및 종교 입장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 객관적인 입장을 주장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연구할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문화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네 번째로는 역사의 체계적인 관점이 사라지고 인류가 “유럽중심주의” 개념을 교체하도록 했다.

인문학 과목들은 주로 과학적 목적(실제 자료 분석과 해석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과 교육적 목적(애국, 사회적 가치, 세계관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리 정치적인 특징은 거의 감안하지 않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0월에 3개의 기술대학교 대학생들(총 186명, 1,2,5 학년, 남성 90%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학생 중의 41%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중국을 관광객으로 방문한 것이 67%, 그 중에 2번 이상 방문한 적 있는 학생수는 17명, 4번 이상 5명, 7번 이상 2명, 30번 이상 2명이라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한 적 있는 학생은 11.2%였고, 북한은 딱 1명이지만 4번 방문했다고 밝혀졌다.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로 여행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고, 그 결과 1학년생들은 50% 이상 가 본 적 있다고 했으며, 5학년생 중에 가 본 사람의 수는 35.5%이었다. 출장은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니어서 출장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며, 있다고 하여도 주로 일본으로 갔음이 밝혀졌다. 대한민국은 제일 가지 않는 나라로 파악되었으며, 그 이유는 충분한 정보 부족, 비자 문제, 한국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라고 대답했다.

대중매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정보 수집의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서 TV를 지적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응답자의 24%, 잡지 13%, 신문 12%, 라디오 9% 순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학생

들의 18% 정도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대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얻고 있으며, 친구로부터 14%, 부모를 통해서 10% 정도 등의 순으로 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로써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육 및 가정이 지니는 역할의 중요성이다. 라중, 라일 그리고 한-러 교육원에 대해서는 10명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교육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구 소련 시절에는 그런 기관이 확실히 있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오늘날에도 러시아에서 설마 그런 기관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 과정 중 제일 큰 단점은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와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들 나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이웃 나라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한 학생은 70-80%, 《다소 부족하다》 - 10-15%, 《만족스럽다》 - 5%, 《충분하다》 - 한두 명 밖에 없었다. 제일 많이 이는 분야는 일본 문화와 풍습, 중국 경제 및 동아시아 정치상황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지역의 세계관과 예술문화 분야의 특성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다. 영화 배우나 유명한 가수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지만, 미술이나 예술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일본의 경제 발달(53%), 중국 군사력(45%) 및 일본 군사력 (33%), 일본의 문화와 풍속 (44%) 및 중국 문화와 풍속 (29%)이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충분하게 개방되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표1_ 관심 있는 분야 (%)

	중국	일본	한국	북한
경제 발달	34	53	10	3
문화와 풍속	29	44	17	10
군사력	45	33	16	6
무 응답	14	9	29	48

정치 및 경제 면에서도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여주었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너무 좋다》(63%), 정치적인 관계는 《만족》(51%)이라고 대답하고, 일본은 경제적 면 (48%) 및 정치적 면 (54%)은 《만족》이라고 대답했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는 《불만족》이라는 입장(한국 68-71%, 북한 61-62%)을 많이 보여주었다.

•표2_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 간의 상호 관계 (%)

	중국		일본		한국		북한	
	경제	정치	경제	정치	경제	정치	경제	정치
너무 좋다	63	45	46	29	22	19	20	24
만족	34	51	48	54	68	71	61	62
불만족	3	3	6	17	10	10	19	14

이와 같은 숫자는 어느 쪽이 정보가 충분하고 어느 쪽이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생들의 국제 결혼관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23%는 국제결혼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에 25%는 일본인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학생 수는 55%였다. 중국 사람과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64%이고, 북한 사람과는 58%가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의 수도 22-24%에 이르렀다.

이런 수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들은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 여학생들보다 좀 더 보수적이었고, 이기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젊은이들은 아시아인과 유럽인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 Y. V. 크르쭌)

•표3_ 국제 결혼에 대한 생각 (%)

	중국	일본	한국	북한	합쳐서
긍정적으로 본다	13	25	21	18	23
부정적으로 본다	64	53	55	58	55
무 응답	23	22	24	24	22

젊은이들은 구 세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사상과 개인적인 취향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생활 방식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양성되었다고 본다.

전국적인 종합 인문학 교육 대신에 인류학, 사회학 등 몇 개의 코스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합 인문학 교육은 첫 번째로 인문학 수업의 질을 향상, 두 번째로 세계사와 러시아사 과목을 합쳐서 '러시아 문명과 세계'란 동일한 코스를 형성,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론에 기반하여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많은 자료를 분류하고 개괄하면서 역사 과정을 볼 때 연대적 방법 대신에 테마적인 방법을 이용, 그리고 네 번째로 고등 교육에 있어서 전문 분야에 맞게 특수 과목의 도입을 요구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문학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소수민족, 전국과 전 인류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과학 전문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은 시작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학생들에게 세계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향이 어떤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인문학 교육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역사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고, 사회가 갖출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형태의 분석을 한다. 현대 인문학은 문제를 제기하고 다룰 때 연대학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방법론은 발전에 있어서 앞장서는 지역의 역사에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5주제 토론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 교육의 사회·정치적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토론문

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G. A. 트카초바 선생님의 발표문과 발표 내용을 통해서 현재 러시아 및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사 교육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발표자는 먼저 러시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사 교육의 현황을 방향, 중·고등학교(5~9학년, 10~11학년)의 교육 과정 및 시수, 주요 내용 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이 발표의 주제인 '러시아와 아태지역의 고등 교육에서 사회·정치적 정향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 내에 소개하고 있는 세 개의 전문대학이 인문학 교과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였고, 무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지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인문학 내에서 역사학의 비중과 역사 교과서 속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아태지역의 사회·정치·경제 등의 문제에 관한 서술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내의 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에 실시된 흥미로운 설문지 조사 결과, 즉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지역 대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상의 발표 내용들이 현재 러시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극동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역사 과목의 교육 시스템과 그 현황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할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발표문 속에 언급된 고대국가 부분과 학술대회의 성격에 맞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발표문 중, S. V. 플로히흐와 Z. A. 코발료바가 집필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가운데는 극동 지역의 고대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텍스트 속에서는 '발해'를 어느 나라의 역사에 편입시켜 서술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2.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 즉 연해주를 포함한 구 만주 지역의 고대사를 중국동북지방사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역사학자들의 시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3. 아태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 인식의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고 또 바람직한 이 지역의 역사 확립을 위해서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4.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불고 있는 '한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체감되는지 알고 싶다.

제6주제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内の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서술

>>발표_ 응웬 반 카잉(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

>>토론_ 윤대영(서울대학교 강사)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内の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서술

응웬 반 카잉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

1. 연구범위 및 한계
 2. 일반교과서 안의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서술
 3. 대학교 역사 교재들 내의 동북아
- 결론

〈내용개요〉

1. '현재 베트남교과서내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서술' 이라는 제목의 이 발표는 베트남 중,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교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동북아국가들 즉 중국, 일본, 한국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적인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
2. 이 발표는 한 국가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지역을 언급하기 때문에 필자는 중, 고등학교 교과서와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량과 고찰의 방법을 선택했다.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지리, 문학 그리고 대학교 교재에서는 역사, 문화, 민족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베트남학생들에게 동북아국가들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총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 중학교교육프로그램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동북아역사문제가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내용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소개와 각 과목의 수업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는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문제에서부터 각 국가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소개된다. 동북아국가들 중 일본과 한국에 비해 중국에 대한 부분은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역사교과서의 장점은 깊고 풍부한 교육내용이며 학년마다 적합한 서술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준다. 유의할 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교육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표 2와 표 3을 참고).

4. 지리교과서: 중학교교과서 프로그램에서는 동북아국가들의 자연지리와 경제지리에 대한 총론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각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교육프로그램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지리내용은 보다 더 깊고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중국의 지리부분은 독립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지리는 전반적인 지역의 지리에 관한 내용의 한 부분으로 기술되어 있다.

문학교과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국의 고대, 근대문학은 소개되어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문학에 대해 아직 언급이 없는 것을 아쉬워 하며 그 부분은 다음 교과서 개정시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 대학교 교재의 동북아역사

중, 고등학교교과서와 비하면 대학교 교재의 동북아역사 프로그램은 더 깊고 체계적이며 양이 많다. 중국과 일본역사내용은 시기별로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으로 한반도의 근대역사문제가 독립적인 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동북아지역이 언급될 때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반도의 문화, 역사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동북아의 역사연구에 있어 대학교 교수 뿐 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수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학자들이 동북아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며, 대학교에서 는 연구, 강의 목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된다. 예를 들어 1996년 출판된 '한국 역사와 문화' 인 책은 하노이국립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교의 역사 국문학과 교수들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6. 세미나의 범위 내에 베트남의 교과서, 교재에서 동북아에 대해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할 욕심은 없다. 중요한 지역에 대한 문제들의 서술방법을 고찰, 분석한 후에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에 대한 문제들은 베트남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교과서나 교재들은 개선되고 보완되길 희망한다.

세계화시대에 특히 한국과 일본은 베트남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서로 이해하고 역사, 문화,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베트남교과서와 교재에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과 새로운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학자 간 정부 간 기업 간의 협력과 교류를 필요로 한다.

〈본문〉

1. 연구범위 및 한계

베트남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대학교 교재에서 서술된 세계의 국가들 중 동북아시아국가들은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중학교 1학년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교과과정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최초 학습들로부터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역사, 지리, 문화에 관한 기본 지식은 일반적인 과목들에 총론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 후 몇 년 후에 국가들의 특수함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일부 대학교의 교재와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의 정량분석과 조사를 기초로 한(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심으로)이 발표는 동북아 국가들에 관한 내용과 시간량에 관한 주요부분들에 집중된다.

그러나 각 해마다 많은 종류의 참고서와 교과서를 갖는 12년의 교육과정이 포함된 베트남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동시에 각 과목의 지식구조의 방대함 때문에 여기서는 역사 그리고 지리와 문학에 대한 교재들에 한정해서 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의 고찰 집중대상 역시 역사, 문화, 민족 등과 관련된 교재들을 포함하고 광범위한 고찰 범위와 대상으로 인해 현재 베트남에 기준이 되는 교재와 교과서 체계 안에서 표현되던 동북아 국가들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공급할 목적으로 정량과 고찰, 묘사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2. 일반교과서 안의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서술

구체적인 문제들에 접근하기 전에 유의하여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베트남의 일반적인 교과서체계의 책들 중에 각 과목들마다의 지식에 관한 특수성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을 제시해주는 부분은 거의 사회

과학에 관련된 책 안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역사, 지리, 문학 등 3과목이다. 둘째, 학습연령의 적절함과 인식능력에 관한 요구로 인해 일반교육과정은 12학년까지 포함하지만 6학년(12살이 된 학생)부터 동북아 국가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교과서에 대해서는 중학교(6~9학년)와 고등학교(10~12학년)안의 대상만 언급한다.

역사교과서의 체계

초등학교 6학년부터 독립과목으로서 역사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4~5학년부터 역사와 지리 과목의 수업에 익숙해져있다. 그러나 이 과목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하듯 대표적인 몇몇 역사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일반 동북아 지역과 세계에 대한 역사서술은 기초적인 중등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6학년은 고대사 부분, 7학년은 중세사부분, 8학년은 근대와 현대사 부분, 9학년은 현대사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학습과목의 구조 체계 또한 더 명확하고 명료해졌으며 시기마다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서술에서 각 목차와 과에서 몇몇 특별한 국가들에 대해 소개되어있고 거기에 따라 동북아 국가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과목의 학습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는 않다.

동북아 세 국가들 중 중국은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으며 일본은 근.현대 역사가 독립적인 목차로 설명된다. 그에 비해 한국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중등교육(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역사과목 프로그램내용을 비교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학습프로그램 구조의 반복성이다. 그 반복성으로 인해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역사내용을 다시 배운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7학년 동방의 중세사에 관한 부분과 '중국봉건시대' 와 '인도봉건시대' 의 부분은 고등학교 10학년의 역사교과서 프로그램에 거의 반복된다.

8학년과 11학년의 19-20세기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인도, 중국에 관한 과목 중국과 인도의 관한 프로그램 또한 유사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9학년과 12학년의 두 학년 교육과정이 되면 역사 교재의 지식내용구조는 역사 시대를 나누는 방법부터 모든 책의 장마다의 학습 내용까지 완전히 반복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1_ 9학년과 12학년의 역사교과서 내의 세계역사에 관한 서술 비교¹⁾

9학년 교과서의 역사	12학년 교과서의 역사
I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동유럽	1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동유럽
II장. 1945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국가들	2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국가들
III장. 194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일본, 서유럽	3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 미국, 일본, 서유럽
IV장. 194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관계	4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
V장. 1945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혁명	5과. 2차 세계대전 이후과학기술의 발전

표1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9학년과 12학년의 두 역사 프로그램안의 세계역사 프로그램의 서술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과/장의 제목의 반복표현 뿐 만 아니라 모든 장의 과들 또는 거의 흡사한 과에 주요 부분들까지도 반복적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서부터 서유럽과 일본, 미국에 관한 3번째 과/장에 12학년 역사에 소개된 부분은 9학년에서 이미 설명된 부분이다.

그러나 비록 목차나 장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중, 고등학교교육의 역사 프로그램의 내용은 더 깊어진다. 우리의 분석과 고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서의 저자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역사자료를 포함시켰다. 특히, 학생들의 창조정신을 자극하기 위해 깊이 있는 서술방법과 비중이 높은 학습내용을 논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논증으로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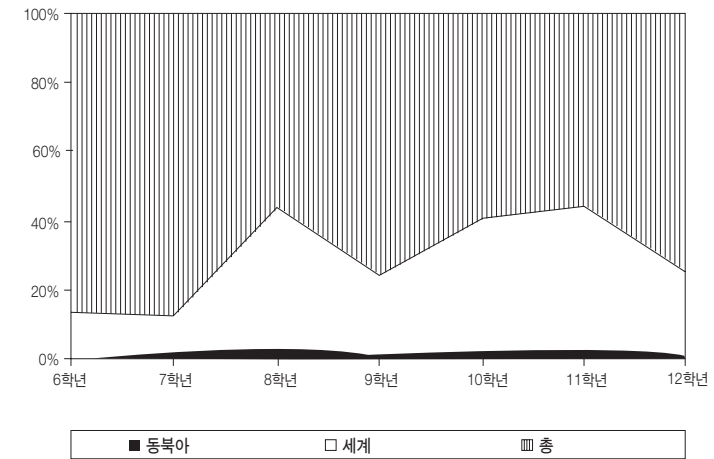
•표2_ 중·고등교육 역사과목에 동북아역사의 관한 수업 수²⁾

	역사 총 교시		세계사		동방역사		동북아역사		비고
	교시	%	교시	%	교시	%	교시	%	
6학년	30	100	5	16.6	1	3.3	0	0	고대사
7학년	71	100	9	12.6	2	2.8	2(a)	2.8	중세사
8학년	47	100	34	72.3	7	14.8	3(b)	6.3	근현대사
9학년	46	100	14	30.4	6	13	1(c)	2.1	현대사
10학년	47	100	31	65.9	6	12	72(d)	4.2	고,근대사
11학년	30	100	22	73.3	-(e)	-	2(f)	6.6	근현대사
12학년	59	100	19	32.2	7	11.8	1(g)	1.6	현대사

1) 자료 : 9학년과 12학년(표준)역사교과서, 교육출판사, H, 2007.
 2) (a) 중국 중대사 (b) 일본사 2교시(XIX-XX세기, 1918년-1939년), XIX-XX세기 중국사, (c) 1945년 후 일본사 1교시 (d) 중국 본국 (e) 교시로 나누지 않은 교과서 (f) 필자의 예측: 중국 1교시, 일본 1교시 (g)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사
 자료 : 6학년부터 12학년 (표준) 역사교과서와 교사들의 참고서적, 2007년 교육부 출판사 (12학년 역사교과서는 2006년 판을 사용).

한 가지 특징은 모든 학년의 세계사 교과서 내용배분에 있어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의 의도다. 표1에 따르면 실제로 8학년과 11학년에서 세계사지식의 상당히 많은 양을 배우게 된다. 8학년: 72.3% 역사과목, 11학년: 73.3% 역사과목. 이것은 주로 9학년 학생의 중학교 졸업시험과 12학년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한다. 이 두 학년의 주된 시험내용은 현대역사(베트남 역사와 세계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중세, 근대 역사는 중등교육의 6,7,8학년과 고등교육의 10,11학년에 포함 되어 있다.

•그래픽1_ 중·고등교육의 역사교과서의 동북아부분의 수업시간 배분



동북아국가들은 세계사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사는(중국, 일본, 한국)시기에 따라 연결되어 설명되어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에 관한 개별적인 각론부분은 동북아 지역에 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수업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픽1은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2007년 까지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 수업시간은 평균 3.3% 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8학년과 11학년의 두 학년은 세계역사에 관한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동북아 국가들에 관한 수업시간은 6.3%와 6.6%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에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 동북아역사 총 수업시간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역사가 65%, 나머지는 일본의 근현대사가 35%를 차지한다. 교재에 나타나는 빈도수를 상세히 계산하면 고등학교과정 3년 동안 세계사학습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2회만 설명되어 있다.

중국역사가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소개된 것에 비교해 일본역사는 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 서술이 되어

있고 또한 일본역사는 명치유신(Minh Tri Duy Tan)시대 및 20세기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일본의 역할이 가장 집중되던 시기가 주된 주제이다.

고등학교교육의 동북아역사 내용도 유사하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일반역사 교과서 내용 중 한국역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은 아직은 없다. 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더 나아가 현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주로 간접적으로만 나타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에 조금씩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방에 관한 고대역사 및 중세역사 또는 20세기 세계의 과학기술의 결과부분에 나타날 뿐이다. 현재 고등학교교육의 역사교과서와 혁신 이전의 교과서를 비교하면 동북아 역사의 구체적인 시기의 설명은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사과목의 총 시간량과 비교하면 더 감소되었다.

통계표 3.은 고등학교교육 역사과목프로그램 중 주로 동북아 국가들의 관한 역사 시간의 비중이 평균4.9%라는 것을 보여준다.(구체적으로 북쪽의 교과서는 6.3% 남쪽의 교과서는 3.5%)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교육 역사 교과서의 동북아 국가들의 대한 비중은 평균 4.13%에 불과하다.

•표3_ 1986년 고등학교 역사과목의 동북아역사 교시 (교육개혁 전)³⁾

	총역사 과목		세계사		동양역사		동북아역사		비고
	과수	%	과수	%	과수	%	과수	%	
10학년남부	29	100	29	100	7	24.1	2(a)	6.8	고·현대사
10학년북부	33	100	33	100	8	24.2	5(b)	15.1	고·현대사
11학년남부	27	100	11	40.7	2	7.4	1(c)	3.7	현대사
11학년북부	25	100	9	36.0	2	8.0	1(d)	4.0	현대사
12학년남부	30	100	0	0	0	0	0	0	
12학년북부	32	100	0	0	0	0	0	0	

여기서 유의할만한 점은 교육개혁 전·후의 중, 고등학교교육의 동북아역사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부분은 단지 참고사항 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기별 국가들의 역사에 대한 서술내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현재 중, 고등학교교육 과목 수는 특히 교육 개혁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서 늘어났다. 따라서 과목들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세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그 외에 현재 학습 프로그램의 역사 과목 교과서의 강의 내용은 실제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국의 현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학습 시간량과 더 나아가 동북아 역사 시간은 개혁 전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명백하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강의의 질은 분명 향상되었다.

3) (a) 중국고대사 1과, 중국 봉건사 1과
 (b) 중국고대사 1과, 중국봉건사 1과, 서구침략의 중국과 인도 1과, XIX세기 말 XX세기 초의 중국사, 유신명치시기의 일본사 1과,
 (c) 1919-1960 시기의 중국사 1과 (d) 1919-1960시기의 중국사 1과
 자료 : 북부와 남부의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역사교과서,1986년 교육부 출판사 재판.

지리와 문학 교과서 체계

중등교육 지리 교과서 내에 일반적인 문제들(총론)에 대한 부분은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다. 지구지리학에 대해서는(6학년) 한대, 온대, 열대 지리환경에 대해서는(7학년) 대륙의 자연과 인간의 대한(8학년) 교육이 바로 중등교육 지리교과서의 체계다.

베트남 사회경제지리와 자연지리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지리의 부분들에 포함되어있다. 앞서 역사 교육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북아국가들의 사회-경제와 자연지리 같은 부분도 서로 밀접하게 표현되어있다.

예를 들어, 8학년 지리 교과서에 보면 대륙의 지리와 자연지리의 총 21과 중 두 과는 동북아 국가들의 사회 경제 발전 현황과 자연지리에 대한 설명이다.

10학년 지리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세계사와 자연지리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이 소개 되어있다. (지도: 우주 지구의 이동결과, 지구의 구조, 대기권 및 지구표면, 인가지리 - 경제구조 농업지리 지역발전과 환경서비스 지리 등)

11학년 지리는 학생에게 세계사회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일부 주요국가와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앞에서 설명된 주요 7개국 중에 중국과 일본은 두 과목에서 독립적으로 두 과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미국, 유럽연방, 러시아연방, 동남아, 호주로 구성). 동북아의 두 큰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 3교시)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국가의 자연과 인구, 경제발전상황, 경제 분야, 경제지역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적인 과목으로 설명되어있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역사교육 과정의 경우처럼 9학년과 12학년의 지리교육은 모두 베트남 사회-경제, 지리에 관해 졸업시험과 수능시험을 위해 집중되어있다.

문학과목은 중학교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중국문학(특히 唐詩와 중국현대문학)에 대해 주로 가르치고 있다.

문학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외국 문학작품들 중 중국문학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명되어있어 학생들에게 중국문학발전에 대한 과정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문학은 단지 12학년에서 카오야바타(Kaoabata)저자의 水月작품(thuy Nguyet) 한 편 만이 소개되어있다. 반면에 한국문학은 아직도 베트남 문학 교과서 프로그램에 소개되어있지 않다.

3. 대학교 역사 교재들 내의 동북아

만약 중, 고등교육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발행되는 베트남 교육부에 의해 표준화 되어있다면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사용하는 역사교재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교육기관의 전문분야에 따라서 교재가 좀 더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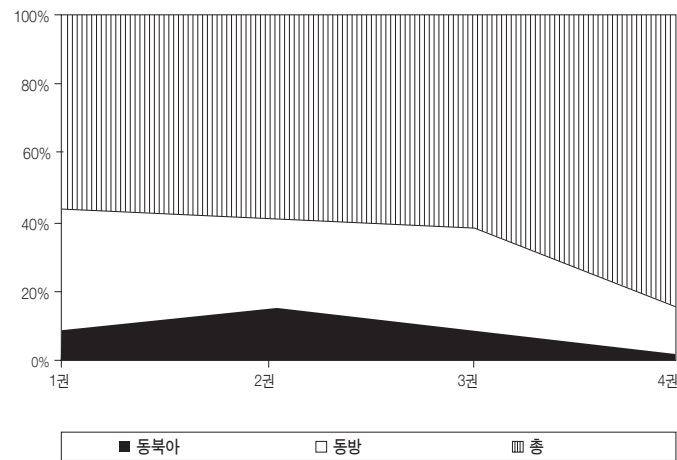
현재 각 대학교에서 역사가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그러한 학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은 베트남의 역사 과정이다. 그 외에도 세계문명역사 과목(중국문명에 관한 내용이 1/8 포함)이 점점 널리 가르쳐지고 있다.

현재 세계역사에 관한 교과서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출판부에 의해 구성된 4권으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再版되고 있다. 그러한 교재의 관찰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유의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한다.

•표4_ 현재 대학교에 세계사교과서의 동북아역사에 대한 장/과⁴⁾

	총 장/과		동방역사		동북아역사	
	교시	%	교시	%	교시	%
1편 (고대세계사)	7	100	4	57.1	1(a)	14.2
2편 (중세세계사)	17	100	6	35.2	4(b)	23.5
3편 (근대세계사)	27	100	14	51.8	3(c)	11.1
4편 (현대세계사)	18	100	3	16.6	0(d)	0

•그래픽2_ 1999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에서 세계사 교재의 동북아에 대한 장/과를 분배



4) (a) 중국 고대사 (b) 중국, 일본, 조선, 몽고의 중대사 (c) 중국, 일본, 조선의 근대사 (d) 문제별로 저자가 세계현대사를 서술
자료 : 1999년~2006년 교육출판부가 출판하고 재판한 4편 세계사 교재다.

표4를 보면 동북아 역사에 대한 주제는 동방의 역사과목과 비교하면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중, 고등학교교육 과정에 비해서 대학교육과정의 세계역사 프로그램 내용과 동북아 역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깊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보다 많으며, 특히 최초로 조선의 근대 역사가 독립적으로 목차한 장에 설명되어 있다.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 문화와 역사가 자주 언급되고 중·고대사와 현대사는 총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외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포괄적인 교재 이외에도, 세계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북아 역사에 관한 일정한 양의 전문적인 교재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하노이 인문사회과학 대학교의 역사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전공 교재는 응우옌 반 킴 부교수가 저술한 3권의 저서다. 그 외에도 참고서적이거나 또는 역사학의 세계사 과목 강사나 교수들의 다른 논문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학 중국학 한국학 동방학에도 그런 전문적인 논문들이 있다.

결론

지난 약 반세기 동안 베트남 대학의 교재와 중, 고등학교교육의 교과서 내용은 세계의 국가들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을 서술하는데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책의 개편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저자들이 세계국가들에 대해 특히 베트남과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 및 일찍이 외교관계를 맺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전 세계국가들과의 파트너십 정신은 동북아 지역 세국가의 외교, 사회,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들과 문화, 역사에 대해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관심을 갖게 해준다.

중국은 베트남 민족의 국가유지와 국가건설 역사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현재 베트남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며 위에서 언급한 세 국가는 베트남과 함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동아시아 공동건설의 발전이 기대된다.

따라서 베트남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며 지역 국가들과 국민들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에서의 동북아 국가들의 사회, 자연지리, 문화, 역사에 관한 학습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동북아 역사에 관한 강의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대학교에 세계역사 교재와 고등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한국과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몇몇의 강의과목을 더 개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 교과서에 나타난 동북아에 관하여

윤대영 (서울대학교 강사)

이번 발표를 통해 베트남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등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베트남 중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 기관의 교과서를 아직 접해 보지 못한 토론자는 베트남 인문학 교육의 전반적인 특성과 동북아 지역과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토론자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교과서 필진, 교과서의 내용, 교과서의 한국 관련 부분, 교과서의 중국 관련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교과서 편찬에서 동북아 지역에 관한 서술을 담당한 필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북아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면, 한·중·일 3국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경향(연구 인원, 연구 주제, 교육 기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다양한 도표를 이용하시면서, 교과서에 나타난 동북아 지역의 비중을 세계사나 본국사와의 비교를 통해 밝혀 주셨습니다. 시기상으로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등으로 나누고 계시지만, 교과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와 관련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통해 동북아 역사 기술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 근현대사가 중심이 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명치유신이나 과학기술 분야가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대학교재에서 한반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북한근대사와 한국의 고종세사 및 현대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교재의 내용으로 선택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일부 교재 내에 구체적인 삽화와 영상과 분석, 해설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여금 강의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실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교육 관리자, 교과서 편찬자들 간에 항상 교류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우호와 협력정신에 입각한 동북아 국가들의 교과서 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6학년~12학년 역사교과서, 교육출판사, 하노이, 2006-2007.
2. 6학년~12학년 역사교사참고서적, 교육출판사, 하노이, 2006-2007.
3. 6학년~12학년 지리교과서, 교육출판사, 하노이, 2007.
4. 6학년~12학년 지리교사참고서적, 교육출판사, 하노이, 2007.
5. 12학년 문학교과서, 교육출판사, 하노이 2007.
6. 세계역사교재 (4편), 교육출판사, 하노이, 1999-2006.
7. 부 즈영 닌, 국제화시대에 세계사교육, 역사연구 잡지, 2-2005, p.60-64.
8. 전 티 빈, 동남아역사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역세계화: 베트남대학교의 현화, 역사연구 잡지, 1-2004, p.40-55.
9. 응웬 티 꼬이,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의 효과: 현황과 해결책, 역사연구 잡지, 7-2005, p.50-58.
10. 보 쉰언 단,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 경제-문화들, 역사연구 잡지, 6-2004, p.70-72.
11. 응웬 반 킴, Tokugawa시대에 일본의 폐쇄정책: 원인과 결과, 세계출판사, 하노이, 2000.

3.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동남아를 비롯한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 연구자의 부족과 한·중·일 3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 서술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교과서에서도 남북한에 대한 서술 비중이 매우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4. 다음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 각각의 교육 단계에서 동북아 지역 중에서도 중국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중국사의 비중이 커진 이유에 대해 시대적 배경이나 실질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13세기 후반 『大越史記』(Đại Việt Sử Ký)를 저술한 레 반 흐우(Lê Văn Hưu, 黎文休)는 진정한 의미의 베트남 역사는 쯤에우 다(Triệu Đà, 趙佗)의 남 비엣(南越, Nam Việt)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이 시기부터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南越의 성쇠를 前漢 역사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과서는 '남 비엣' 혹은 '난 유에(南越)'의 역사를 베트남 역사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까?

5.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받으셨던 동북아 역사 교육과 지금 세대가 받고 있는 동북아 역사 교육의 차이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7주제

몽골의 역사교육 :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

>> 발표_ J. 게렐바드라흐(몽골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 토론_ 김장구(동국대학교 강사)

몽골의 역사교육: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

J. 게렐바드라흐 (몽골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내용개요〉

몽골국의 교육체계는 미취학 아동교육(유치원), 일반교육학교(11년,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전문학교·직업교육(산업체교육)이라는 세 가지 기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교육학교 6학년과 7학년 과정 2년에 걸쳐 〈세계문명사〉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세계사는 ‘동양의 문명’, ‘서양의 문명’이라는 두 분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며, ‘동양의 문명’은 ‘고대의 동양’, ‘중세 동양 각국의 문명’, ‘근대문명’, ‘현대 문명’이라는 네 시기로 나누어 차례대로 가르친다.

‘고대의 동양’이라는 단원에서는 동아시아 각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대중국의 역사를, ‘중세 동양 각국의 문명’이라는 단원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현대문명’이라는 단원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항목에서는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의 네 나라 중 한국에 대해 서술하였다. 몽골국의 일반교육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문명사〉수업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서술할 때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대 중세시기의 역사는 서술하지 않고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의 남쪽에 있는 이웃나라인 중국의 역사는 각 시기마다 간략하게 모두 서술하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정책을 각 시대마다 행한 활동행위와 관련지어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현대 부분에서는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정치와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독립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중국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신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다른 민족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관점을 적게나마 서술하고 있다.

역사와 관련해서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각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과목으로는 〈세계사〉, 〈몽골사〉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강의의 하는 시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몽골국립사범대학교 사학과와 경우, 〈몽골사〉 강의를 수업년도 4년 동안 총 13학점(312시간)을, 〈세계사〉 강의는 4년 동안 12학점(288시간)을 강의한다.

2003년에 몽골 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이 출간한 두 권짜리 『세계사』, 2006년에 몽골국립사범대학교 사학과 교수 바야르마가 번역해서 출간한 『동양현대사(1945~1990년)』, 2006년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인 에르텐치멕이 펴낸 두 권짜리 『한국사』, 2007년에 몽골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타미르가 지은 『동양사(16~21세기)』 교과서는 각 대학(교)의 관련학과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다.

몽골에 〈세계사〉에 관한 몽골어 교과서가 비교적 적은 것은, 역사 교육을 할 때 주로 몽골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세계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서술할 때 한국의 역사는 거의 서술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대와 중세 시기 한국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는 도중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몽골에는 한국의 고대와 중세역사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부족에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 교수들은 〈세계사〉, 그 중에서 〈동양사〉를 강의할 때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책과 교과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거의 동등한 분량으로, 있는 그대로를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 〈동양사〉를 강의할 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저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양사를 고대, 중세, 근현대의 시대별로 나누어 역사의 기본지식을 익힌 다음에 졸업반인 4학년 대학생들에게 ‘동양사의 주요 문제들’이라는 강의를 4학점(192시간)으로 가르친다. 이 강의를 통해 동양사의 당면한 중요 문제들을 따로 가르치고 있다. 이 강의를 진행할 때는 러시아어, 영어로 된 책과 교과서들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강의할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된 책과 교과서를 이용하려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중국과 한국 일본어로 된 역사서적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수들이 점차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몽골 역사교과서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될 수 있는 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각 대학(교)의 교수들도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를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각국 중에서 한국의 역사를 다른 두 나라의 역사보다 적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첫째, 몽골에 한국사 관련 서적이 적은 것, 둘째, 고대, 중세시대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이 비교적 적었던 것,

셋째, 해당 교과서 집필자의 개인적인 관점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교육과정과 고등교육기관의 교과서와 참고서적에 강대국 중국의 오만한 관점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반박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거의 서술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눈에 띈다. 우리들은 스스로 역사학의 '진실과 올바른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다른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학문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관점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잘못이다.

〈본문〉

몽골국의 교육체계는 미취학 아동교육(유치원), 일반교육학교(11년,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과 전문학교, 직업교육(산업체교육)이라는 세 가지 기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미취학 아동교육(유치원)에서는 아동들에게 어떠한 역사교육도 실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아동들의 사고와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교육학교는 11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5학년 과정에 〈국사〉 즉, 〈몽골역사개관〉교과, 6학년과 7학년 과정 2년에 걸쳐 〈세계문명사〉교과, 8학년 과정에서 〈몽골사〉교과를 각각 가르치고 있다. 일반교육학교 6학년과 7학년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세계문명사〉교과에서는 세계사를 통사적으로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세계사 교과과정은 '동양의 문명', '서양의 문명'이라는 두 분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그 중에서 '동양의 문명'은 '고대의 동양', '중세 동양 각국의 문명', '근대문명', '현대 문명'이라는 네 시기로 나누어 차례대로 가르친다.

'고대의 동양'이라는 단원에서는 동아시아 각 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대중국의 역사를 네 가지 주제로 가르치고 있다. 그 주제는

- '황하와 양자강 사이의 거주민'
- '중국 고대국가의 성립'
- '진제국 시기의 중국'
- '만리장성' 등이다.

이들 각 주제에서는, 몽골의 남쪽에 인접하여 兩河지역에 거주하던 고대중국인들, 기원전 일천년 대 중반부터 중국에 전국철웅이 흥기했으며, 기원전 221년에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제국의 성립, 몽골 초원에

시는 유목민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수축하기 시작했으며, 비단길이라는 상업유통망의 의의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중세 동양 각국의 문명'이라는 단원에서는 동아시아 각 국 중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세 중국'이라는 단원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각각

- '중국의 성립(5~11세기)'
- '농민 대반란'
- '당·송의 멸망' 등이다.

이 단원에서는 중국에서 唐의 뒤를 이어 宋이 성립되었음과 당조의 농민 대반란, 당과 송의 멸망, 그리고 명조의 성립 등을 서술하였다. 그 내용 중에 907년에 세워진 당조의 지배하에 한국이 들어 있었으며 조공을 바쳤다고 서술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그리고 일본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교류'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서 서술하였다. 그 내용은 중세 일본의 역사와 武士道の 성립, 일본과 명 사이의 전쟁(임진왜란)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점령하려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일본의 군주 豊臣秀吉의 계획에 따르면 조선, 만주, 필리핀, 대만 등을 정복하고 태평양 지역에 아시아의 강대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중국을 정복하고 통치하겠다고 선언하고 寧波를 수도로 삼고, 1592년에 중국의 종속 하에 있던 조선반도로 함대를 파견하여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였고 게다가 수도 한양을 함락시키자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1597년에 일본은 중국에 다시 대군을 보내 중국(명)군을 크게 패퇴시켰다. 일본군(武士)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조선과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고, 죽은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서 승리의 징표로 삼아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1598년, 중국 황제는 결전을 치르기 위해 대군을 보내 반격에 나섰다. 일본군(武士)을 (일본)열도로 쫓아냈고 1607년에 일본은 조선을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리하여 중국의 대군은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후로 일본군은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고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조선은 중국 명조의 종속국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세계 문명사〉 교과서에서는 고대와 중세 시기 한국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는 도중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몽골에는 한국의 고대와 중세역사에 관련된 서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부족에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한 부분에는, 중국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신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다른 민족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관점을 적게나마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인들은 스스로 한 번도 중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각 시대

1) 11년제 일반교육학교 교과과정 6-7학년용, 『세계문명사』(울란바타르, 2005), 99쪽.
2) 11년제 일반교육학교 교과과정 6-7학년용, 『세계문명사』(울란바타르), 100쪽.

다 自國을 대부분 ‘天子之國’, ‘中華帝國’이라고 불렀다”라거나, 또는 “당조의 최고 통치자는 황제이며, 스스로를 지상에 내려온 하늘(신)의 대리인, 天子라고 여겼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교과서의 ‘현대문명’이라는 단원에서는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해 ‘중국과 일본 발전의 역사적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 ‘중국’이라는 항목에서는 만주 청왕조의 멸망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까지 역사적 사건과 오늘날 중국의 발전에 대해 서술하였다. ‘일본’이라는 항목에서는 일본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던 정책을 변경시킨, 明治維新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20세기 초중반에 일본이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시아대륙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세기 초부터 끊임없이 시도했으며, 그 때문에 일본은 1910년에 조선을 자국의 식민지로 삼았으며 또한 아시아 각 국에 제국주의(파시즘)의 위협이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의 총리대신 다나카가 천황에게 바친 문서(비망록)라는 것이 있었다. 그 문서에는 일본 군부에서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수행할 침략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나카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할 일급비밀 계획을 극비리에 철저히 숨기고, 최종적으로 파기해버렸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본 군부가 아시아에서 수행한 전쟁은 침략전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³⁾라고 서술하여 그들이 몽골, 중국, 소련, 태평양 상의 각 국에서 행한 전쟁과 군사행위를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항목에서는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의 네 나라 중 한국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196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세 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그 중에서

- 제 1기: 1962~1966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생활필수품들을 국산화하고, 자본투자유치를 증가시켰다. 또한 생산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장난감을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 제 2기: 1967~1970년대 후반까지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외국에 수출할 상품들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중화학,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다. 1970년대에 해운조선, 철강, 컬러TV 등을 수출하였다.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였다.

- 제 3기: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지식정보 산업의 각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즉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반도체 등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량 생산하였다. 이러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수출하였다. 따라서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11년제 일반교육학교 교과과정 6-7학년용, 2005, 『세계문명사』(울란바타르), 147쪽.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정리해 보면, 몽골국의 일반교육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문명사> 수업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서술할 때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대 중세시기의 역사는 서술하지 않고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몽골의 남쪽에 있는 이웃 나라인 중국의 역사는 각 시기마다 간략하게 모두 서술하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정책을 각 시대마다 행한 활동행위와 관련지어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현대 부분에서는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정치와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독립적으로 서술하였다.

몽골 고등교육체계, 즉 대학(교)과 전문학교, 직업교육(산업체교육)에서는 <몽골사>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왔으며, 강의년도 일 학기에 가르쳐 왔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몽골국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의 결의에 따라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대학(교), 전문학교, 직업학교(산업체교육)에 <몽골사> 강의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몽골사> 강의를 듣고 안 듣고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의의 시행 결과 몽골의 각 대학(교), 전문학교, 직업학교(산업체교육) 학생의 50%가 <몽골사> 강의를 듣지 않게 되었다는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역사와 관련해서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각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과목으로는 <세계사>, <몽골사>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시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몽골국립사범대학교 사학과와 경우, <몽골사> 강의를 수업년도 4년 동안 총 13학점(312시간)을, <세계사> 강의는 4년 동안 12학점(288시간)을 강의한다. 몽골국 대학(교)에서는 <세계사> 강의를 ‘동양사’와 ‘서양사’ 둘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강의할 때 ‘동양사’도, ‘서양사’도 각각 고대, 중세, 근현대의 세 시기로 시대를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다. 몽골에 <세계사>에 관한 몽골어 교과서가 비교적 적은 것은, 역사 교육을 할 때 주로 몽골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 <동양사>를 강의할 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저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각 국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동양사개설이나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를 단독으로 서술한 몽골어 교과서들도, 아직은 적지만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에르덴치벡이 지은 『한국사』라는 두 권짜리 교과서를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⁴⁾

2003년에는 Open Society (Soro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몽골 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이 출간한 두 권짜리 『세계사』는 대학(교) 역사 교육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 제 I 권은 원시시대로부터 18세기 중반까지의

4) 에르덴치벡, 2006, 『한국사』상·하 (울란바타르).

세계사를 다루고 있다. '고대문명'이라는 단원에는 동아시아 각 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지 않고, 단지 중국의 역사만 고대제국의 성립시기부터 한 왕조까지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중세의 동양'이라는 제3단원에 '아시아 문명'의 제1절에 '중국', '일본'이라는 항목이 있다. '중국'이라는 항목에는 3세기 한의 멸망부터 12세기의 송대까지 중세 중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항목에는 3세기 大和가 이끈 부족연맹시기부터 14세기 足利幕府시기까지 중세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이 책에는 고대와 중세 한국사에 관한 서술은 거의 없다. 단지 '몽골(元)제국'이라는 단원에 있는 '원의 대외교류'라는 항목에 한국에 대해 아주 간략한 서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몽골의 대칸들은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은 채 감시하에 두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의 양국 관계를 부마국 우호관계 형식을 유지하였다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다.⁵⁾

〈세계사〉 교과서 하권에는 18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일본, 중국, 한국의 역사를 '만주 지배하의 중국', '德川幕府시대의 일본', '중국 혼란의 시작, 5·4운동', '신중국의 정치대결, 일본의 침략', '대일본제국', '일본의 경제대국화', '중국 혁명에서 개혁개방으로',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항목 안에서 서술하고 있다. 위의 항목 중 네 개는 일본사와, 네 개는 중국사와 관련해서 서술한 것이다. 한국에 관해서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항목에서 서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950년대 북한군이 조국통일을 목적으로 남침하였다.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려 했다. 미국의 장군 맥아더의 지휘 하에 대부분 미국과 남한의 군대는 북한군을 중국과의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압박하여 진격하였는데, 모택동은 미국군이 중국을 공격할까 두려워하여 중국군을 한반도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북한군과 함께 미군을 38도선까지 후퇴시켰다. 전쟁은 1953년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휴전 협정은 4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38도선을 따라 거의 100만에 이르는 남북한군이 전선에 배치되어있다. 또한 미군은 평화유지를 위해 남한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⁶⁾라고 한국 전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후 1950~1953년 전쟁으로 인해 산업, 경제 기반의 40%, 가공공업 설비의 37%를 잃었지만 1960년대 초부터 산업화 정책을 실시하여 1990년대 초부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가장 앞선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이 발전을 이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60년대부터 실시한 수출정책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북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06년에 몽골국립사범대학교 세계사학과 교수 바야르마가 번역해서 출간한 『동양현대사(1945~1990년)』 교과서에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가 각각 서술되어 있다. 한국의 역사를 서술할 때 '대한민국의 해방, 한

5) 몽골국립대학교, 2005, 『세계사(Ⅰ): 원시시대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울란바타르), 162쪽.
6) 몽골국립대학교, 2005, 『세계사(Ⅱ): 18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울란바타르), 380쪽.

반도의 두 나라, 1950~1953년 전쟁', '북한, 1953~1990년', '남한, 1953~1990년', '한반도 통일문제, 남북한의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를 서술한 부분에는 '승전국이 만든 질서', '미국의 정책', '소련-일본관계', '반전 운동의 확산', '경제성장', '사회-정치의 당면과제', '현대의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들이 있다. 중국의 현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중국, 인민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초기 단계로의 이행', '대약진, 집단농장화와 그 결과', '문화대혁명', '경제개혁을 위한 투쟁', '중화인민공화국의 현 발전단계'라는 주제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교과서에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낙후된 일본경제가 195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요한 원인은 1950~1953년의 한국전쟁시기에 미군이 주문한 대량의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부터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⁷⁾ 이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비교적 균형 있게 서술한 것은 다른 교과서에 비해 한 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인 에르덴치메이 펴낸 두 권짜리 『한국사』라는 책은 대학(교)의 역사관련 학과에서 교과서처럼 이용하고 있다. 『한국사』상권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고대와 중세시기를 11章, 48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⁸⁾ 각 章의 제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 1장 '원시시대', 제 2장 '성읍국가 부족연맹', 제 3장 '전제봉건국가의 발전', 제 4장 '전제왕권의 확립', 제 5장 '지방호족들의 대두', 제 6장 '고려 귀족가문의 지배', 제 7장 '무인정권시대', 제 8장 '신흥사대부의 등장', 제 9장 '양반계층의 지배', 제 10장 '사림의 등장', 제 11장 '양반사회의 동요' 등이다.

『한국사』하권에는 조선의 고종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10章, 37절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각 章의 제목을 보면 제 1장 '문화개방정책, 개혁운동', 제 2장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1894)', 제 3장 '대한제국의 성립, 제국주의의 침략(1897~1910)', 제 4장 '독립운동', 제 5장 '해방과 분단', 제 6장 '한국전쟁, 전후 복구', 제 7장 '군사정권(1960~1970년대)', 제 8장 '신군부의 통치, 민주화 운동(1980년대)', 제 9장 '김영삼의 문민정부(1993.2~1998.2)', 제 10장 '김대중과 국민정부(1998.2~2003.2)'⁹⁾ 등이다.

2007년에 몽골국립사범대학교 교수 타미르가 지은 『동양사(16~21세기)』 교과서에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 모두를 서술하였다. 이 교과서에는 두 단원을 일본 역사에, 세 단원을 중국 역사에 할애하였다. 그런데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두 항목에만 서술하였다.¹⁰⁾ 일본에 관해서 서술한 것을 보면, 제 5장 '16~17세기 일본'은 여덟 개의 節로 이루어져 있다. 16장 '일본의 민주화 사회 이행(1947년 이후)'은 다섯 節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사에 관해서는 제 6장 '16~20세기 초의 중국'과 제 14장 '모택동 체제하의 공산 중국(1949~1976)'은 각각 여덟 節로 이루어

7) 바야르마, 2006, 『동양현대사(1945~1990년)』(울란바타르), 23~24쪽.
8) 에르덴치메이, 2006, 『한국사』상 (울란바타르).
9) 에르덴치메이, 2006, 『한국사』하 (울란바타르).
10) 타미르, 2007, 『동양사(16~21세기)』(울란바타르).

져 있고, 제16장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 경제개혁정책(1978-2000)'은 열 개의 節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사에 관해서는 두 군데서 다루고 있다. 11장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 각국의 독립을 향한 투쟁'이라는 제목 하에 '한국', 18장 '전후재건과 동양'에서 '한국의 경제사회 개혁정책'이라는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다루었다.

이 교과서를 보면, 동아시아 각국 중에서 일본과 중국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한국에 관해서는 극히 소략하게 서술했을 뿐 아니라 일부 서술은 역사적 진실과 다르게 서술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1950년 6월 25일, 이승만의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했고, 북한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캐나다가 연합한 무장침략에 대해 싸웠으며, 1953년 7월 27일 '임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¹¹⁾고 하여 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잘못 서술하였으며, 전쟁을 일으킨 측(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서술할 때 한국의 역사는 거의 서술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 교수들은 <세계사>, 그 중에서 '동양의 역사'를 강의할 때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책과 교과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거의 동등한 분량으로, 있는 그대로를 강의하고 있다.

동양사를 고대, 중세, 근현대의 시대별로 나누어 역사의 기본지식을 익힌 다음에 졸업반인 4학년 대학생들에게 '동양사의 주요 문제들'이라는 강의를 4학점(192시간)으로 가르친다. 이 강의를 통해 동양사의 당면한 중요 문제들을 따로 가르치고 있다. 이 강의를 진행할 때는 러시아어, 영어로 된 책과 교과서들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강의할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된 책과 교과서를 이용하려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중국과 한국 일본어로 된 역사서적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수들이 점차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예를 들어 강대국인 중국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몽골사> 강좌에서 '몽골 중세사' 부분을 가르칠 때,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 연구에서 몽골, 한국, 티베트, 중국을 포함해 성립되었던 몽골(元)제국이 중국의 왕조라고 주장하고, 만주 淸왕조 또한 중국의 왕조라고 하는 등 역사를 얼마나 많이 왜곡하는가를 설명하기도 한다.

몽골 역사교과서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될 수 있는 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각 대학(교)의 교수들도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를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각국 중에서 한국의 역사를 다른 두 나라의 역사보다 적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첫째, 몽골에 한국사 관련 서적이 적은 것

둘째, 고대, 중세시대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이 비교적 적었던 것

셋째, 해당 교과서 집필자의 개인적인 관점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교육과정과 고등교육기관의 교과서와 참고서적에 강대국 중국의 오만한 관점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반박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거의 서술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눈에 띈다. 우리들은 스스로 역사의학의 '진실과 올바른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다른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학문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관점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잘못이다.

11) 타미르, 2007, 『동양사(16~21세기)』, (울란바타르), 152쪽.

「몽골의 역사교육: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에 대한 토론문

김장구 (동국대학교 강사)

먼저 오늘 국제회의에 멀리 몽골에서 와서 논문을 발표하신 게렐바드라흐 몽골국립사범대 사학과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중국인들과 역사기록과 인식을 함께 해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록은 한문으로 이루어졌고, 북방의 유목민에 대한 인식도 중국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그러한 중국 중심의 고정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한 선학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한국과 몽골은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여력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1년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몽골 학자의 논문발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문발표를 듣고 느낀 점과 의문사항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발표한 논문은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의 몽골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인데, 그러면 사회주의 시절 몽골의 역사교육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아시아 서술과 비교해서 서아시아 또는 유럽에 대한 서술은 역사교과서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본문에 언급한 대로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몽골이 세운 元과 만주가 세운 淸을 중국의 역사로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것을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두 가지 근거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목민들은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아서 외부인들이 유목민을 이해하려면 정주민들이 남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몽골인들은 그런 정주민이 남긴 기록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몽골유목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을 말할 때 한, 중, 일 세 나라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아시아에는 몽골이라는 역사세계와, 베트남 더 나아가서 러시아 동부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최근에 동양사의 연구 범위가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몽골, 만주, 티베트, 위구르, 베트남 더 나아가 서아시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극히 고무적이고 당연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사연구는 자국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동등한 이해를 위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몽골에서 오셔서 귀중한 논문을 발표해주신 게렐바드라흐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주제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발표_ 신성곤(한양대학교 교수)
>>토론_ 송요후(청담고등학교 교사)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신성곤 (한양대학교 교수)

1. '동아시아사' 의 개발 배경과 방향
2. '동아시아사' 의 내용 체계와 구성
3. '동아시아사' 모형 단원의 개발 과정
4. 맺음말

〈내용개요〉

2007년에 개정된 사회과 중등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 과목이 새로 개설되었다. '동아시아사'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들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인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동아시아사' 내용의 조직은 6단위로 편성된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시수 편제를 고려하여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단원별 성취 기준(내용 요소)은 사실상 과거 교육과정의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2007년 교육과정의 大綱化 방침에 따라 성취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단원 설정과 명칭은 동아시아 지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대강의 시대별 구분이 이루어졌다. 단원명에서는 가급적 개념 용어를 지양하고 시대별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사실을 중심으로 대단원명을 붙였다.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이다.

단 원 명	성취기준(내용 요소)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문신과 무신, 성리학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 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V.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 수용과 변화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 모형단원 개발이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과제 개발 연구비 지원에 의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개발 기간으로 하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정이 본래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사연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선택과목으로서 '동아시아사' 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단원, 즉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라는 전체 범위 속에서 변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단원으로서 다음 두 개의 단원을 선정하였다.

단 원 명	내 용 요 소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V.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 수용과 변화

2단원 중 전체 내용 중 가장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에게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 서술 상에서도 막막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내용 요소가 모형 단원으로 선정되었다.

- ① 지역 간에 인구 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④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5단원 <국민국가의 모색>에서는 예상 가능한 서술 내용보다는 선택과목 '동아시아사'의 목적과 방향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취 기준을 택하기로 하여, 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⑤는 바로 동아시아사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선정하였다.

① 각국에서 개항이 갖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⑤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문화·사상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비교한다.

본래 각 내용 요소는 10쪽 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동아시아사' 전체로는 200-250쪽 정도의 교과서를 지향한다. 다음 모형 단원의 도비라, 쪽수 등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주제와 관련해서 특색 있게 지도, 그림, 사진, 문헌자료 등 다양하게 배치하고 탐구활동은 성취 기준 당 하나 정도 배치하기로 하였다. 결국 전체적인 쪽수 배분을 정리해 보면, 성취 기준 하나당 대략 10여 쪽 정도로 구성하되, 대단원(1쪽), 중단원(1쪽), 본문(4쪽), 칼럼2개(1쪽), 탐구활동(1쪽), 자료(2쪽)의 분량이 될 것이다. 형식은 다양성을 기하기로 하였다.

<본문>

1. '동아시아사'의 개발 배경과 방향

2007년에 개정된 사회과 중등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역사과의 경우 과목의 독립과 함께 전체적인 체제가 바뀌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¹⁾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 과목이 개설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교육 강화 정책이기도 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은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의 학술연구과제로 연구지원을 받아 2007년 2월에 최종시안이 확정, 공표되었다.²⁾

이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 모형단원 개발이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과제 개발 연구비 지원에 의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개발 기간으로 하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정이 본래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맞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사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³⁾

이하의 내용은 이 두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온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및 그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하였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직접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 갈등을 주체적 입장에서 극복하여 역사교육이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졌다.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며 상호 경제 의존도는 매우 높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공통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심화는 장래 하나의 지역공동체 내지 지역단위로 발전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역사단위로 설정하는 작업은 의의가 크다.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사 단위이다. 동아시아는 우리가 속했던 세계, 민족사의 범주는 넘어서지만 서양을 중심으로 하던 세계와는 구분되는 작은 세계이다. 이렇듯 '동아시아사'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모아서 병렬적으로 제시한다고 '동아시아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려면 역사적 단위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동아시아사'를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가르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자국 문명권의 영향권 내지 세력범위로 여겨 자국사 위주의 역사교육을 해오던 관행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일본은 전근대시대 동아시아 문명권의 주변에 위치한 문물의 수입국이었다는 상대적 소외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서 일국사, 민족사적인 관점을 넘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아시아사'를 개설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전개 과정을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전향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⁴⁾

'동아시아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들이 성취한 문화의 공동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3) 신성근, 「'동아시아사' 모형단원 개발」,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개발 방안』(한국역사교육학회 제6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07년 10월 3일)은 이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적 성격을 띤 글이다.

4)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나 검토진에서 '동아시아사'의 성격을 둘러싸고 많은 여타 논의가 있었다. 첫째 한국과 한민족을 중심으로 그 확대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사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둘째 한·중·일 삼국사를 병렬로 구성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며, 셋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동양사의 체제를 따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인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 첫째, 우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역사 이해의 주체적인 안목을 기른다.
- 둘째, 각 시기의 사회와 문화를 특징짓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을 통해 이해한다.
- 셋째, 객관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넷째,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다.
- 다섯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역사과목에서 습득한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크게 구분하고 각 시기 내에서는 몇 개의 주제를 두어 지역 전체를 비교·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 주제는 각 시기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것, 지역적 양상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과거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교류의 양상을 사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유산이 축적하게 되었음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각국의 역사발전 과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대구분이 어려워진 한계도 작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사나 세계사에서 채택되었던 시기구분과 통사적 접근을 지양하려는 시도⁶⁾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사’가 서술하는 시간 범위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로 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도록 하였고, 근현대사는 40% 정도의 비중을 두었다.⁷⁾

‘동아시아사’ 교과목 개발은 역사교육이 역사를 선도하는 하나의 선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란도 많고 교과서 집필도 어려운 만큼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간적으로 전근대 시기에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일원이었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중심

5) 현장적합성 검토과정에서 현장교사들로부터 시대구분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구분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도 시기 확정에 대한 논란이 많은 데다 중국의 경우 이런 시기구분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연구진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사회변화를 기준으로 대강의 연대를 정하고, 그 사회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6) 주제별 단위 구성은 역사과 교과목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기존 중학교 역사나 고등학교 역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모두가 통사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가 통사적 서술을 할 경우 고등학교 역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과목과 내용요소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과목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주제별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7) 단위 구성으로 보면 후술하듯 전근대사 4, 근현대사 2의 비중이지만, 내용 요소를 전근대사에서는 4개씩, 근현대사에서는 5개씩 두어 대략 40%에 근접하였다. 이는 중학교 3학년 ‘역사’와 고등학교 1학년 ‘역사’가 근현대사에 비중을 두어 국사와 세계사를 서술하고 있어 내용상의 중복과 비중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으로 이들이 속했던 활동무대와 거기서 활동하던 민족이나 종족 모두를 탐구 대상으로 한다. 즉 오늘날의 국경범위 및 구성원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소멸되었거나 주변화되었다라도 당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동아시아 지역의 인간 활동이 대상이 된다.

둘째, 동아시아 세계에 속한 하위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과 경험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 지역 간 공유된 역사 경험을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 및 이에 따른 모방과 학습,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및 전래와 교류를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각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산의 확산 과정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복잡해진 영토 문제, 민족 문제, 인종 문제의 원인과 증폭 배경, 정치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 등 현대 동아시아의 성격과 쟁점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여섯째, 동아시아 각 집단에 속하는 주민들의 접촉, 갈등, 교류의 기억이 현재 각 지역 주민의 기억에 어떻게 남아 있으며 현대의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곱째, 단원은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엄격한 시대구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구분하였다. 단 원내 성취 요소(주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단원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맥락을 고려하여 서술한다.

여덟째, 교과서는 설명 중심으로 서술되기보다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동아시아사’의 내용 체계와 구성

‘동아시아사’ 내용의 조직은 역사교육에서 시대적 개념과 인과 관계를 중시하는 바탕 위에서, 6단위로 편성된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시수 편제를 고려하여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단위별 성취 기준(내용 요소)은 사실상 과거 교육과정의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2007년 교육과정의 大綱化 방침에 따라 성취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성취 기준은 단위별로 1-4단원은 4개, 5-6단원은 5개를 선정하여 총 2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단위 설정과 명칭은 동아시아 지역사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사 - 기원 전후 - 10세기 - 16세기 - 19세기 - 1945년 - 1945년 이후**를 대강의 시대별 구분이 이루어졌다. 단위명에서는 가급적 개념 용어를 지양하고 시대별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사실을 중심으로 대단원명을 붙였다. 근대사 부분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목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1945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이다.

단 원 명	성취 기준(내용 요소)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문신과 무신, 성리학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 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V.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 수용과 변화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각 영역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사 학습의 중요성과 함께 동아시아사 전개의 환경적 배경을 검토하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성립하였음을 이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시작 단계에서 환경적 요인과 문명 발생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①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지형과 기후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본다.
- ② 대표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선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 ③ 농경과 목축의 시작과 발전을 알아보고 그것이 동아시아 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④ 정치적 통합과 갈등을 통해 주요 국가가 성립,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각 지역에서 여러 국가와 정치 집단이 분열 및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쟁과 인구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조공·책봉 관계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각국이 불교, 율령, 유교를 받아들인 이유와 과정을 이해한다.

- ①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 ② 불교가 각 지역에 전파되는 양상과 그 영향을 비교한다.
- ③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가 수립되고 이를 각국이 수용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 ④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여러 국가가 병립하면서 생긴 국제 관계의 변화와 몽골 제국의 성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문신, 무인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고, 소농 경영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며, 새로운 지배 이념으로 성리학이 대두하였음을 이해한다.

- ① 북방 민족의 등장과 각국의 대응, 몽골 지배의 영향을 탐구한다.
- ②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소농 경영이 정착되는 모습을 이해한다.
- ③ 문신과 무인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배경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한다.
- ④ 성리학의 성격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4) 국제 관계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과 국제 관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과 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민 문화의 성장에 대해 파악하고, 각국이 독자적 전통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이해한다.

- ①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 ② 은 유통의 활성화와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 서구와의 교류를 이해한다.
- ③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촉진, 서민 문화의 발달상을 탐구한다.
- ④ 각국이 독자적 체제와 전통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비교한다.

(5)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을 전후하여 시작된 각국의 국민국가 건설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식민 지배가 민중에게 준 고통을 이해하고, 이에 저항하여 각 지역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도 이루어졌음을 파악한다.

- ① 각국에서 개항이 갖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 ②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이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본다.
- ③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각국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을 비교한다.
- ④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국제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 ⑤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문화·사상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비교한다.

(6)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양상과 국교 회복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의 이념 대립과 분단에 대해 파악한다. 각국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양상을 알아보고, 국가 간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여 화해와 평

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 ①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각국의 국교 회복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 ② 중국의 국공 내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그 영향을 알아본다.
- ③ 각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비교하고 지역 내 교역 활성화에 대해 살펴본다.
- ④ 각국의 정치와 사회의 발전 모습과 특징을 파악한다.
- ⑤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갈등을 알아보고, 화해를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이상이 2007년 2월에 연구 보고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시안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단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3. ‘동아시아사’ 모형 단원의 개발 과정

이 프로젝트는 박중현(양재고)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6명의 공동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연구원은 역사교육을 전공하는 김쌍규(잠실고), 정연(영락고), 황지숙(신림고)과 중국고중세사를 전공하는 신성근(한양대), 일본근대사를 전공하는 박훈(국민대),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는 김정인(춘천교대)이다. 이외에 협력연구진으로 베트남사를 전공하는 윤대영(서울대)을 필두로 한국전근대사, 중국근현대사 일본전근대사 전공자 몇몇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팀 회의는 지금까지 6월 2일, 6월 22일, 6월 27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29일, 10월 12일 총 7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발회의에서는 개발단원의 선정과 연구원 사이의 역할 분담이 먼저 논의 되었다. 그 결과 선택과목으로서 ‘동아시아사’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원을 선택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라는 전체 범위 속에서 변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단원으로서 다음 두 개의 단원을 선정하였다.

단 원 명	내 용 요 소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V.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 수용과 변화

연구개발자	연구개발 역할 분담 내용	비 고
박중현	연구 개발의 총괄 및 자료의 정리, 모형 단원의 편집 및 인쇄물 제작	
김쌍규	단원의 개관 및 칼럼 부분 기술	
김정인	한국사 관련 부분 기술	
박 훈	일본사 관련 부분 기술	
신성근	중국 및 베트남사 관련 부분 기술	
정 연	자료의 해제 및 지도·그림·도표의 제작	
황지숙	평가도구의 제작 및 보고서 작성	

다음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사’ 개발의 전체적인 틀과 구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동아시아사’ 개발의 목표를 재미있어서 ‘밤새서 읽을 수 있는 교과서’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첫째, 모형단원의 분량은 40~50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결과물은 자료집이나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교과서처럼 편집·디자인하여 만들도록 한다.

셋째, 선정된 2개 단원 중에서 단원의 모든 성취기준이나 내용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원의 소단원 중 2개씩을 택해 집중적으로 작업한다.는 원칙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는 모형 단원의 어떤 내용 요소(성취 기준)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2단원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의 성취 기준 중 ‘지역 간에 인구 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이해한다’는 부분이 전체 내용 중 가장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에게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 서술 상에서도 막막함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모형 단원에서 꼭 들어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2단원에서 성취 기준 2개를 모형 개발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① 지역 간에 인구 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④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러나 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다. 대상이 되는 시기는 대략 기원 전후부터 10세기경까지의 동아시아 세계 내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동, 갈등, 정착, 융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 요소이다. 다만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구성하는 국가의 민족의 원형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점을 잘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국민국가, 혹은 민족의 개념이라는 것이 후대에 형성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하나의 역사공동체로 설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5단원 <국민 국가의 모색>에서는 예상 가능한 서술 내용보다는 선택과목 ‘동아시아사’의 목적과 방향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취 기준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성취 기준 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성취 기준 ⑤가 바로 동아시아사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① 각국에서 개항이 갖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⑤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문화·사상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비교한다.

모형단원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 즉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자료, 사진자료, 삽화, 기타 자료를 찾아 간단한 해제(2줄 정도)를 곁들여 자료를 수집하되, 최소한 출처만이라도 수집하여 자료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말부터는 초벌 집필 수준의 2단원과 5단원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층적인 토론이 장시간 진행되었다.

2단원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중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의 구성에서는 왜 인구 이동이 이시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이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의 발생한 문화적 충돌, 국가의 형성을 역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접근되어, 서술의 기본적인 시각을 이시기 동아시아에서의 국가 성립 및 정착과 관련된 인구 이동과 전쟁을 위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의 서술 내용에 대한 논의에서는 연구자 상호간에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었고, 교과서 기술의 시각과 입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만이 중국 중심의 책봉 체제에서 배제되었고, 나름대로 중국과 대등함을 강조해왔는데, 이를 내용 사례로 넣을 경우 당시 중국과 일본의 대등한 동아시아체제라는 것을 지지한다는 오해도 있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전대시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의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바라보는 현재적 시각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데 연구원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시각, 발해의 시각, 왜의 시각처럼 당시의 시각을 견지하고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실체를 솔직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5단원 〈국민 국가의 모색〉 중 첫 번째 내용 요소인 「개항과 근대국민국가 수립의 양상 비교」에서는 개항부터 곧바로 단원을 시작하면 외부적 충격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지나치게 부각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이양선 등장부터 각국의 서양 인식과 개항을 바라보는 시각과 불평등 조약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과 달리 베트남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된 전형적인 나라로 볼 수 있어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 모델이며, 일본의 개항은 헌정의 수용과 내셔널리즘의 구축과정과 함께 진행되므로 동아시아의 모델이 된 요소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즉 교과서 기술의 순서로는 개항 전의 동아시아 나라들이 가졌던 서양관, 세계관을 통해 서구 접근에 대한 시각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개항과 불평등조약이 맺어지는 양상을 살펴본 뒤, 각국을 구분하여 내용을 전개하지 않고 국민 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근대화운동 부분을 엮으면서 국민국가 수립 양상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다섯 번째 내용 요소인 「서구 문물의 수용」에서는 종교, 복장, 철도, 개항장 등의 비교 등이 제시되었다. 「기독교와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삼국의 기독교 수용을 비교해보는 방안, 단발의 경우 일본에서는 문명

인, 조선에서는 친일인, 중국에서는 혁명인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의복과 복장에 대한 시각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시공간의 큰 변화를 가져온 철도였으므로 철도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리하지는 안도 나왔다. 이는 조선 의병활동 임무의 첫 번째가 철도 폭파였고 신해혁명도 保路運動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외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개항장 즉 상하이, 경성, 도쿄, 사이공 등의 도시를 비교해보면서 전통과의 충돌과 변용이라는 측면도 살펴보는 안도 유력하게 제시되었다.

8월의 개발회의에서는 제출된 초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 및 지도, 연표, 칼럼, 인물보기, 탐구활동 등에 대한 내용 구상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구성 체제에 대하여는 대단원 앞에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을 넣고 본문과 날개를 두어 날개 부분에는 주요 용어 및 어휘를 설명하고 간략한 연표도 넣기로 하였다. 하나의 성취 요소는 보통 3차시로 구성되는데 자료 및 탐구활동을 각 차시별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부분에 몰아서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컬럼이나 자료의 제시에서는 과도한 기록 자료가 주어질 경우의 득실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원자료의 제시와 자료의 가공 정도, 그에 대한 설명의 심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의 초안 검토에서는 인구 이동에 대한 본문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여 북방→화북→화남지방의 이동 방향과 동북지역→한반도→일본으로의 이동 방향을 축으로 정리하여 제시해주면서 특히 한반도→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의견이 접근했다. 즉 이동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어야 현대적 국가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시기 동아시아에서 살아가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역사 인물도 김춘추, 설인귀, 소정방, 장보고와 엔닌, 고선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칼럼으로는 한반도의 일본 도래인을 다루기로 하였다. 당시 동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소로써 장안에 거주하던 서역인들도 아울러 서술함으로써 지역적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에서는 연구자 사이에 다양한 문제 의식과 대상이 되는 시기의 문제가 검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동아시아에서의 소중화의식은 10세기 이후가 중심이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려와 원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의 중심축을 중국만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 연구원들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에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국 중심보다는 다원적인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중국이 분열되었던 남북조와 시대가 훨씬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관계를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조선과 명청시대의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본과 베트남의 사례도 넣어 형식과 허울을 벗어던진 동아시아의 실제적 외교 질서라는 측면을 집중 조망하기로 하였다. 필요하다면 당과 주변국의 「和蕃公主」에 대한 내용도 서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다음으로 「개항과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에서는 개항 이전 동아시아의 역사적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전통에의 안주와 체제의 안정성만을 강조할 경우 근대의 경험이 타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의 외곽에 있었던 일본이 재빨리 서양 중심의 조약체제를 받아들여 국제적 위상을 높여갔고, 이어지는 문명 개화, 산업화, '의회 설립'의 과정이 동아시아의 모델로 되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된다는 입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연표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인물 탐구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주제로 나누어 보았다. 1) 개항/민족주의 수용과 국민국가 건설 과정, 2) 일본을 모델로 한 국민국가 수립 과정 3) 칼럼에서 「조선식민지화의 세계사적 특이성」을 다룬다. 또한 국민국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만화로 처리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서구 문물 수용과 사회 문화 사상의 변화」에서는 먼저 조계지 상하이, 제국 도시 도쿄, 식민 도시 경성을 중심으로 하였을 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또한 모형단원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한 연구진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였다. '조선? 대한제국? 식민지 조선? 한국?' 등 이 시기를 다룰 때 용어 사용의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서술의 큰 덩어리를 2~3개 정도로 나누어 기독교와 도시 부분은 각각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문 내용에서는 복장(의복·헤어스타일)/교육·문자생활·언론/진화론과 민권론(사상)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과 10월의 개발회의에서는 초안으로 써온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과 기타 칼럼, 자료, 지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전체 형식으로 보면 단원은 본문을 서술하고 자료를 뒤에 나열하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제를 탐구식으로 전개하는 방법이었다. 본문의 서술은 전체 내용을 국가와 무관하게 주제에 충실하게 합쳐서 쓰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초래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과서 자체가 주제 중심인데, 그 안에서 다시 주제 중심을 채택할 경우 교사가 앞뒤 빠진 부분을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고 학생들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역사 과목과 연계성이 떨어져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본래 성취 기준은 2단원 4개, 5단원 5개이므로 각 기준 당 6~8쪽 분량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본문은 2~3쪽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모두의 내용을 모형 단원에서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 내용 요소는 10쪽 정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동아시아사' 전체로는 200~250쪽 정도의 교과서를 지향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단원의 도비라, 쪽수 등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째 각 단원의 맨 앞부분에 개관을 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의 앞에도 개관이 필요한지(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주제와 관련해서 특색 있게 지도, 그림, 사진, 문헌자료 등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탐구활동은 성취 기준 당 하나 정도 배치하기로 하였다. 결국 전체적인 쪽수 배분을

정리해 보면, 성취 기준 하나당 대략 10여 쪽 정도로 구성하되, 대단원(1쪽), 중단원(1쪽), 본문(4쪽), 칼럼2개(1쪽), 탐구활동(1쪽), 자료(2쪽)의 분량이 될 것이다. 중단원은 주제를 해설하는 개관식으로 구성하고, 본문은 소주제 3개 정도로 구성하는데, 분량은 A4용지로 2쪽 안으로 서술하였다. 탐구활동은 중단원(성취기준)마다 1개 정도로 하되 형식은 다양성을 기하기로 하였다.

2단원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본문 부분은 기존의 논의대로 하되, 베트남에 관한 서술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칼럼으로는 〈장보고와 엔닌〉, 〈도래인과 이주민〉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읽기 자료로 제시된 '인구 이동의 원인(배경)'은 백제가 중심이어서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므로 고구려나 선비족의 이동 사례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또 〈탐구활동〉자료로서 '동아시아 형세도'를 제시하되 현재의 민족개념을 소급시켜 당시를 바라보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6~7세기 지도를 특화시켜 동아시아의 움직임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구 이동과 각 지역에서의 건국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더 찾아보고 당시의 전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삼국전쟁(백강 전투 포함)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외교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본문 날개에서 시대별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에게 중국이 책봉한 '관작' 명칭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형식 아니면 명칭들을 나열한 자료로 제시한 후 본문은 별도로 서술하는 형식 등 다양한 서술 형식이 제시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칼럼으로는 〈동아시아 외교의 승부사 김춘추〉와 〈일본과 베트남의 조공·책봉체제〉가 결정되었다. 조선과 중국의 조공관계는 고등학교 역사에서 이미 서술되었고,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외교 질서도 내용 요소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탐구활동으로는 〈동아시아의 수도〉라는 주제로 당, 발해, 신라, 일본의 수도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관계가 반영된 정치문화로서의 수도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개항과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은 3개의 소주제로 구성하는데 각각 서양 진출 전 동아시아의 상황, 개항의 과정과 의의, 민족주의의 수용과 일본의 대두이다. 내용 요소가 너무 많아 소주제 구성상의 비중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칼럼으로는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특수성〉과 〈국어·국사를 통해본 국민 국가〉(가제)가, 탐구활동으로 〈국민 국가와 국민 만들기〉가 결정되었다.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변화」도 역시 3개의 소주제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일상적 변화: 외양과 시간의 변화, 사회진화론과 자강론, 교육·문자·언론·출판이 그 대상인데 역시 방대한 내용을 축약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신문의 역할과 소학 교육을 강조하는 서술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칼럼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기독교의 전파〉와 〈상하이, 도쿄, 한성, 사이공〉이, 자료로는 〈개항, 두발 문제 외교 분쟁의 빌미가 되다〉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원 명	모형 단원의 구성	체 제 설 명	책 임 자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시대 개관	해당 단원의 개관과 지도 등의 자료 제시	
	본문의 기술	3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해 간다.	신성곤
	칼럼	〈장보고와 엔닌〉	정 연
	칼럼	〈도래인과 이주민〉	박중현
	탐구활동	〈동아시아 형세도〉	김쌍규
	읽기 자료	「인구 이동의 원인(배경)」	정 연

단 원 명	모형 단원의 구성	체 제 설 명	책 임 자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동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	시대 개관	해당 단원의 개관과 지도 등의 자료 제시	
	본문의 기술	3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해 간다.	
	칼럼	〈동아시아 외교의 승부사 김춘추〉	
	칼럼	〈일본과 베트남의 조공·책봉체제〉	
	탐구활동	〈동아시아의 수도〉	
	읽기 자료	미정	

단 원 명	모형 단원의 구성	체 제 설 명	책 임 자
V. 국민 국가의 모색 「각국의 개항이 갖는 의미와 국민국가 수립의 양상」	시대 개관	해당 단원의 개관과 지도 등의 자료 제시	
	본문의 기술	3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해 간다.	
	칼럼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특수성〉	
	칼럼	〈국어·국사를 통해본 국민 국가〉	
	탐구활동	〈국민 국가와 국민 만들기〉	
	읽기 자료	미정	

단 원 명	모형 단원의 구성	체 제 설 명	책 임 자
V. 국민 국가의 모색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시대 개관	해당 단원의 개관과 지도 등의 자료 제시	
	본문의 기술	3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해 간다.	
	칼럼	〈동아시아에서의 기독교의 전파〉	
	칼럼	〈상하이, 도쿄, 한성, 사이공〉	
	탐구활동	미정	
	읽기 자료	〈개항, 두발 문제 외교 분쟁의 빌미가 되다〉	

4. 맺음말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 구성과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처음 시도되는 교과목이어서, 그 범주와 구성 체제, 서술의 전형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점과도 연관되어 개발과정이나 본문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다.

‘동아시아사’ 모형단원 개발과정에서도 전체적인 틀과 단원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합의만 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주제별 서술이라는 전례 없는 교과서 형식이라는 점, 여타 역사 과목 및 선택과목과의 내용 중복 문제가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은 김인정 교과서의 성격상 다양한 시각에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데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차후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제나 구성, 내용 요소들이 보완되면 한층 나은 모습의 ‘동아시아사’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방향의 연구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주기를 아울러 기대한다.

일본의 승려였던 엔닌은 838년, 견당선⁸⁾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중국에서 불법을 배우고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엔닌은 당에 10년간 머물면서 불법과 범어⁹⁾, 한문 등을 배웠다. 그리고 불경과 만다라 등 580부 794권의 자료를 모아 귀국했다. 그가 불경 연구와 포교에 힘쓰다가 71세에 입적하자 천황은 그에게 지가꾸 대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일본에서 ‘대사’라는 칭호가 쓰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8) 견당사를 태운 배. 견당사는 당나라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9) 산스크리트어. 일반적으로 대승불경의 원전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있다.

「한국 ‘동아시아’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의 토론문

송요후 (청담고등학교 교사)

동아시아 공동체의 담론은 역사학계나 역사교육 학계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거 전통시대에는 물론이고 19세기 중엽 이래 갈등과 전쟁, 나아가 식민지 침탈과 그에 대한 항거로 점철되었던 동아시아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동아시아 연합 혹은 공동체, 더 나아가 아시아 연합(Asian Union)에 대한 구상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과거 청산 거부 등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과거의 역사에 대한 총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21세기를 향한 각국의 전략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민족, 국경, 경제 교류 등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냉혹한 현실적 문제, 또한, 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 중, 일 삼국 간의 역사 갈등, 역사 왜곡 현상 등으로, 그러한 구상이 또 다른 중화세계나 대동아 공영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우려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동아시아사’ 라는 과목을 채택한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역사 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역사 인식을 함양함과 함께, 한·중·일 삼국 간의 역사 갈등, 역사 왜곡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동아시아사’ 의 성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다”, 또는, “...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 제시한 이상을 교과서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공동 발전을 위해 기뻐했던 혹은 기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역사에서

이러한 역사적 자취를 추적해 나간다면 좋은 교과서 서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中國의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 “인류사회 역사발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계 각국, 각지역, 각 민족의 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류의 창조적이고 우수한 문명 성과를 학습하여 세계와 미래의 국제의식으로 향하도록 해나간다”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등의 불분명한 가치목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와 함께, 여타 역사 교과서들 가운데에서 교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 것이다. 교과목으로서의 “동아시아사”가 우리 스스로가 자국사적 역사 인식을 넘어 지역적 정체성이 관철되는 지역사를 서술할 것인데, 동아시아사에서 한국의 位相을 뚜렷하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세계역사의 이해”라는 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기초 공통과목인 “역사(주로 근현대사를 다룸)” 어떻게 차별성을 확립하며 독립된 과목으로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세계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에 매몰되어 과목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목이 “세계역사의 이해”라는 과목의 원래 포괄 영역의 위축을 통해 존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본은 근대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고 지배한 경험이 있으므로, 나름대로 東아시아觀이 확고하게 서 있다. 중국은 前近代時期에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중화질서를 확립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중화민족주의에 입각해 대외적으로 팽창 정책을 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동아시아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문제이고, 어떻게 그것을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페이지에서 “한국에서 일국사, 민족사적인 관점을 넘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동아시아사’ 를 개설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전개 과정을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전향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페어뱅크, 크레이그와 라이샤워가 저술한 동아시아 역사 서술²⁾처럼 제3자적 입장에서의 서술이 가능한지? 오히려 이 교과목이 우리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육자들에게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필자는 2page에서 주체적, 개방적 관점에서 ...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인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다섯 가지 제시;

첫째가, “우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라고 있는데, 이것과 객관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시각”과 “객관적”이라는 말이 양립할 수 있는지?

1)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制定,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試教通訊』, 2002년 第19期(總第33期), p.29(宋相憲,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동아시아사 담론의 문제—중국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歷史教育』제84집, 2002, p.44에서 재인용).
2) J.K. Fairbank, E.O. Reischauer, A.M. Craig, East Asia, Tradition & Transformation, 1978.

동아시아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등을 경계로 서방 지역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오랜 기간에 걸쳐 영위해 오던 하나의 세계였다. 그 역사 자체가 하나의 세계사라고도 말하여져 왔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문화적 중심이라기보다 변방지역으로서 중심 및 여타 주변 국가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독자적 역사를 이루어왔다.

과연 “동아시아사”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하나의 역사교과서의 목표들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상당히 학문적인 성격의 교과서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국가 전략적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교과목의 개설이 과연 역사교육의 강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선택 과목인 “세계역사의 이해”, “한국 문화사”, 그리고 “동아시아사” 모두 학생들을 보다 더 역사에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의 선택은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보다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이며 “동아시아사”는 10여 종 이상의 사회과 선택 과목들 중의 단지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단원명에서는 가급적 개념용어를 지양하고 시대별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사실을 중심으로 대단원명을 붙였다: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라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너무 보편적인 제목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생각은 III, IV단원에서도 든다. ‘생산력 발전’, ‘지배층의 교체’, ‘국제질서의 변화’ 제목만 볼 때, 집필자만이 그 시대와 맞춰서 파악이 가능하지, 처음 볼 경우 많은 생각을 해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부

On the changes of China's history textbooks and the cognitive of East Asian history

Zhu Hanguo (Beijing Normal University)

Since 2001, China changed th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 from a “unified” version to a “one outline, multiple versions”. There have been eight kinds of versions for middle school 7-9 grade history textbooks, such as version of People's Education Press, Beijing Normal Universit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YueLu Book Company, Sichuan Education Publishing House, ZhongHua Book Company, China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HeBei People's Publishing House. There have been four kinds of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school 10-12-grade, such as People's Publishing House, People's Education Press, YueLu Book Company, and DaXiang Press.

Various new version of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based on China's Ministry of Education promulgated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have changed on the basis of the content of basic, the requirements of the times to a certain extent.

It divided history curriculum into the ancient history of China, China's modern history, the modern history of China, the world ancient history, modern world history, modern history six world learning plate in 7-9 grade history textbook.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each plate identified a number of themes in the study. The history curriculum is divided into compulsory courses and elective courses in two parts in 10-12 grade history textbooks. There are three compulsory learning modules, respectively, to reflect human society, politics, economy, ideology,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areas important historical content, all students must learn is the basic content. Elective courses have six learning modules, namely “Reviewing the history of major reform”, “modern social democratic thinking and practice”, “20 century of war and peace,” “Chinese and foreign historical figures editorial says,” and “explore the mysteries of history” and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Retrospect. “

Chi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have a certain narrative on the history of East Asia. In the exposition of the history of East Asia, China's history textbooks adhere to the following three principles: First, full respect for the countries of East Asia's history and culture; second, focus on China and the East Asian countries history of friendly exchanges; third, it is not deny th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war in East Asian.

In the future, it would strengthen South Korea, North Korea, Mongolia and other countries exposition of East Asia in Chinese history textbooks. We should take history as a mirror, and build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promote East Asian peaceful development.

2Section

How the History Book Used in Korea Describe Neighboring Countries - With the focus on ancient history contained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used at high schools

Yeon Minsu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used at high schools in Korea is one compiled on the occasion of the launch of the 7th Revised Educational Curricula. It was compiled with the focus on politics, economy, social affairs and culture, in contrast to previous ones which were compiled chronologically. It covers the nation's history of pre-modern times. The history of modern times is classified as a separate subject. Its compilation based on sectors appears to be "designed to help students study important events in history more systematically based on what they learned in earlier courses," as stated in its foreword."

As for contents concerning neighboring countries, it contains no separate statements about neighboring countries. Statements made in the nation's history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are all there is about other countries. The nation's history related to China and Japan is stated in a total of 14 item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At the beginning of this textbook, there is a statement that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nation's history "self-reliantly" and that "the national history is a trace of how we have lived and should be the basis for the national identity." As the term "national history" connotes, nationalistic factors are strongly felt here and there. The particular term is persistently used in Korea, which appears not to be in line with the worldwide tren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ven in Japan, the term disappeared more than 50 years ago.

In contents about Tan'gun and Kojosön, it introduces the myth that Tan'gun founded Kojosön in BC 2333, according to 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t should not have been contained in

the main subject, as the boundary between fact and myth is unclear. The statement of the year BC 2333 and the presentation of the portrait scroll of Tan'gun may cause misunderstanding on the part of students. It does not have to do with the need for "self-reliance" or "national identity."

In contents about the nation's relations with China, it focuses on wa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Koguryō's victories in wars against the Sui and Tang Dynasties of China, as they were important events in that they were victories won against huge powers. Statements on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have been contained. It is also necessary to shed light on what caused Koguryō, a great and powerful kingdom, to collapse, i.e. whether it was totally due to internal factors of that kingdom or Shilla should be blamed or whether it was due to the inability related to foreig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look back on the nation's past as the generation that should play a leading role for the nation in the 21st Century.

In contents about Paekche, its advance to Liaoshi, China should not have been stated as a fact, citing unclear materials. It is not desirable to carry controversial contents in history books with no additional comments, just because they are stated in the nation's favor.

As for contents about Japan, the textbook appears to strongly focus on the superiority of Korean cultures to those of Japan. The spread of cultures are made through people. Exchanges of people between countries are carried out through various factors. It is ludicrous to say that a country transferred cultures and civilization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out of generosity." Other various factors should have been stated together in an objective way.

Overall, the textbook fails to state many important elements in the nation'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olden times, there were numerous ups and downs in each country in East Asia. Their relations developed through wars and diplomatic and cultural exchanges. Sh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one was made within the context of its relations with countries outside the peninsula. We should shed light also on diversified exchanges with northern tribes.

It is doubtful whether the purpose of compilation stated at the beginning of the textbook, such as

"exchanges with diversified nations and peoples" or "open-minded nationalism," has been satisfied. Statements concerning the nation's history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should be made by relevant experts. It is reported that the currently State-compiled history textbooks will be changed to State-authorized ones. On such an occasion, those participating in their compilation should be composed of a wide range of experts. One desired target of education is to train people maintaining good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understanding the flow of the world history. In compilation of a history textbook, universality and objectivity are required, in addition to "self-reliance" and "national identity."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East Asia

Fukaya Katsumi (Waseda University)

n the nation's relations wi

Innovation and Change - Korean History in Taiwanese Textbooks

Lin Liyue (History Research Center, Taiwan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When Japan's rule of Taiwan ended in 1945, a new chapter in Taiwanese education was opened. Though the title of history education was changed from "Japanese history" to "Chinese history," the number of weekly class hours was decreased from three hours to two. After the Republic of China's government moved to Taiwan in 1949,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a new education policy in June 1950 and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Moral Education in Schools" in December 1952. In the same year, amidst an international situation characterized by "Oppose Communism and Resist Russia",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Standard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history was designated as one of subjects which should be used to raise the national spirit, and Chinese, geography, and ethics were placed on the curriculum. So, the National Publication Office published unified textbooks for all schools in Taiwan, and these have been used for five decades.

After the 1980s, as people sought greater freedom and democracy, the demand for educational reform grew. Initially, people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extbooks. Accepting the public dem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approve middle school textbooks written by private publishers in 1989, and after long discussions, allowed each school to choose their own textbooks in 1999. After this, the National Publication Office ceased to publish textbooks and limited itself simply to reviewing them. Since then, history has been integrated with geography and ethics to become sociology.

However, throughout this process, many of the description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focus mainly on Japan, and certain countries such as Korea are not well covered. Only a few aspects relating to China are

presented and there are no textbooks dealing with various aspect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study the historical descriptions of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presented in Taiwanese textbooks by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depiction of Korean history.

Rus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Socio-Political Orientation in Higher Education

G. A. Tkachova(History, Archaeology Anthropology R&D Center,
Far East Branch of Russia Science Academy, Vladivostok)

In the development of history, Russia has been focusing on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 approach which naturally affects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lthough this subject can be approached from many angles, in this study the focus is placed on education programs in colle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Russian government, higher education institutes must select four basic humanities subjects. Class hours are limited (60~150 hours), and are composed as follows: 39~90 hours of history; 18~36 hours of culture and world culture history; and 40~60 hours of special classes and self-study.

When all the subjects are added together, they should cover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wider world, Russian history and culture, and the history of the Asia-Pacific region. Every program introduces the major myths and religions of the Asia-Pacific region. For students from Far Eastern Russia, there are many program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Asian art (calligraphy, poetry and art), as well as Asian theatre, daily life, and how Asian countries protect and use their own cultural assets.

Academic documents contain in-depth information about marine geography, socio-cultural conditions in Korea, China, Japan, Vietnam and Singapore, and war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out human history. These documents concer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cific Ocean, mutual dependence between diplomatic policy and domestic policy, and military situ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se documents

are subject to various methodological and educational standards. However, their drawback is that they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Far Eastern Russia.

In August, 2007, polls were conducted on students from three technical universities. The results show that 41% of the students have visited at least one of the East-Asian countries and 67% of them have visited China. 11.2% of them have been to Japan. One student has even bee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four separate occasion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east visited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Regarding the major reasons for not visiting Korea, respondents cited insufficient information, visa problems and a lack of knowledge about Korean tourism.

As for the most important media of information, 24% cited TV, 13% magazines, 12% newspapers, and radio 9%. What is interesting is that, regarding information on East-Asian countries, 18% of the students claimed to learn most from their university classes, 14% from their friends, and 10% from their parents. When it comes to Russia-China, Russia-Japan, and Russia-Korea education centers, only ten students were found to know anything about them, while the rest of the students appeared to know nothing at all about them.

With regard to their knowledge about neighboring countries, 70~80% of the respondents claimed to have 'too little', 10~15% 'a little', 5% 'satisfactory', and one or two 'enough'. As for the most well-known elements of knowledge about the countries, the respondents claimed to be most knowledgeable about Japanese culture and customs, followed by the Chinese economy and East-Asian political situations. Though some students appear to be aware of religions, movie stars and popular singers, they do not have any information about art.

The subjects in which they appear to be most interested ar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53%), followed by the military power of China (45%), the military power of Japan (33%), the culture and customs of Japan (44%), and the culture and customs of China (29%). None of the students mentioned the ROK or the DPRK. Such a negative result could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two Koreas are not open to Russia from Russia's point of view.

As for China, 63%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is 'so good', and 51% of them said that the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is 'satisfactory'. Regarding Japan, 48% of them said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Japan is 'satisfactory', and 54% of them said the political relationship with Japan is also 'satisfactory'. However, when it came to the ROK and the DPRK, most of them stated th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the two Koreas are 'unsatisfactory' (ROK: 68 - 71%; DPRK: 61 -62%).

23% of the students questioned said they could marry a person from one of the other countries, and among these, 25% said they would marry a Japanese person if the occasion arose. However, 55% of the students expressed a negative view of international marriage. 64% of them said they would never marry a Chinese person, while,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with someone from the DPRK, 58% gave the same answer. 22~24% of the students reserved their decision on the matter.

Given these results, it may be said that young Russians know exactly how Asians and Europeans differ, and that they are well aware that it could take a lot of effort to get along with a spouse from a different culture.

As a final note, it is worth stating that humanities classes in science-oriented universities provide almost no information on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PRESENTATION OF EASTERN ASIAN COUNTRIES IN PRESENT-DAY VIETNAMESE TEXTBOOKS

Nguyen Van Khan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Among the foreign countries presented in the present-day Vietnamese textbooks, the presentation of Eastern Asian countries hold an important part. As soon as they start their study at middle school, pupils are provided with such basic knowledge as natural and social geography and a simple history of East Asia. At high school, pupils are provided with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knowledge. This sort of knowledge is presented mainly in History textbooks and, to a much lesser extent, in Geography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In the past decades,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by Vietnamese educationalists to reform the school textbooks. Consequently, the presentation of Eastern Asian countries in this textbooks underwent a variety of changes. By analyzing the present-day Vietnamese school textbook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pre-reformed ones, this article seeks to highligh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esent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in Vietnamese textbooks. It focuses on analyzing subjects presented in History textbooks and syllabus currently used in Vietnamese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n the conclusion, some suggestions are made which may help improve the presentation of the Eastern Asian countries in the Vietnamese textbooks in the coming years.

History Education in Mongolia: On the Description of East Asia as Reflected in History Textbooks

J. Gerelbadrakh (Mongol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The Mongolian schooling system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ree basic stages: pre-school education (kindergarten), general education (11 years,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and university, vocational and trade schools. For 2 years, from the 6th to 7th year, a class named “The History of World Culture” is given in the general school system. World history is further divided into Eastern Culture and Western Culture, of which the former is categorized into four periods: The Ancient East, Aspects of Eastern Culture in the Middle Ages, Modern Culture, and Contemporary Culture, taught in that same order.

The chapter on ‘Ancient East’ deals only with Chinese history, while in ‘Aspects of Culture in the Middle Ages’ Chinese and Japanese are taught. In “Contemporary Culture” the course follows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while Korea is studied in the chapter titled “Asian Tigers”, in which the four countries known for their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are introduced. In the class titled “The History of World Culture” as taught in Mongolia’s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most of its pages are dedicated to Chinese and Japanese history when it comes to discussing the three countries, while Korea in the Ancient Era and the Middle Ages does not show up until it the section on contemporary history. They briefly describe each period according to their south-of-the border neighbor, China. As for Japanese history, Japan’s quest for dominance in Asia is explained in association with that country’s chronological records. However, in the section on contemporary history, China, Korea and Japan are described as major players in terms of worl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is book, the Chinese are characterized to a small extent as an arrogant and self-righteous people with a long tradition of self-centered supremacy over, and of lesser respect for, other peoples.

In the higher level education curriculum offered in the universities, there are two major groups: “World History” and “The History of Mongolia”. The curriculum in each school is developed and organized independently; hence the number of credit hours in each school can vary to a large extent. In case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the Mongol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13 credits (312 hours) are offered for “The History of Mongolia” over a span of four years, while 12 credits (288 hours) are offered for “World History”.

Widely used textbooks include the 2-volume World History authored by the faculty of the History Depar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Contemporary Eastern History (1945~1990) translated by Bayarma (Department of History, Mongol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the 2-volume “Korean History” (ErdenTchimeg,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06) and Eastern History (16~21st century) (Tamir, Mongol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2007).

The number of textbooks on World History in Mongolia is relatively limited, owing to the comparatively heavy emphasis laid on Mongolian History in the course of history education. It is noticeable, judging by the contents of these history texts, that the history of Korea is seldom introduced when discussing the three Far Eastern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with most discussions centering on Chin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scarcity of resources on Korean history in the Ancient Era and the Middle Ages in Mongolia, Korean history plays only a minor role in the course of describing the history of China and Japan. In other words, this situation originates from a lack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In the universities, however, most instructors use world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Russian and/or English; hence, when giving lectures on Eastern History, those three countries are given more or less equal weight, covering the whole period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towards the use of books and articles in Korean, Japanese and Chinese in the course of the study of Eastern History, which produces positive effects in teaching the history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e Far East.

First, students are introduced to basic history under chronologically categorized subsets of topics, before taking “Major Issues in Eastern History” (4 credits, 192 hours) in their senior year. In this class, current issues in Eastern History are intensively discussed. Texts and books in either Russian or English are widely

used. It is encouraging to observe the current shift towards the adoption texts and books in the language of the country under discussion when the focus lies on the major important historical events of these three countries. These lectures are generally given by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instructors capable of reading history books in Chinese, Korean or Japanese.

Mongolian textbooks are edited with the goal of describing the individual history of each country on the basis of historical facts whenever possible. Yet the lesser weight that Korean history has among Far Eastern countries can be attributed to following factors: first, the scarcity of resources on Korean history in Mongolia; second, the lesser role Korea played in the Ancient Era and Middle Ages in the Far East; and, thirdly, the personal opinions of the textbooks' authors.

It was also noted that the overall quality of the treatment of historical contents leaves room for improvement in that the materials destined for general and higher education contain criticisms of the arrogant stance of the one Superpower nation, namely China, while providing no refutation or description of the negative effects that such a stance has incurred. It is indeed a downright serious blunder to neglect the aspect of history education required to refute the arrogant and self-righteous attitude of China, a country that denies the history of other countries and peoples and distorts history based not on scientific foundation but on political motivations, while the motto "We pursue the truth and righteous knowledge" has been set as the historical objective.

8Section

Organization and Properties of Korean Textbooks on East Asia

Sin Seonggon (Hanyang University)

An elective subject, "The History of East Asia," was adopted in by senior high schools as part of the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for social science in 2007. The course on "The History of East Asia" developed out of the need to further understanding on East Asia by helping students to review humanity's achievements and its relics in East Asia, and concurrently to help them develop the vision and insight required to achieve mutual prosperity in the region.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their own talents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by investigating the community and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cultures created by East Asians from ancient times up until today. The goal was clearly set to arouse students' interest in achieving the communal prosperity of East Asia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fter providing them with the intellectual acuity to understand and analyze, objectively and without any intentional bias, the past and present in East Asia.

To achieve this, an objective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helping them to develop their insights and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this region by understanding, collectively and systematically, the progress of history in East Asia from an open and objective perspective. It was also intended to train them to utilize historical materials from varying viewpoints and to help them develop the vision required for cooperation over the promotion of common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History of East Asia" comprises 6 sections in consideration of high schools' 6-unit, hourly-based, credit system. Section by section learning goals pretty much correspond to the chapters in the previous curriculum. The division of the sections was based roughly on chronological order, with major social

changes discussed. Each section was named without recourse to conceptual terms, while historical facts were mainly used to name the sections in such a way a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These can be tabulated as shown below.

Sections	Learning Goals (Contents)
I. The Birth of East Asian History	Nature of East Asia; prehistoric culture; agriculture and stock-farming; birth and growth of a state.
II. Population Migration and Cultural Interaction	Population migration and war; ancient Buddhism; ruling by the criminal code, administrative statutes, and Confucianism; and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III. Increased Productivity and Changes in the Ruling Class	Northern tribes;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mall-scale farming;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Neo-Confucianism.
IV.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Traditions	Wars in East Asia ca. the 17th century; silver transaction and commerce networks; population growth and socioeconomics; culture of the general populace; each state's own traditions
V. In Search of the People's State	Port-op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people's state; aggression of imperial states; Nationalism and national movements; endeavors for peace; acceptanc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ensuing changes.
VI. East Asia Today	Post-war problems; war and division; economic growth; political improvement; conflict and reconciliation.

A prototype model of “The History of East Asia”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7 is under development with funding from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should be completed by December 2007. This project was design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writing of new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the new curriculum, and also to produce training materials for the teachers. As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elective subject “East Asian History”, the following two sections have been highlighted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involved in encompassing the whole of East Asia, reaching beyond national borders.

Sections	Learning Goals (Contents)
II. Population Migration and Cultural Interaction	Population migration and war; ancient Buddhism; ruling by the criminal code and administrative statutes and Confucianism; and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VI. In Search of the People's State	Port-op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people's state; aggression of imperial states; Nationalism and national movements; endeavors for peace; acceptanc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ensuing changes.

In Section II, the following contents have been selected as a model for their unfamiliarity and the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faced by teachers and students alike in describing and delivering the contents.

- ① Understanding the growth of population migration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war.
- ④ Understanding the form of East Asian diplomacy - tributes and instal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necessity.

In Section V, “In Search of the People’s State”, the contents were chosen to display the goal and direction of the elective subject “The History of East Asia”: this should ① lay the groundwork and ⑤ contain items exhibiting the goals and direction of this subject.

- ① Comparing the implications of port-opening in each state and the process toward the formation of a modern people’s state.
- ⑤ Comparing each state as they began to accommodate Western civilization: what are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society, culture and ideas.

In principle, each content element should be about 10 pages long, and “The History of East Asia” should consist of about 200~250 pages. As for the title pages and the number of pages in these sample sections, it was agreed to utilize maps, drawings, photos and bibliographic resources appropriately, and to assign one research activity to each content entry. Overall, each content element would be about 10 pages long, with 1 page each for the main introduction and subset introduction, 4 pages for the main description, 1 page each for the two columns, 1 page for the research activities, and 2 pages for the references. The format will necessarily be rather flexible.